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100147-14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 재 정 비

All Ocean & City SHINE'S
바다와 도시가 함께하는 부산빛

NIGHTSCAPE MASTER PL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고도화사업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유원디자인연구소

목차

PART.1 야간경관계획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6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08

PART.2 기초조사 및 분석

기초조사 및 분석 개요 13
관련법규 및 조례 검토 14
부산광역시 관련계획 분석 19
타지자체 관련계획 분석 25
부산광역시 핵심사업 28
부산광역시 트렌드 분석 30
야간경관 현황조사 34
야간경관 의식조사 63
야간경관 국내외 사례조사 70
종합분석 및 업그레이드 방향 72

PART.3 야간경관 기본구상

야간경관 미래상 도출 77
부산시 야간경관 바른 빛 형성 79
야간경관 핵심과제 및 방향 80

PART.4 야간경관 기본계획

일반권역 야간경관 기본계획 87
지역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93
명소화권역 야간경관 기본계획 105
야간경관 조망 명소화 198

PART.5 야간경관 실행계획

명소화 사업계획 209
야간경관 관련조례 개정(안) 246

야간경관계획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6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08

PART.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1.1 배경 및 목적

계획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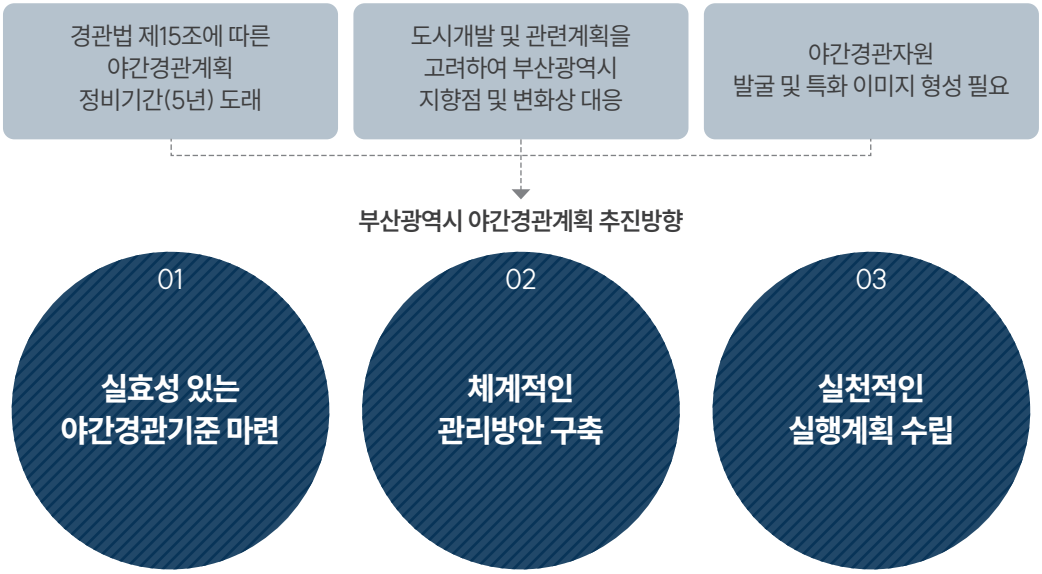
야간문화 및 경관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 야간생활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문화영역으로 야간경관에 관한 지속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 및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필요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3항에서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역 경관을 향상하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해 야간경관사업 계획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과 연계하여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하며 상위계획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경관계획과 관리방안 필요
- 야간경관계획은 야간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등 광역 지역에서 별도로 야간경관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실행 계획 수립 중
- 최근 조명연출 기술발달로 야간의 안전성과 도심을 밝히는 요소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와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성요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그 관심과 중요도가 점차 확대

계획의 목적

향후 5년 간의 트렌드 및 도시 경관 조명 방향성 변화 대응

- 시민이 체감하는 야간경관에 대한 트렌드와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내 도시의 방향성 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방안 마련 및 새로운 야간경관거점 형성 등 계획 업그레이드로 정돈되고 상징적인 쾌적한 부산의 밤 형성



1.1.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위치 : 부산광역시 전역 (16개 자치구·군)
- 면적 : 771.3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5년
- 목표년도 : 2030년

기준년도 2025년 → **목표년도 2030년**



내용적 범위

- 부산광역시 야간경관의 고도화를 위한 야간경관계획, 야간경관가이드라인, 빛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

01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 재정비
- 야간경관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 야간경관 실행계획

02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재정비
- 권역별 · 유형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지역별 세부 조명가이드라인 제시

03 부산광역시 빛축제 고도화 계획
- 부산시 구(군) 빛 축제 현황분석, 개선 방안 제시
- 국내·외 빛 축제 우수사례 조사
- 각 지역별 현황에 맞는 빛축제 구역 설정 및 주변민간과의 연계 방안 마련
- 특색있는 빛 축제 실현을 위한 부산시 및 구(군)의 역할제시 및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방향 제시

1.2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1.2.1 계획의 성격 및 위상

계획의 성격

① 법정 계획

- 도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인 경관계획에 근거한 특정경관계획

②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 야간경관계획은 부산광역시 경관 미래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계획과 경관보전·관리·형성방안과 연계하고 기정 야간경관계획과의 연속성, 차별성을 제시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의 성격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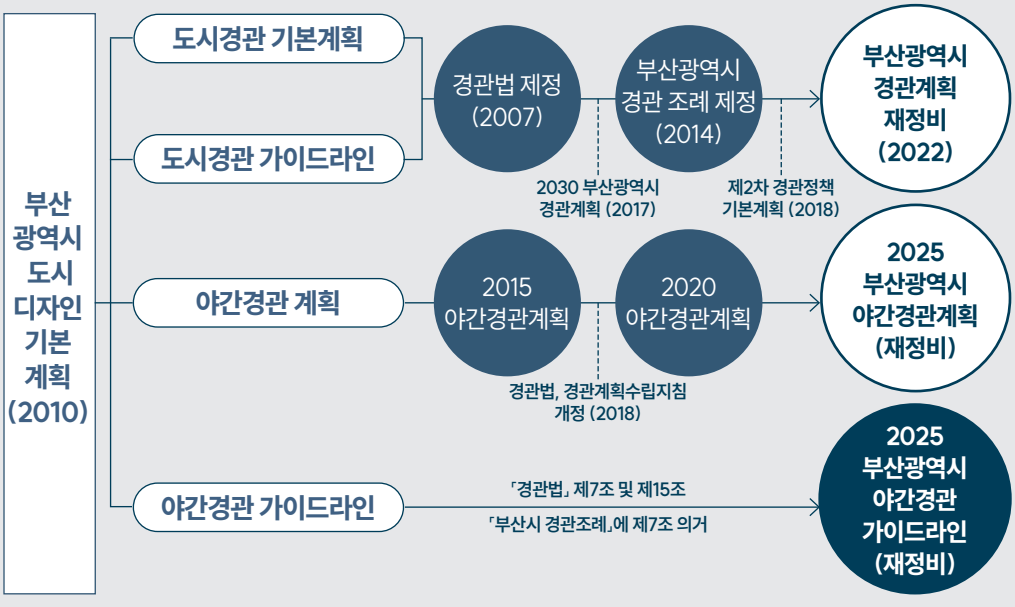
③ 통합적 계획

- 부산광역시의 분산된 다양한 야간경관 관련계획 및 사업을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향을 지닌 도시의 야간경관 관리방향 수립

④ 지역 맞춤형 계획

- 부산광역시의 도시·해양·생활경관 등 지역적 특성과 야간경관의 공간적·환경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경관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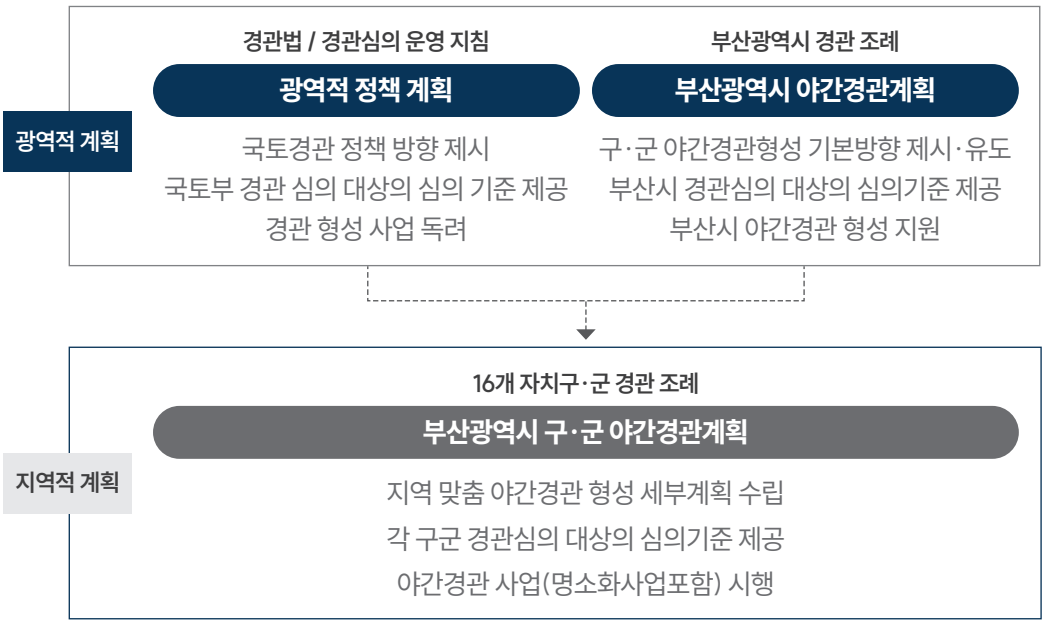
계획의 위상



1.2.2 수립체계

수립체계

-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의 법적 위계 및 내용 범위 설정을 위해 광역적·지역적 수립 체계 마련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공해 관리 외 심미성, 조화성 증진하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



1.2.3 계획의 업그레이드 방향

기본방향

관광자원 활성화 기회 마련

- 모두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빛을 제공하여 야간환경 만족도를 높이고,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재정립을 통해 빛의 도시 테마로 한 관광자원 활성화 기회를 마련

부산시 야간명소 특성화

- 부산광역시의 야간경관 명소에 대한 방안 마련 및 사업방향성 제시를 통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

체계적인 야간경관관리 방안

- 부산시의 야간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및 트랜드를 고려한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 통한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방안 마련

지속적 추진기반 확립

- 에너지절약 및 문화적 기능을 포함한 경관조명 연출계획으로 지속적 추진기반을 확립

2015년	미래상 : 밝고 활기찬 세계 속의 빛의 도시 부산		
	매력있는 부산의 빛	쾌적한 부산의 빛	역동적인 부산의 빛
	부산시 야간경관 체계화 및 가이드라인수립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명환경 개선	부산만의 창조적인 빛 형성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2015) 전략의 보완

2020년	목표 : 따뜻한 도시, 활기넘치는 부산 야경 만들기		
	쾌적한 부산	아름다운 부산	즐거운 부산
추진전략	부산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빛 **부산다운 야간경관의 보존**	부산의 매력을 강조하는 빛 **체계적인 빛의 관리**	부산의 바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빛 **빛의 명소 강화**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2020) 미래상 및 전략 고도화

All Ocean & City
SHINEs 바다와 도시가 함께하는 부산빛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고 부산의 도시 전체가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빛나는 포용적 의미로
부산만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Harmony 조화로운 빛	Identity 조화로운 빛	Network 연결하는 빛	Experience 경험하는 빛
생태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야간경관	도시와 빛·어둠이 조화로운 야간경관	부산다움이 느껴지는 특색있는 야간경관	빛으로 연결되는 다채로운 야간경관	시민과 상호작용하는 변화감 있는 야간경관

계획의 업그레이드

권역별 야간경관계획

- 권역별 야간경관계획은 2차 야간경관계획에서 부산시의 광역적계획으로서 야간경관 명소화를 위한 **3개의 명소화 권역과 4개의 일반 권역**으로 계획하였으며 야간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지

업그레이드 01

- 부산광역시의 **다양한 사업시행 및 시행예정**구역들의 변화에 따라 **세부명소화 권역 추가**

업그레이드 02

- 기정계획에서 제시된 명소화 권역별 야간경관사업이 **동일 권역내 연속성 , 연계성 등 부족 해결**
- 권역내 각 사업에 대한 **연계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내용 제시**

업그레이드 03

- 명소화 사업 대상지 중 빛이 과도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업그레이드 04

- 부산해안 투어 활성화에 따른 **해안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 방안 마련**
- 기술 발전과 트렌드, 시민과 관광객 눈높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야간경관 사업 중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야간경관의 관리와 활용 위한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 보완**

업그레이드 05

- 빛공해 관리를 위한 조례 및 위원회가 아닌 좋은빛으로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부산빛형성 관리 조례 및 부산빛위원회 구성**과 **부산빛 형성 관리 전담 부서 마련 근거 제시**

구분	2015 야간경관계획	2020 야간경관계획	2025 야간경관계획
법적근거	- 경관법 - 경관계획수립지침	- 경관법 (2018, 개정) - 경관계획수립지침 (2018, 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2019, 개정)	- **경관법 (2025, 개정)** - 경관계획수립지침 (2018, 개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2025, 개정)**
권역 구분	- 7개 야간경관 권역 중부권역, 동부권역, 남부해안권역, 서부권역, 북부권역, 강서권역, 기장권역	- **3개 명소화 권역** 해양환경 명소화 권역, 하천환경 명소화 권역, 원도심·역사·문화환경명소화 권역 - **4개 일반권역** 보전녹지, 생태경관보전지역 /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 일반주거·전용주거·준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3개 명소화 권역(명칭 및 세부 권역 추가)** 해안명소화권역, 하천명소화권역 도시·문화·자연명소화 권역 - **추가세부권역** 온천천권역, 기장권역
주요내용	- 대상구역 - 경관적 특성 - 빛의 연출방향	- 명소화 특성 - 주요 야간경관 특성 - 명소화 형성방법	- 명소화 권역별 특성 파악 - 권역별 **세부 신규 대상 구역 추가** - 명소화 권역의 **세부 사업 연계 및 연속성 확보 위한 방안 마련(사업, 가이드라인 등)** - 야간경관 **트렌트 변화 따른 미디어아트 활용**

기초조사 및 분석

기초조사 및 분석 개요 13
관련법규 및 조례 검토 14
부산광역시 관련 계획 분석 19
타지자체 관련 계획 분석 25
부산광역시 핵심사업 28
부산광역시 트렌드 분석 30
야간경관 현황조사 34
야간경관 의식조사 63
야간경관 국내외 사례조사 70
종합분석 및 업그레이드 방향 72

PART.2

2.1 기초조사 및 분석 개요

2.1.1 분석의 구조 및 내용

개요

- 관련 법 및 상위계획·사업의 분석을 통한 조명 용도별 법령체계 및 관리 주체를 파악함
- 부산시의 다양한 국가 행사, 신공항, 국립공원 등 도시 이슈를 분석
- 경관 사업 정책을 분석하고 야간경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에 반영
- 이전 계획 조도조사 대상지에 대한 야간경관 변화상 조사 및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도출
- 국내외 야간경관 관련 사례 파악하여 야간경관 기본구상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 벤치마킹 사례 발굴
- AI조명, 스마트 시티, IoT 등 전 세계적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

관련법 및 관련계획	- 관련법규 - 관련계획	관련계획과 연계를 통한 실효성 확보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을 통한 정합성 유지
도시현황	- 도시이슈 - 핵심사업 분석 - 부산에 대한 트렌드 분석	부산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사업과 정책 방향, 도시이슈 검토를 통한 방향성 도출 부산과 관련한 트렌드 분석
야간경관 변화상	- 기정야간경관계획 조사 대상지 변화상 - 명소화 대상지, 야간경관 사업완료 지역	야간경관의 변화상 조사 분석을 통해 야간경관 문제점, 방향성 등 검토
경관의식 분석	- 부산시민, 관광객 - 공무원	부산시민과 관광객, 공무원의 야간 경관 의식 조사 분석을 통한 기본구상 및 가이드라인 반영
유사사례 분석	- 국내 야간경관 사례 조사 - 해외 야간경관 사례 조사	경관계획의 기법, 연출방안 등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분석의 종합	- 분석의 종합 - 중점과제도출	경과자원조사 및 분석 종합 종합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도출

2.2 관련법규 및 조례 검토

2.2.1 개요

조사및분석방향

-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과 관련한 법규와 관련 계획의 역할, 경관 연계 관리 및 형성 지원 방안 검토를 통해 계획의 위상 및 역할을 확립하고 계획의 기조를 연계

계획의역할설정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시책 마련 및 도시 매력도 제고를 위한 계획			
해양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야간경관 형성	도시 매력도 제고를 위한 우수한 경관 발굴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경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경관조례

- [시행 2020. 5. 27.] [부산광역시조례 제6138호, 2020. 5. 27., 일부개정]
-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경관계획의 야간경관개선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등의 내용 수립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

③ 시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광고물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4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

5. 외부 재도색하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부산광역시 빛공해방지 조례

- [시행 2024. 5. 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82호, 2024. 5. 22.,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기준 및 빛공해 저감 원칙을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명 계획을 수립하고,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야간경관 조성 및 체계적인 조명 관리체계를 구축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

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옥외 체육공간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의 광고조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

가.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다. 교량

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7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1.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6.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중요 사항
7. 제20조에 따른 조명기구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환경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관리·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일부개정]
-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3 부산광역시 관련계획 분석

2.3.1 관련계획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 부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정책적, 종합적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 해운대~기장의 해양관광, 중부산의 재생, 배후주거의 진입부 상징경관 등 도시발전축의 기능을 반영한 계획으로 도시미래상과 정합성 확보

구분	내용	
도시미래상	- **부산 먼저 미래로 –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	
핵심목표 및 추진전략	**스마트 15분 도시** - 도시계획 체계 정립으로 생활권 계획 위상 확립 - 시민의 일상이 행복한 15분도시 실현방안 - 수요 기반 생활 SOC확보로생활권 특화	**글로벌 허브도시** - 국토 불균형 대응과 초광역 경제 네트워크 - 핵심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갱쟁력 확보 - 광역교통망, 신교통수단으로 초광역 연결
	청년활력 미래도시 -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지원 정책 - 도시공간 정비로 新 청년활력공간 확보 - 글로벌 금융중심지, 신학협력 혁신도시	**탄소중립 건강도시** - 탄소중립 전환기반 구축과 실천력 제고 - 생태친화형 녹색 치유공간 확보 - 지역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안심 건강도시
8대 도시발전축	**국제비즈니스 거점축** - 도시공간축의 중심이며 핵심적 발전축	**해양 성장축** - 남부 해안선의 주요 산업·업무 발전축
	강서권 개발축 - 서부산의 주요 발전축	**강동권 개발축** - 낙동강 수변의 발전축
	신공항 연계축 - 동삼~연계거점이 신공항과 연계되는 개발축	
	기장권 개발축 - 국제관광마이스와 휴양, 의료, 신산업으로 이어지는 개발축	
	중부산 개발축 - 노후 원도심의 재생과 복합 개방 연계 창조적 도시재생축	
	배후주거·휴양·여가축 - 다양한 정주공간을 형성하고 부산 진입부의 상징경관을 창출하는 개발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재편전략	**관광마이스 거점축 육성방안** - 기장중심지와 해운대중심지 축에 설정된 관광마이스 거점축은 국제교류 및 MICE 기능, 영상·문화, 의료, 휴양, 관광 기능 특화 연계	
	공항복합도시 성장축 육성방안 - 서부산권의 개발축에 설정된 공항 복합도시 성장축은 유통산업, 물류기반 및 허브, 비즈니스, 항공산업, 복합기능이 연계되는 성장축으로 육성	

부산발전 비전 및 전략

- 2020년도 기존 비전계획과 차별화된 2050 부산 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변화를 확인하여 글로벌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세계화 전략 추진
- 양적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공동체 실현과 투명하고 성숙한 도시로의 방향 전환을 통해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 해소와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한 전략 수립

구분	내용
도시미래상	- **모두의 부산, 글로벌도시 부산**
목표 및 전략	**15분 행복 도시** - 부산형 복지로 돌봄 공동체 - 행복한 평생 배움도시 - 15분 연결 콤팩트 생활권 **디지털·혁신도시** - 첨단산업 남부권 허브 도시 - 지산학 중심 기술창업 도시 - 혁신·융합 글로컬 인재 도시 **그린·안전도시** - 친환경 넷-제로 도시 - 지속가능한 그린 생태도시 - 스마트 안전 도시 **물류·금융 허브 도시**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허브 -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 **문화·관광 도시** -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 - 세계인이 찾는 관광 매력도시 - 경관이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
문화·관광 도시	**하이엔드 문화·예술 도시** - 문화예술 도시의 상징인 세계적 미술관 유치 및 건립 등 하이엔드 콘텐츠 시민 향유 - 시민 누구나 예술가가 되는 공연예술 창작 인프라 확대 - 기존 문화공간을 시민 활용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일상 속 문화가 살아있는 부산** - 지역 소극장 중심 찾아가는 시민 밀착형 공연 개최로 공연예술생태계 활성화 - 일상 속 문화 확대를 위한 부산지역 명소 곳곳에 퍼블릭 미디어아트존 설치 -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지역민의 문화 창작 및 공연 공간으로 활용 및 일자리 창출 **세계인의 열정이 만나는 메가이벤트 도시** - 부산 특화 이벤트를 토대로 글로벌 메가이벤트 도시로 성장 및 아시아 콘텐츠 마켓 선도 - 국제 스포츠 이벤트, 글로벌 수준 공연 유치 등 365일 세계인의 이벤트 도시 조성 - 글로벌IP 연계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로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문화가 관광이 되는 품격있는 도시** - 근현대 문화의 중심 원도심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 부산을 대표하는 먹거리의 세계화 추진, 커피 문화·산업 활성화 -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부산형 글로벌 인공서핑장 조성 등으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부산다운 건축으로 세계가 매료되는 도시** - 주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인증제도 도입 등 가이드라인 기반 차별화 유도 -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축과 도시를 확대하고,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자연 및 문화자원의 활용 - 시민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 체계 도입 확대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경관 도시** - 개발계획 시 건축물 높이, 자재, 색채와 가로경관, 공공디자인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 재구성 - 가로 시설물 최소화, 미관 저해 간판 정비 등 과감한 도시 비우기 실현 - 디지털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을 통해 부산다운 야간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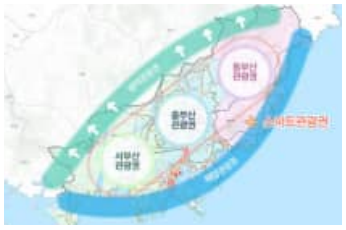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 경관계획 정비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부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 방향 제시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 마련

구분	내용	
미래상	- **시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열림과 어울림의 부산"**	
목표	- 산수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열린 경관 형성, 열림 - 입지와 지형과 조화되는 입체적 경관구조, 어울림 - 보행일상의 장소성·활동성·연계성을 중시, 엮임 -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협력·완성하는 부산경관, 설레임의 경관공동체	
경관권역	**서부산권역** - 수려한 수경관과 조화되는 미래 해양산업도시 경관 형성 **중부산권역** - 자연과 역사, 젊음이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도시 경관형성 **동부산권역** - 다양한 자연경관과 문화가 창출되는 문화·관광 경관 형성 **부산항권역** - 부산의 오랜역사와 항만산업경관을 중심으로 부산다운 도시경관 창출	
경관축	**녹지축** - 녹지 경관 유지 및 그린 네트워크 형성 **해안축** - 해양경관의 다양한 매력을 향유하는 수변가치 재창조 **하천축** - 수변과 조화되고 자연과 교류하는 수변경관 조성 **가로축** - 정돈되고 쾌적하며 다채로운 경관이 펼쳐지는 가로경관 형성	
경관거점	**관문거점** - 부산의 상징적 도시 진입부 이미지 형성 **시설거점** - 지역 특색을 지닌 커뮤니티 중심 랜드마크 형성 **역사문화거점** - 거점별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자연거점** -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지는 매력적인 경관 창출 **교차거점** - 부산만의 교차로 상징경관 형성	

제7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 부산권의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관광개발 정책의 연속성 확보
- 부산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국가단위로 수립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구체화하여 계획

구분	내용	
비전	- **모두의 일상이 여행이 되는 도시, 부산**	
목표 및 전략	**해양의 열린 관광** - 융·복합 관광테마 자원 발굴 -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강화 - 해양과 연결된 도심테마 Wave 완성	**시대를 잇는 관광** - 역사문화가 춤추는 관광환경 마련 - 그린스마트 관광기반 확충 - 글로벌 MICE·관광 서비스 고도화
	자연 속 하나되는 관광 - 탄소중립 생태관광지 조성 - 심신치유 관광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관광** - 정주형 관광기반 조성 - 시민이 만드는 부산관광 기반 마련 - 광역으로 열린 관광환경 실현
공간별 개발방향	**관광개발계획 관광소권** - 부산의 자연, 인문, 시설관광자원의 공간적 분포 및 특성을 고려하고, 주요 구·군 관광개발 거점을 중심으로 5개의 물리적 관광소권 설정 - 더불어 4차 산업혁명시대보다 체감높은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부산관광 성장을 견인하고자 스마트 관광권이라는 가상소권을 추가하여 5+1의 관광소권을 설정 	
	동부산관광권 - 글로벌 관광거점으로서 휴양·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관광 추구 - 관광객 이동성 및 자원 간의 연결성 제고를 위한 신(新)관광수용태세 마련	
	중부산관광권 - 중구, 서구, 영도구로 이어지는 해양관광 벨트를 활성화시켜 부산관광의 중핵으로 강화 - 원도심과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고유한 테마가 있는 관광권역으로 추진	
	서부산관광권 -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로 이어지는 을숙도·낙동강·다대포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능을 강화 - 서부산권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달성하고 부산관광의 균형발전 도모	
	해양관광권 - 동부산·중부산·서부산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육성 - 천혜의 해양자원과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심관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차별화된 융·복합 관광테마 발굴	
	광역관광권 -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위한 단일 관광권역 구축 - 지자체별 테마관광 콘텐츠를 연계하여 관광 경쟁력 강화	
	스마트 관광권 - 개별 여행객 중심의 다양한 요구와 관광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 - 세계인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국제관광도시 부산 브랜드 강화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정책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산형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

구분	내용	
비전	- **부산 도시재생,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전환**	
목표 및 추진과제	**인구변화대응** - 맞춤형 주거공급 및 주거 다양성 지원 - 생애주기별 편의시설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 - 생활인구 증대 및 인구 유입 촉진	**산업경쟁력 회복** - 대규모 이전적지 연계 경제재생거점 조성 - 주변지역 연계 재생 및 지역산업 지원 - 산업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 - 부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시 도시재생 추진체계 및 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각종 지원·관리방안 마련 - 신규 공공지원 제도별 활용방안 제시	
권역별 도시재생방향	**강서 재생권역** - 산업·주거·여가 기능의 조화로 지속가능성 제고 - 농촌 주거지 단계적 정비 및 스마트팜 전환 - 산업기반 복합도시 조성과 스마트 인프라 연계	**강동재생권역** - 산업·주거·관광 기능을 결합한 정체성 강화 - 노후 계획도시 관리 및 자연 생태자원 활용 - 기존 산업단지 및 노후공업지역 재정비
	원도심 재생권역 - 상권 회복 및 연결성 강화로 원도심 활력 제고 - 해양산업과 상업·주거·문화공간 복합 - 역사문화자산과 해양·항만 경관자원 활용	**동래 재생권역** - 역사·문화 특화 및 세대 공존으로 활력 도시 구현 - 문화관광지 특화 및 스포츠 관련 산업 활성화 - 대학교 연계로 청년창업지원과 문화산업 육성
	해운대 재생권역 - 해양관광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 증대 -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관광 콘텐츠 개발 - 관광·MICE 산업 연계형	**기장 재생권역** - 문화·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도시브랜딩 강화 - 전통 어촌문화와 지역자원 활용 - 산업단지와 관광지의 일자리 수요와 지역 인재 연계
	강서 재생권역 	강동 재생권역 
	원도심 재생권역 	동래 재생권역 
	해운대 재생권역 	기장 재생권역 

2020 부산시 야간경관계획

- 2015년 부산광역시 야간현황과 2020년 현재의 야간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2030년을 향하는 부산의 도시빛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야간경관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도출하며, 도출된 문제점을 야간경관 계획 업그레이드 및 부산다운 야간경관 명소 조성에 반영

구분	내용
미래상	- **밝고 활기찬 세계속의 빛의 도시 부산**
추진전략	**부산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빛** - 부산의 원도심·역사·문화 환경 명소화 권역의 역사·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조명 연출 - 조명환경 관리구역별 적합한 빛을 야간경관 형성에 적용 **부산의 매력을 강조하는 빛** - 하천환경 명소화 권역의 경관자원에 대한 조명연출로 아름다운 부산의 야간경관 창출 - 자연생태계를 보전, 배려하면서 절제·조화된 빛으로 쾌적한 생활과 자연을 향유하게 하는 빛환경 형성 **부산의 바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빛** - 부산의 해양환경 명소화 권역의 화려함과 활기참을 살린 야간경관 연출로 즐거운 야간경관 창출 - 야간경관 명소의 발굴과 연출방향 제시로 야간관광을 선도하는 빛환경 형성 **빛과 어둠의 균형 (부산광역시 전역)** - 좋은 빛 형성 원칙 및 방법을 준수하여 빛과 어둠의 균형으로 쾌적한 거리를 느낄 수 있는 야간경관 조성 - 향후 명소화 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빛환경 기반의 형성
명소화권역	**원도심·역사문화 환경 명소화권역** - 역사·문화재의 품격을 살리고 활용하는 개성적인 빛 경관 - 간선도로가 밝고 정돈되어 쾌적함을 주는 도시축의 골격이 되는 빛 경관 - 보행자가 안전·안심, 따뜻함, 편안함을 느끼면서 거리의 활기를 즐길 수 있게 하는 빛 경관 **하천 환경 명소화 권역** - 자연환경을 살리고 보전·활용하는 빛 경관 - 도로와 보행자 공간이 밝고 정돈되어 쾌적함을 주는 빛 경관 - 주민 등이 안전·안심하며 따뜻함, 편안함을 느끼면서 거리의 활기와 개성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빛 경관 **해양 환경 명소화 권역** - 바다로부터 산으로 연결되는 스카이라인, 바다 수변의 빛을 살린 경관 - 고층빌딩군의 옥탑조명과 새어나오는 빛, 미디어파사드 등 테마와 개성이 넘치는 경관 - 쾌적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빛환경 형성 명소화 권역별 지도  명소화권역 분포도 

2.4 타지자체 관련계획 분석

2.4.1 관련계획

서울시 도시빛 기본계획

- 서울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공간적 특성에 기반한 야간환경정비 및 야간문화 활성화 전략을 통해, 기존의 야간경관 정비 및 관광 활성화 위주의 계획에서 더 나아가, 일상적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뤄지도록 계획하여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구분	내용
비전	- **아름답고 편안한 서울의 밤, Turn Up Seoul's Light**
목표	**안전성** - 야간 시간대 도시 이용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행, 활동, 체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시민과 방문객이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함을 인지할 수 있는 빛환경을 고려한 기능적 조명 기준을 적용하고, 공간의 이용 특성에 부합하는 야간경관 관리체계 구축
	서울다움 - 서울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야간경관 및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서울의 국제적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
	아름다움 - 빛의 색, 밝기, 방향, 리듬 등 조명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도시의 미적 가치를 제고
	어두움 - 야간경관 계획에 있어 어두움은 완전한 암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기능과 환경적 요구에 부합하는 적합 밝기 수준 의미 - 필요한 밝기의 위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빛을 절제하는 관리 방향 확립
전략별 도시빛 계획	**빛의 인프라 정비계획** - 빛 연출을 통해 도시 아이덴티티 강화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성공하고 있는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고, 서울에 맞는 빛 상징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
	빛의 특화계획 - 지역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주간과 야간시간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야간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장소특화 계획 수립
	빛 문화 활성화 계획 - 미디어파사드의 현황 및 제도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 구축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미디어파사드 특화 계획과 광고조명의 예술적 활용 방안을 통 해 서울시 야간경관의 발전 방안 모색
	빛의 조율 계획 - LED 가로등 및 보안등 선정기준 마련, 관리시스템 구축,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계획,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로드맵 구상 등을 통해 장기적 비전의 종합적 계획 마련

경기도 야간경관계획

- 기 수립된「경기도 인공 빛공해 관리 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2012)」중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비
- 경기도 야간경관 관련한 각종 현안을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함께 실행 가능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

구분	내용
비전	- **경기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빛**
추진전략	**ON&OFF 특별한 밤** - 14대 경기도 밤하늘 별빛 명소 브랜드화 - 상징적 메시지로 소통하는 특별한 관문경관 형성 **함께 즐기는 문화의 밤** - 34대 경기문화야경 명소 활성화 - 야경특화자원 중심 빛의 클러스터 조성 지원 **낮처럼 편안한 밤** - 밤길 안심 빛 환경 조성 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생활환경 구축
추진전략별 실행방안	**14대 경기도 밤하늘 별빛 명소 브랜드** - 제 1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일 경우 경기도 대표 야간경관자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군 차원의 경기도 대표 밤하늘의 지속적 보전 및 관리 기본방향 준수 **상징적 메시지로 소통하는 특별한 관문경관 형성** - 거더:경기도 방문을 환영하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은 미디어 파사드 연출 - 거더하부:하부 통과 시 게이트성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반영한 거더 하부 장식 조명 연출 - 건축물 입면:구조적 형태미를 살린 연출과 부분적 홍보 연출을 통해 야간경관 특화 - 도로법면:돌출형 시설물을 배제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한 환영의 빛 연출 **34대 경기문화야경 명소 활성화** - 향후 계획 정비 시, 기 선정된 34대 경기문화야경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에 한하여 야경특화자원 중심 빛 클러스터 조성 사업 우선 지원 - 향후 계획 정비 시 관광 동향을 반영한 신규 경기문화야경을 추가 선정 **야경특화자원 중심 빛의 클러스터 조성 지원** - 경기문화야경을 연결하는 구간 중 중요한 오픈스페이스는 면적 조명 연출을 통해 연속적인 빛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야간경관 활성화 도모  **밤길 안심빛 환경 조성 지원 확대** - 도 및 도내 시·군에서 추진하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생활환경 구축** - 보행친화적 야간경관 형성을 위해 다채로운 조명 기구 및 기법을 활용 - 신재생에너지(태양광)조명기구, 고효율LED광원, 자체발광체와 같이 지속가능한 조명 연출기법 도입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만들기

- 인천만이 지니고 있는 특화된 경관요소 등 특징과 개성이 돋보이는 야간경관 명소를 발굴하고 친환경 빛을 주제로 하는 야경연출을 통하여 국제도시로서의 품격 향상
- 관광 마케팅 요소로 활용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험코스 개발로 관광 활성화

구분	내용
비전	-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푸른빛의 인천(Blue Light)**
추진전략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11개 권역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4개 지역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6개 유형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시범사업 야간경관 기본 및 실시설계
	야간경관 10대명소 발굴 및 체험코스 개발 - 10대명소 발굴 (명소별 조망지점 2개소 제시) 명소별 연출(안) 제시 - 10대명소와 연계한 야간경관 체험코스 제시

진주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 LUCI(국제도시조명연맹) 정회원 도시로서 진주시의 체계적인 야간경관관리 및 특성화를 위한 시내 지역과 주요지역에 대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
- 남강을 중심으로 분포된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의 차별화된 야간경관 형성으로 품격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

구분	내용
비전	- **진주를 밝히는 희망&문화의 빛 진주빛으로 수놓다**
추진전략	**효율적인 빛 – 가로조명 균제도 개선** -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명시스템으로 가로조명의 규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창출하며 고효율 광원과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으로 에너지 소비량의 절감 실천
	안전한 빛 – 안전하고 활력넘치는 진주시민의 일상생활 - 시민생활지역 내 밀착된 범죄예방 조명계획디자인을 통해 야간 활동의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야간 활동 활성화와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빛의 개입 강화
	상징의 빛 – 진주시 관문경관 및 도시상징 랜드마크 조명 - 도시 관문경관과 상징 랜드마크를 적극 발굴, 활용하도록 하여 도시의 인상을 새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흥미롭고 다채로운 도시 야간 이미지 창출
	차별화 빛 – 남강일대 친수풍경 빛의 명소화 - 진주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남강 일대의 친수공간 이미지를 빛의 도입을 통해 전략적인 야간경관 명소화,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정체성 강화

2.5 부산광역시 핵심사업

2.5.1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개요

-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 함께 만들어가는 디자인**
- 부산은 세계디자인기구(WDO)가 주관하는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 WDC)로 선정
- 디자인을 기반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 세계디자인수도는 도시 전반에 디자인을 적용하여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발전을 도모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 개선을 핵심 가치로 선정



주요행사

- WDC 의무 프로그램 7개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최
- 세계디자인수도 지정 의무 행사인 세계디자인 거리 축제, 세계디자인 스포트라이트, 세계디자인 체험, 세계디자인 정책 콘퍼런스, 세계디자인 도시 네트워크 회의, 세계디자인 수도 인계인수식까지 부산 전역이 세계 디자인의 무대로 변모하여 다채로운 국제 행사 진행

타 개최국 및 주제

개최년도	도시(국가)	주제	설명
2026	프랑크푸르트 라인마인 (독일)	민주주의를 위한 디자인-야망과 변혁 (Design for Democracy)	민주주의와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사회적 변혁과 디자인의 역할 강조
2024	샌디에이고 (미국) 티후아나 (멕시코)	인간 중심의 디자인으로 국경을 넘어서 (Cross-border Collaboration through Human-Centered Design)	디자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연결 촉진
2022	발렌시아 (스페인)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Design for Change)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통한 도시 발전과 사회적 통합 강조
2020	릴 메트로폴 (프랑스)	디자인은 어디에나 있다 (Design is Everywhere)	디자인이 일상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적 변화 촉진
2018	멕시코시티 (멕시코)	사회적 책임 디자인 (Socially Responsible Design)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공간 개선에 기여
2016	타이베이 (대만)	적응형 도시-움직이는 디자인 (Adaptive City)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대응하는 유연한 디자인을 통한 도시 혁신
2014	케이프타운 (남아공)	라이브 디자인, 트랜스폼 라이프 (Live Design, Transform Life)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도시 문제 해결
2012	헬싱키 (핀란드)	오픈 헬싱키- 삶에 디자인을 통합하기 (Open Helsinki)	공공 서비스 디자인과 협업을 통한 시민 생활 개선
2010	서울 (대한민국)	디자인으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자 (Design for All)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
2008	토리노 (이탈리아)	플렉시블 시티 (Flexible City)	산업 도시에서 창의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재생과 경제적 변화 촉진

2.5.2 부산광역시 사업

2025년 주요사업

- 부산광역시의 도시공공디자인 및 야간경관 사업은 해양 자원을 중심으로 한 공간 전략과 디자인 중심 도시재생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특히 야간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두드러지며, 이는 향후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해양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순 조명 설치를 넘어 관광, 문화, 도시브랜드 형성을 결합한 통합형 전략 지향



[부산광역시 주요 야간경관 사업 분포도]

공공디자인 사업

- **품격있는 부산거리 디자인 사업** –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스트리트 퍼니처 디자인 사업 추진
- **도시비우기** – 부산역 일원, 사상역 일원 준공
- **안심마을 조성** – 북구, 사하구, 동구 지역맞춤형 CPTED 추진
-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 부산역·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 노후·위험 광고시설물 정비
-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 수영만요트경기장재개발,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착수
- **하이엔드 문화인프라** – 부산콘서트홀 성공적 개관과 함께 수준높은 문화인프라 지속 확충
- **북항재개발** – 마리나 육상적층시설 공사완료, 친수공원 지하주차장 준공

야간경관 사업

- **별바다 부산 나이트 페스타** – 부산 전역의 주요 명소에서 다채로운 야간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야간관광 축제
- **세계적 수준의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추진** – 송도해안산책로, 부산항 대교, 삼락동 낙동제방, 화명생태공원
- **미디어 파사드 옥외 광고물** – 그랜드조선 부산 미디어 설치 허가, 구남로 미디어타워 조성계획, 용두산 공원, 중구 분수 광장
- **해안권 야경명소 관광자원 개발** – 남해안권(광역) 야경명소 및 스테이 공간 등 관광자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 추진

2.6 부산광역시 트렌드 분석

2.6.1 야간경관 트렌드

개요

-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야간경관을 단순한 '조명 연출'이 아닌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도시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 시민 안전, 에너지 절감, 도시 브랜드 강화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
- 특히 IoT 기반 원격제어, AI 기반 자동화 조명, 인터랙티브 미디어 파사드 등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빠르게 확산
-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부산광역시 역시 기존 경관조명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 기반 고도화와 스마트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질적 전환이 필요
- 순한 밝기 개선이나 시설 확충을 넘어, 도시 특성과 연계된 차별화된 야간 콘텐츠 창출과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 수립이 병행



**신기술 기반 조명 도입, 데이터 기반 스마트 운영체계 구축,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해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야간경관 조성 필요**

2.6.2 신기술 기반 조명

에너지 효율과 표현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며 야간경관 조명의 고도화 주도

- 최근 조명 기술은 기존 LED를 넘어 Micro LED, OLED 등 고효율·저전력·장수명 특성을 갖는 차세대 광원 중심으로 발전
- 높은 밝기와 색 재현성을 기반으로 정밀한 경관 연출을 가능하며, 건축물과 일체화된 디자인 적용
- 스마트 드라이버 및 디밍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와 신재생에너지 연계가 강화되면서 탄소중립 정책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어, 부산은 해안 환경 특성상 내식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조명 기술 적용 필수

미디어 파사드 및 인터랙티브 조명

도시 경관을 콘텐츠화하여 관광 및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발전

- 건축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는 영상·그래픽·데이터가 결합된 동적 경관 연출 기술로, 기존의 정적 조명을 넘어 도시형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능
- 대형 LED 디스플레이 및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구현이 가능하며, 시간·계절·이벤트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 연출을 통해 도시의 상징성과 가시성 강화
- 해양경관과 축제 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스토리텔링 기반 야간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 도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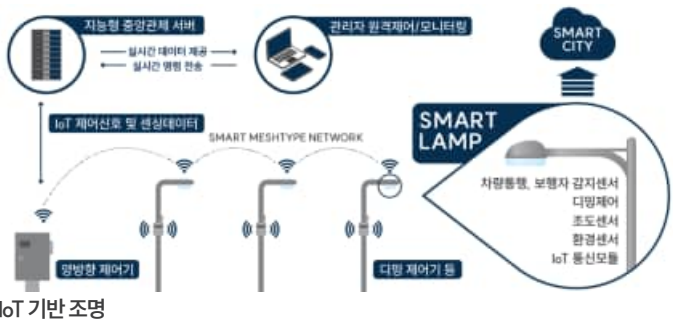
IoT 기반 조명 인프라

IoT 기반 조명은 조명 설비를 네트워크화하여 통합 관리와 효율적 운영 가능

-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조명 시스템은 개별 장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제어 체계로 전환
- 조명 기기 간 연결을 통해 중앙에서 일괄 제어가 가능하며, 원격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 인프라는 스마트시티 플랫폼과 연계되어 교통·환경·안전 등 도시서비스와 통합 운영 가능하며, 부산과 같이 복합적인 공간구조를 가진 도시에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미디어 파사드 조명 연출



IoT 기반 조명

시사점

차세대 광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고품질 조명 도입을 통해 부산 야간경관의 경쟁력과 차별성 강화 필요

2.6.3 스마트 조명 시스템

데이터 기반 운영 및 통합관리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로 발전

- 유동인구, 교통량, 시간대, 기상 조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명 밝기와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용 환경에 최적화된 조명 서비스 제공
- 중앙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도시 전역의 조명 상태를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가능
- 부산은 관광객 밀집 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명 운영체계 구축 필요

스마트시티 연계형 조명

다양한 도시 기능과 융합되어 복합 공공서비스 인프라로 확장

- 조명은 CCTV, 공공 와이파이, 환경센서 등과 결합된 스마트 폴 형태로 구축되며, 도시 안전, 환경 모니터링, 정보 제공 기능을 동시에 수행
- 재난 상황 대응 및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
- 부산의 경우 해안 및 관광지 중심의 야간 활동이 활발한 만큼,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조명 인프라 구축이 중요

에너지 절감 및 ESG 대응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도시의 ESG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

- 조명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함으로써 약 30~70% 수준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 저감과 직결
- 친환경 조명 도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부산은 해양환경과 관광 산업이 결합된 도시로, 친환경 야간경관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 구축 요구


유동인구 데이터 기반 조명 관리


스마트폴 형태의 가로등


에너지 절감 조명

시사점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조명 운영의 효율성과 도시 안전·편의 기능을 동시에 확보

2.6.4 인공지능(AI) 활용

AI 기반 자동 조명 제어

AI 기반 조명은 환경과 이용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율적으로 최적의 조명 환경 구현

- 보행자 및 차량 흐름, 시간대, 기상 조건 등을 분석하여 조명 밝기와 색상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기존 규칙 기반 제어 대비 정밀도와 효율성 향상
- 사고 및 범죄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조명을 활용한 경고 및 대응 기능이 가능하여 도시 안전 관리 수단으로 활용
- 실시간 데이터 분석으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필요한 조명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맞춤형 야간경관 연출

AI는 사용자 특성과 도시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야간경관 연출 가능

- 관광객 유형, 방문 시간, 이벤트 등에 따라 조명 연출을 자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계절 및 시간대에 따른 다양한 경관 연출 가능
- 도시의 차별화된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관광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방문객의 이용행태와 공간별 특성을 분석하여 장소별·시간대별 최적화된 야간경관 연출 가능

예측 유지관리 및 운영 최적화

조명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

- 조명 설비의 상태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장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최적화하여 관리 비용 절감 가능
-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전략을 개선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조명 관리 가능
- 설비별 운영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여 유지관리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조명환경을 유지


평상 시 가로등


안개 탐지 가로등 작동


시민의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조명

시사점

AI 기반 자율 제어 및 예측 관리 기술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맞춤형 야간경관 경험 고도화

2.7 야간경관 현황조사

2.7.1 야간경관 현황 조사·분석의 방법

조사 개요

-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현황조사는 전체적으로 야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현황과 부산시민의 영향을 파악하여 업그레이드 방안 제시
- 2020년 이후 부산시 야간경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산시 지역별 현황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 부산 시민들의 야간활동을 검토하고, 그와 밀접하게 연관된 곳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조사·분석
- 부산시 야간경관 공간의 전체적이고 부분적인 현황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그레이드 방안 도출
- 2020년 대비 2025년 야간환경을 분석하여 야간조명시설의 조명 광원에 따른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광원별 현황 조사

구분	2015 야간경관 현황조사	2020 야간경관 현황조사
조사내용	– 부산시 기본경관계획의 중요경관 자원 및 야간경관자원을 검토하여 권역별 조사 – 공적 장소, 이용 빈도 높고, 장소성을 지닌 곳을 권역 내 조사지역 선정	– 2015년 조사된 지역을 중점으로 검토 – 2020년 지역별로 분석하여 조사 지역으로 반영 – 2015년과 2020년 야간경관 현황 비교 – 야간경관 현황 조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사항에 반영 – 야간활동을 반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을 고려

▼

구분	2025 야간경관 현황조사
조사내용	– 기정계획에서의 조사된 거점들의 야간경관 변화상 검토 – **2020년과 2025년 야간경관 현황 비교** – 야간경관에서 **중요도가 높아진 신규거점 추가 분석** – 야간경관 현황 조사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사항에 반영 – **변화상 분석으로 개선방안 및 시사점 도출**

2.7.2 야간경관 현황 조사

조사 대상지

- 부산광역시의 대표 경관자원과 야간활동 거점 중심으로 해안·산지·하천·가로·신개발 및 관문경관의 5개 유형으로 구분
- 2020년도 야간경관 현황과 현재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주요 거점의 변화 양상 진단
- 각 권역별 야간경관 특성과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경관 자원의 차별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및 개선 방향을 도출



[부산광역시 주요 야간경관 자원 분포도]

2.7.3 해안경관지역 야간경관 현황

해운대해수욕장

- 해수욕장 별도 추가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야간 산책 시 불편함은 없으며 해운대스퀘어 설치를 통한 미디어와 연계한 야간경관 지속 운용 계획 중
- 해수욕장과 해운대스퀘어를 중심으로 상업·관광시설의 야간조명이 집적되어 있으며, 수변과 주변 공간으로 빛의 범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임



광안리해수욕장

- 다양한 상업시설과 해수욕장의 조명형 시설물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야간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론쇼와 광안대교 경관조명 개선으로 야간경관특화 강화
-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해변·수변공간 및 상업시설의 조명이 다양하게 연출되어 있으나,공간별 조명연출 특성의 통합적 연계가 필요함

대상지 현황

위치도



2020년 현황사진







2025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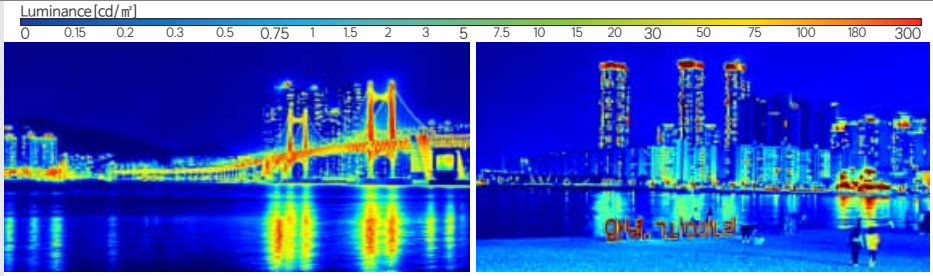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송정해수욕장

- 해안 주변 상업·숙박시설과 자연경관이 위치하여 비교적 개방적 해안경관 형성하고 있으나, 야간경관의 연출 및 시설이 제한적이고 해변과 주변 상업가로 간 조명 연계성 부족
- 해변을 중심으로 해안도로·상업시설 및 죽도공원 일대 조명이 분포하며,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의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대상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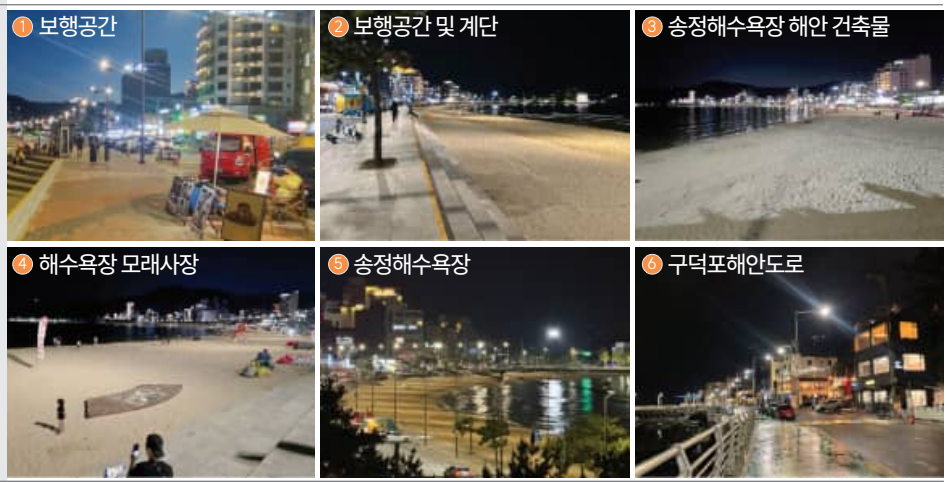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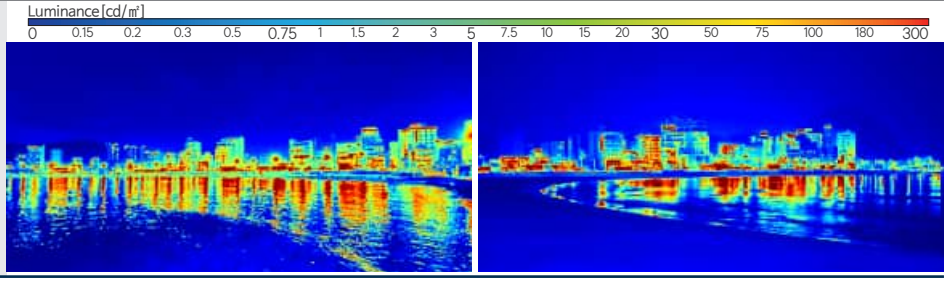
2020년 현황사진



2025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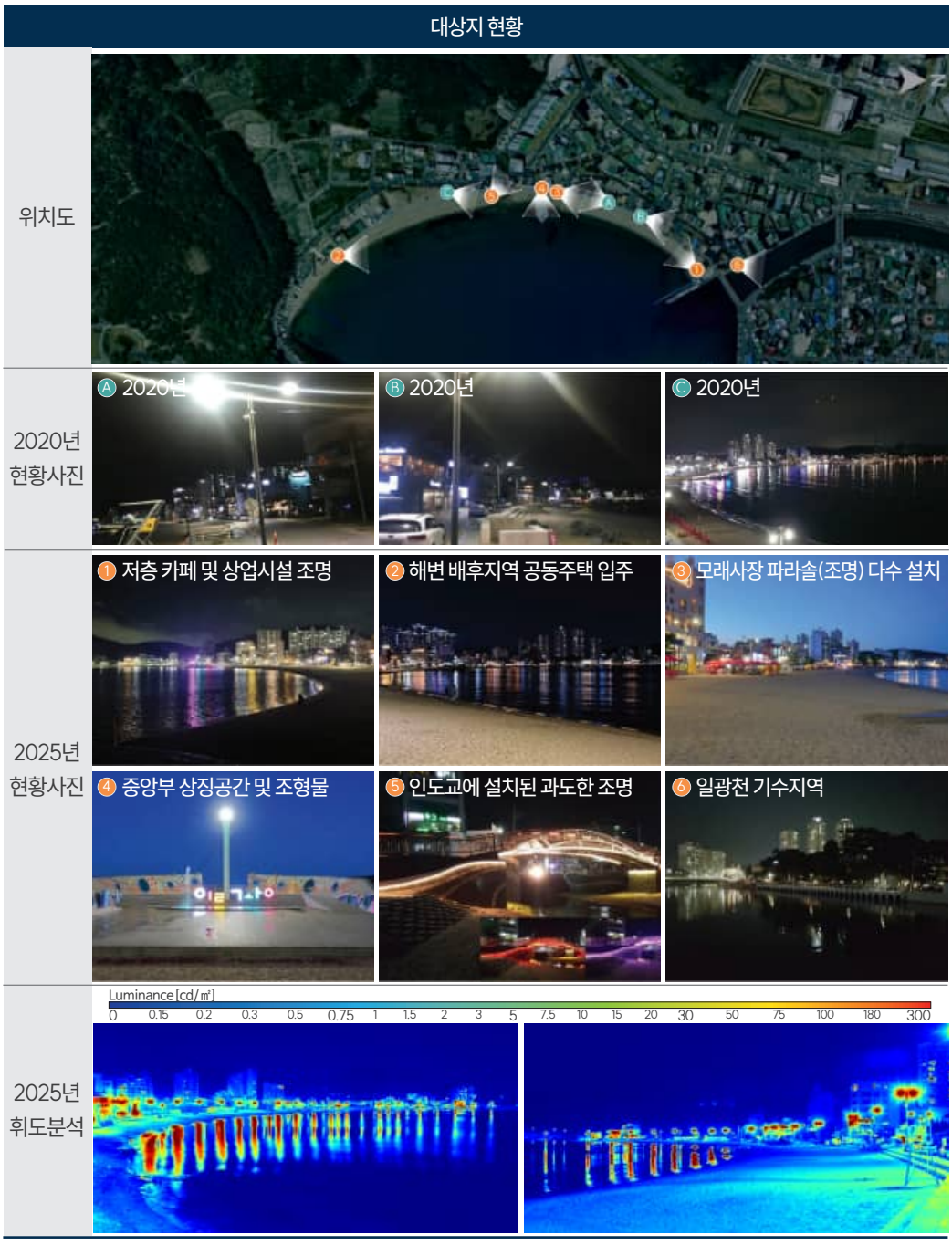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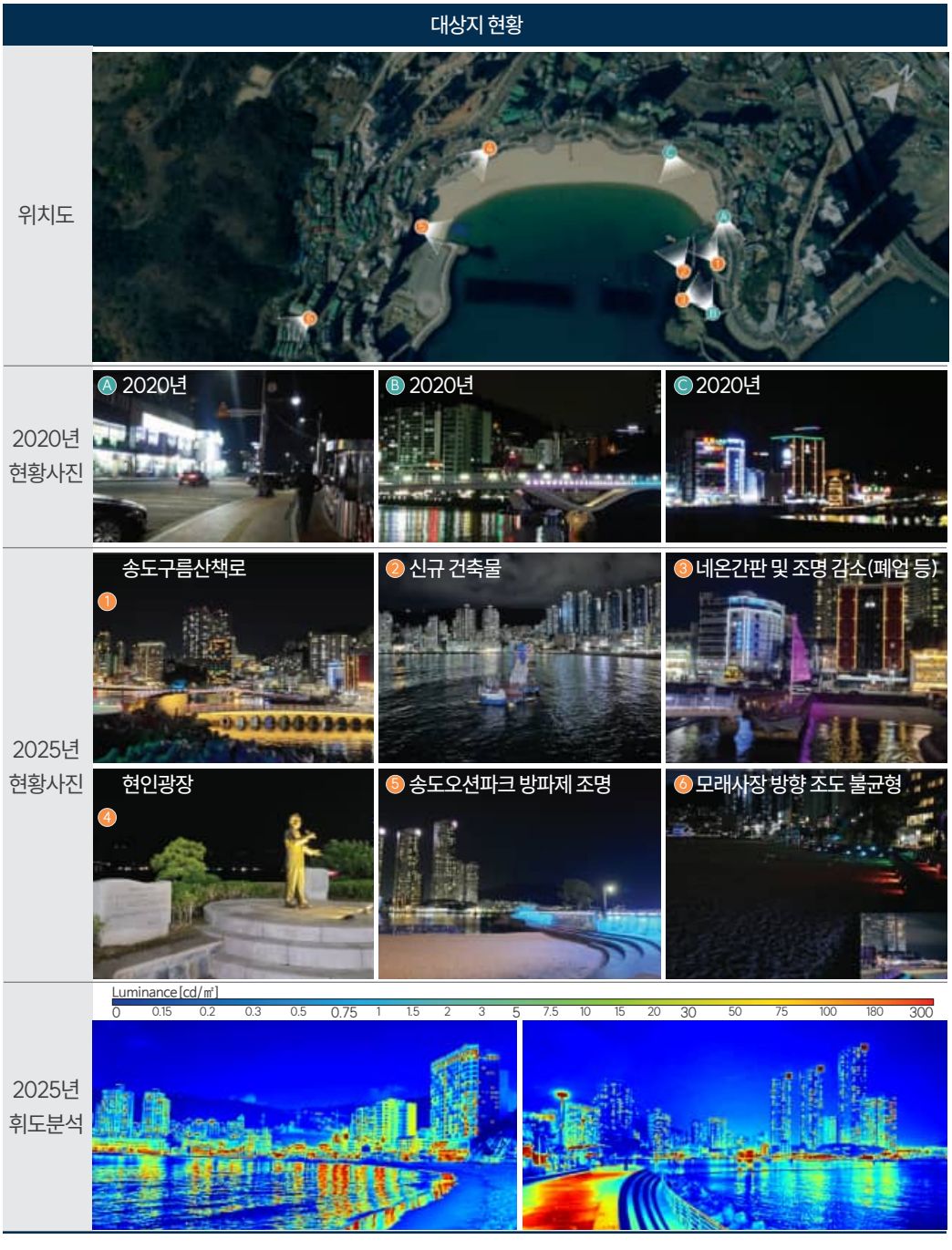
일광해수욕장

- 해안을 따라 저층 카페 및 상업시설들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조형물 등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 해변을 중심으로 공간별 조명 밝기와 색채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구간별로 야간경관의 분위기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



송도해수욕장

- 다수의 고층건축물 신축으로 해안의 경관 및 야간경관에 큰 변화가 있으며, 송도해수욕장 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조명시설이 설치 되었으나 해안좌우측 불균형
- 수변 산책로와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야간조명이 강화되고 있으며, 주변 공간과의 조명 연계 및 경관적 통일성은 다소 부족함



다대포해수욕장

- 연속적이지 못했던 해변공원 조명 정비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가능하게 변화하고 양측의 동측해안과 고우니길의 현황을 고려한 조명 설치
- 고우니생태길과 해변 산책로를 중심으로 수변·녹지공간 조명이 연계되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차분한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대상지 현황

위치도



2020년 현황사진







2025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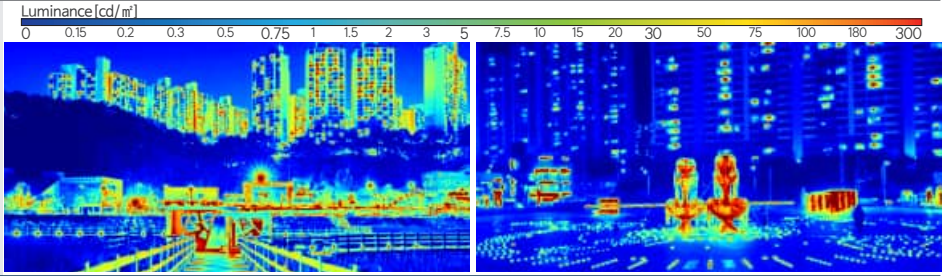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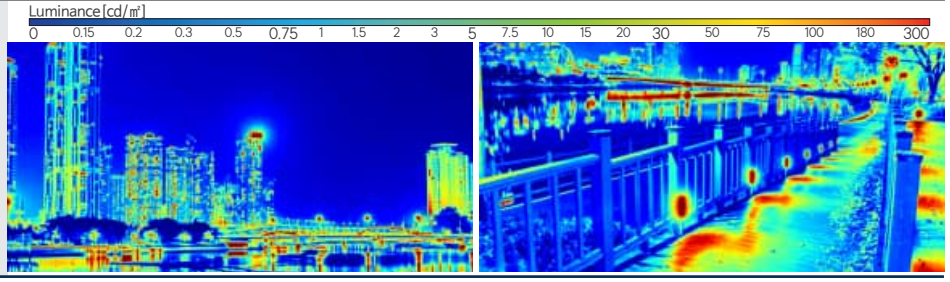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2.7.4 하천경관지역 야간경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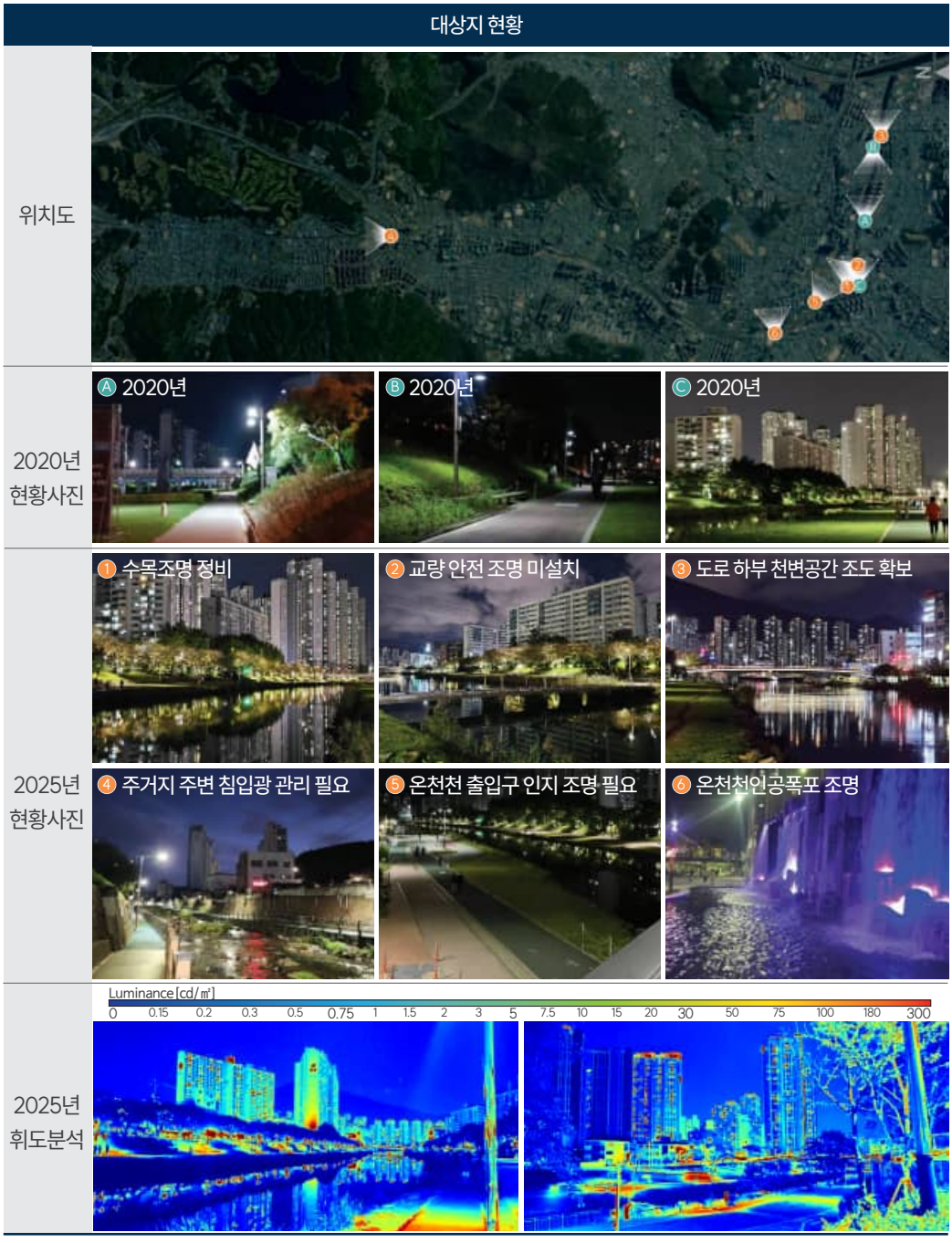
수영강

- 수변 산책로를 따라 연속적인 보행조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주요 교량 경관조명이 야간경관 주요 조망 요소로 나타남
- 지속적 조명 관리와 야간경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휴먼브릿지 완공에 따라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야간경관 연계 강화 필요

<table>
<tr><th colspan="4">대상지 현황</th></tr>
<tr><td>위치도</td><td colspan="3"></td></tr>
<tr><td>2020년
현황사진</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2025년
현황사진</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2025년
휘도분석</td><td colspan="3"></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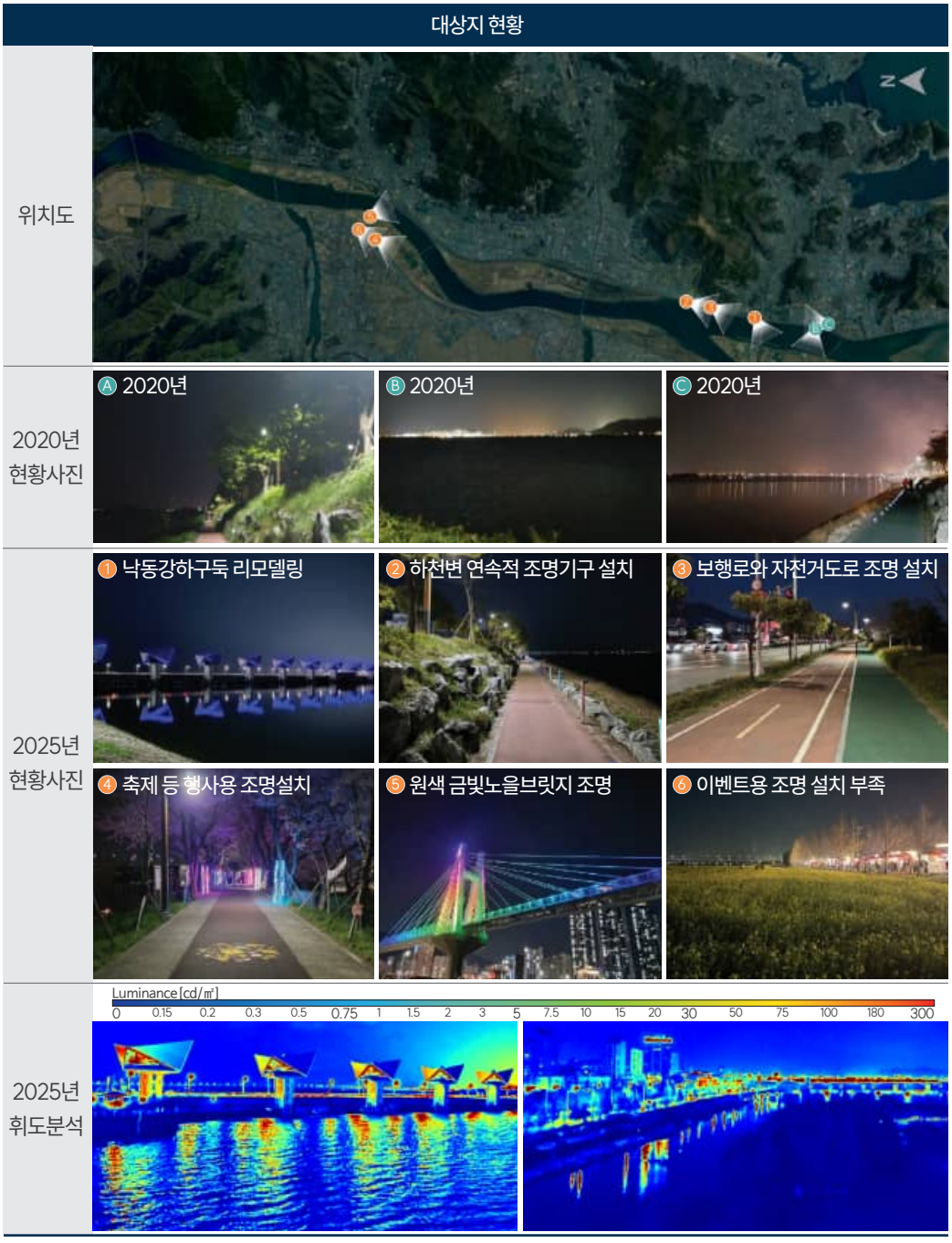
온천천

- 수변 산책로를 따라 조명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녹지와 주거공간이 어우러진 생활형 수변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벗꽃축제, 빛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시행하며 시민 모두가 산책, 운동 등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으로 안전을 위한 조명 및 특화 필요구간 구분·강화계획 필요



낙동강

- 하천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연속적인 조명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요 교량과 수변시설 경관조명이 야간경관의 주요 요소로 나타남
- 낙동강 생태환경을 위한 다양한 조명 설치가 어려우나 보행자의 안전과 이벤트형 조명 설치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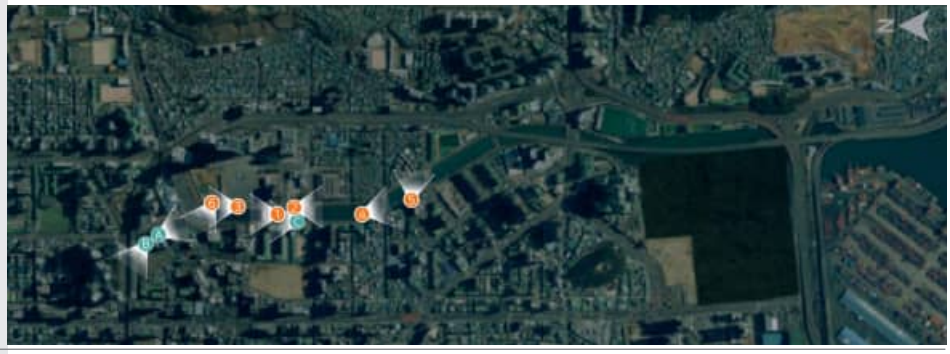


동천

- 동천 주변 보행로공간은 정비되어 야간 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동천 양측면, 교량 등의 조명 관리 및 특화 방안 필요
- 교량 및 인도교의 경관조명이 다양한 색채와 방식으로 연출되어 수변의 시각적 인지성은 있으나, 교량별 조명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남

대상지 현황

위치도



2020년 현황사진







2025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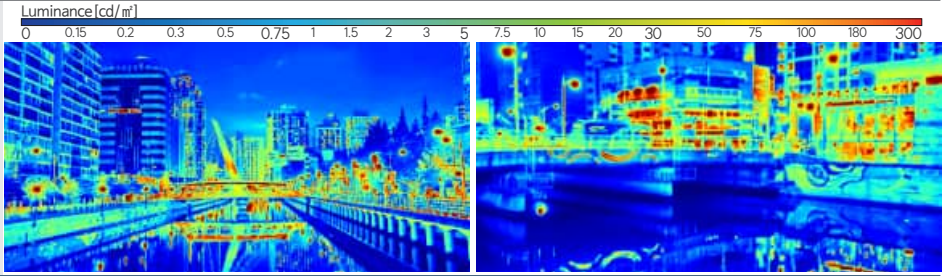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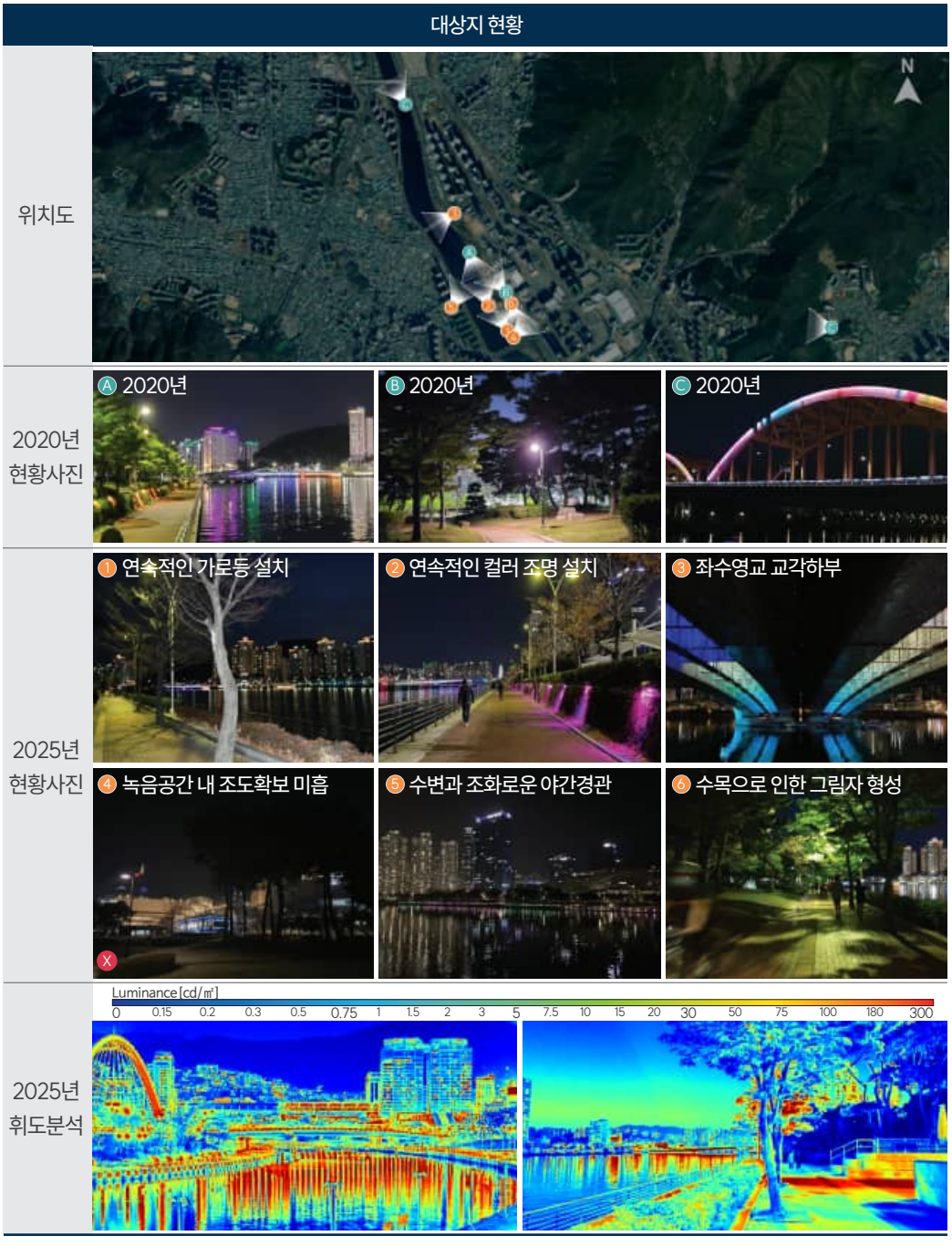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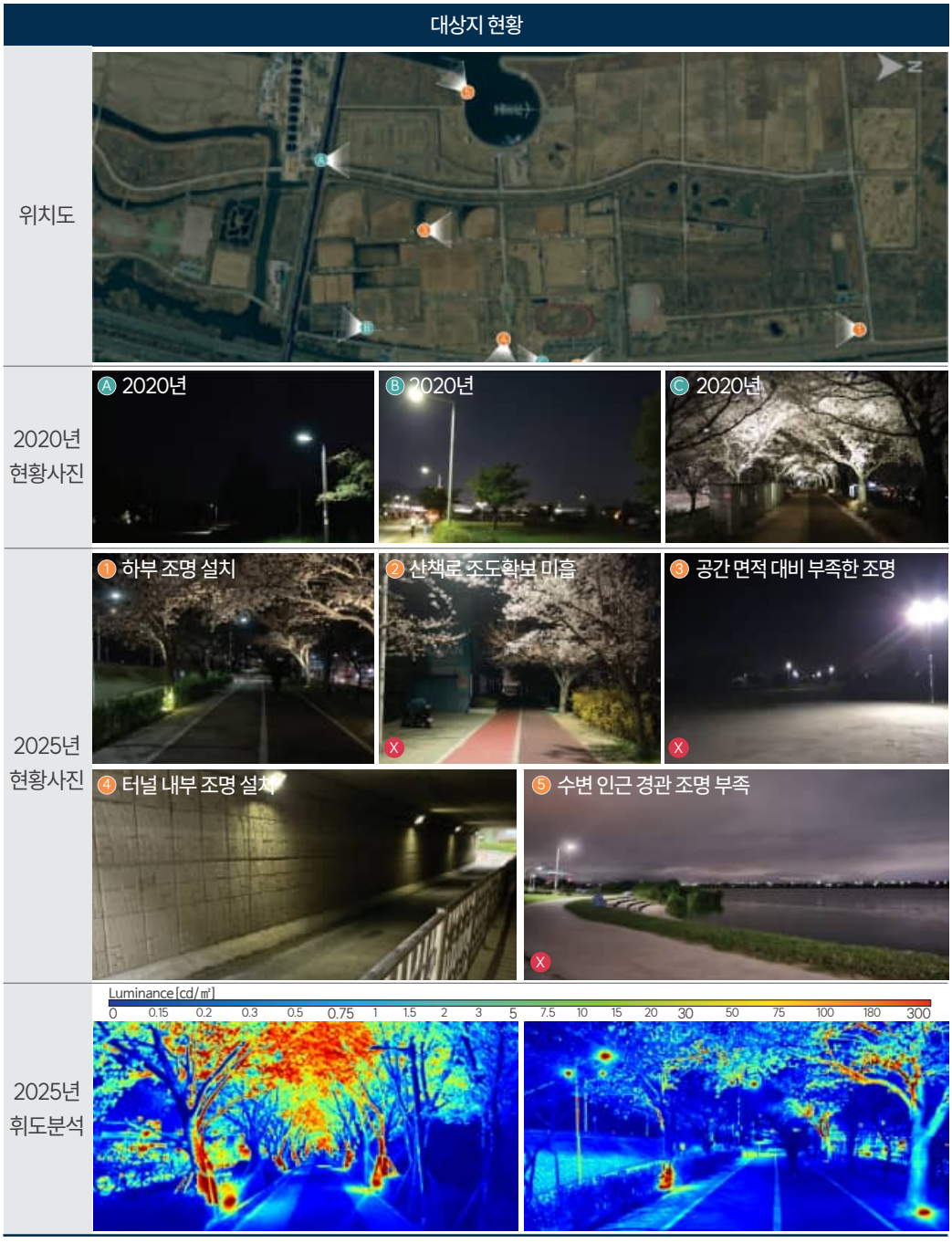
APEC나루공원

- 수영강변을 따라 산책·휴게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고층건축물과 수변의 야간조명이 어우러지는 도시형 수변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교량과 교각하부 이벤트 조명 및 수변의 특색을 활용한 공간이나 식재로 인하여 차폐된 공간과 보행로 내 그림자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균일한 조도 확보 필요



삼락 강변체육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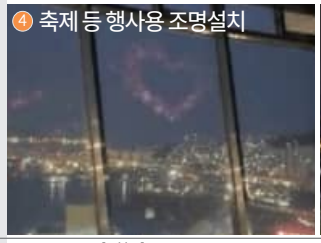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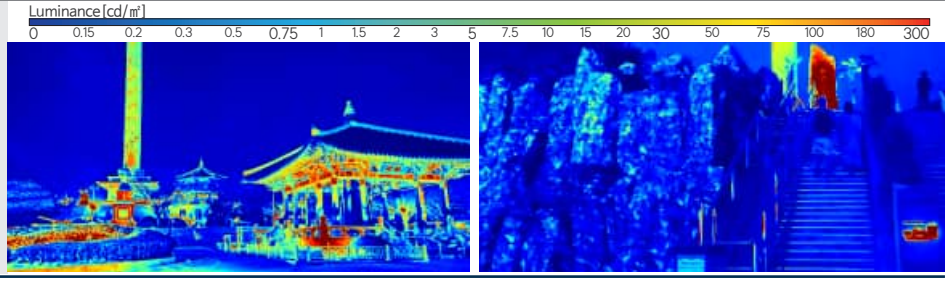
- 낙동강 주변으로 공원과 산책로가 넓게 조성되어 있으나 면적에 비해 조명시설이 부족하고 야간경관 특색이 미흡
- 벚꽃길과 산책로, 수변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있으나, 공간별 조명환경 차이로 인하여 야간 이용환경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을 보임



2.7.5 산지경관지역 야간경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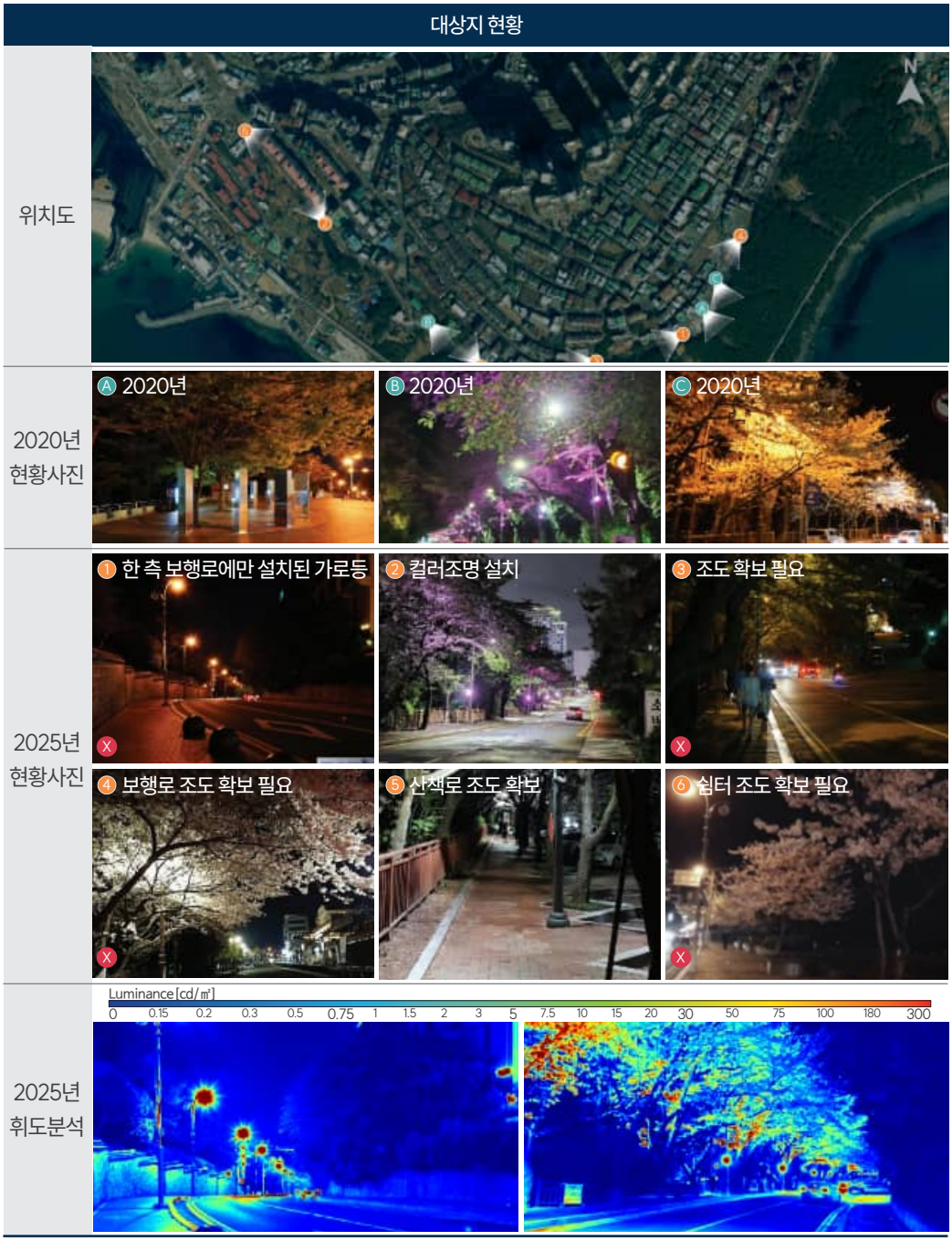
용두산공원

- 부산타워의 상징조명과 미디어아트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조도 확보 및 조명시설 정비 필요
- 공원 내 경관요소별 조명 연출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색채와 밝기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공간 간 조명 연계성이 부족함

<table>
<tr><th colspan="4">대상지 현황</th></tr>
<tr><td>위치도</td><td colspan="3"></td></tr>
<tr><td>2020년
현황사진</td><td>
Ⓐ 2020년</td><td>
Ⓑ 2020년</td><td>
Ⓒ 2020년</td></tr>
<tr><td rowspan="2">2025년
현황사진</td><td>
① 부산타워 조명</td><td>
② 미디어아트 연출</td><td>
③ 계단 조명 부족</td></tr>
<tr><td>
④ 축제 등 행사용 조명설치</td><td>
⑤ 미디어아트 연출</td><td>
⑥ 이벤트형 조명 설치 부족</td></tr>
<tr><td>2025년
휘도분석</td><td colspan="3">
Luminance [cd/㎡]
0 0.15 0.2 0.3 0.5 0.75 1 1.5 2 3 5 7.5 10 15 20 30 50 75 100 180 300</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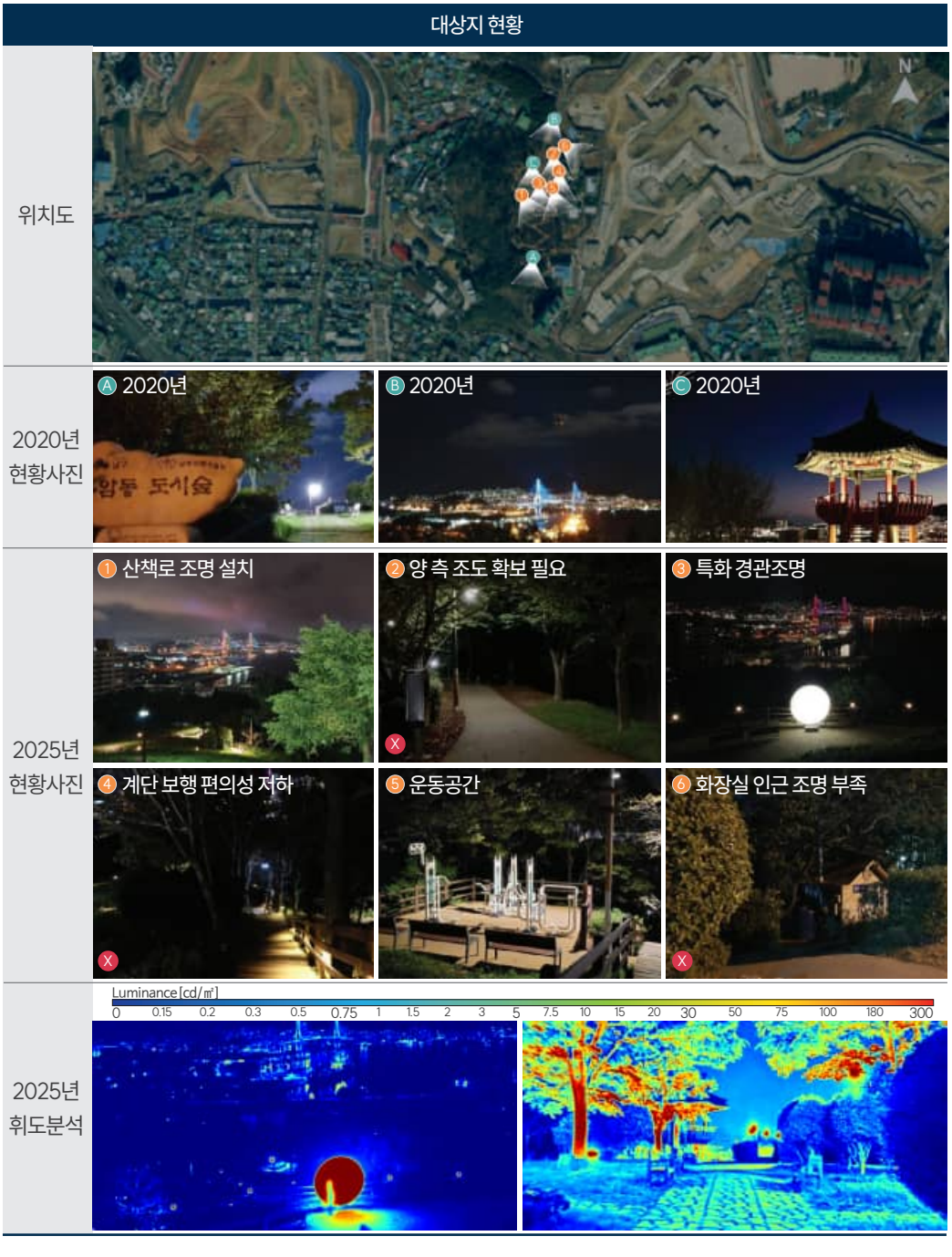
달맞이길

- 주거시설밀집구역 인근으로 야간 이용객이 많으므로 연속적인 가로등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특화 조명으로 관광지 정체성 강화 필요
- 보행로와 산책로 일부 구간에서 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야간 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조도 및 균일한 조명환경 확보 필요



우암동 도시숲

- 전망공간과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특화 경관조명이 연출되고 있으나, 산책로와 계단 등 일부 구간 조도가 낮아 공간별 조명환경의 편차가 나타남
- 부산항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야간경관 특화지역으로 다수의 야간 이용객을 고려하여 경사로 및 계단과 편의시설 인근 조명시설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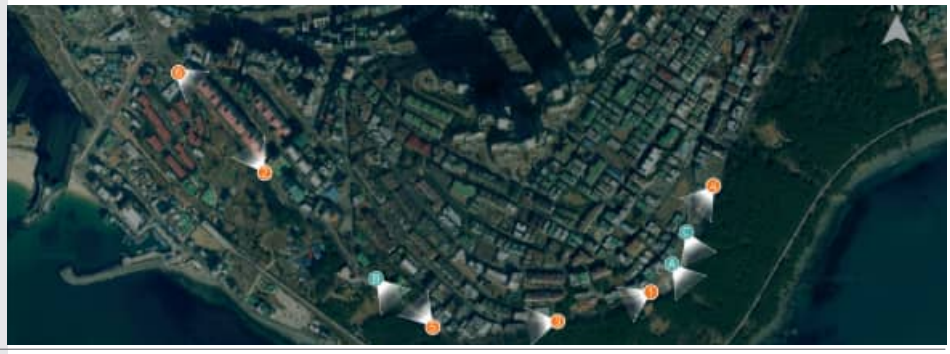


감천문화마을

- 주거지와 관광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특화 경관 조명 활용이 활발하나 노후된 가로등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의 문제 발생
- 관광객 이용공간과 주거지가 인접하여 경관조명으로 인한 주거지 빛 침입이 발생할 수 있어, 주거환경을 고려한 적정 조도 계획 필요

대상지 현황

위치도



2020년 현황사진







2025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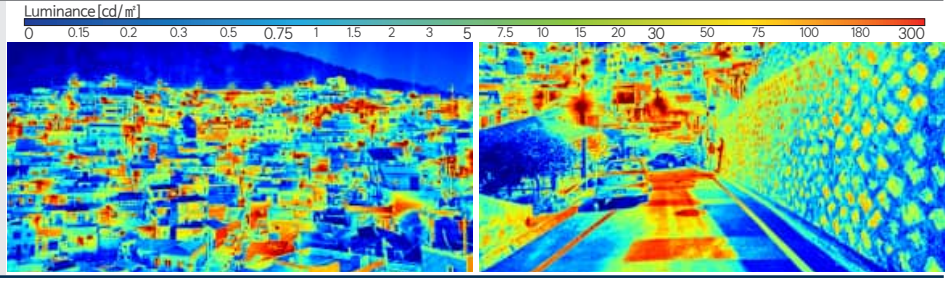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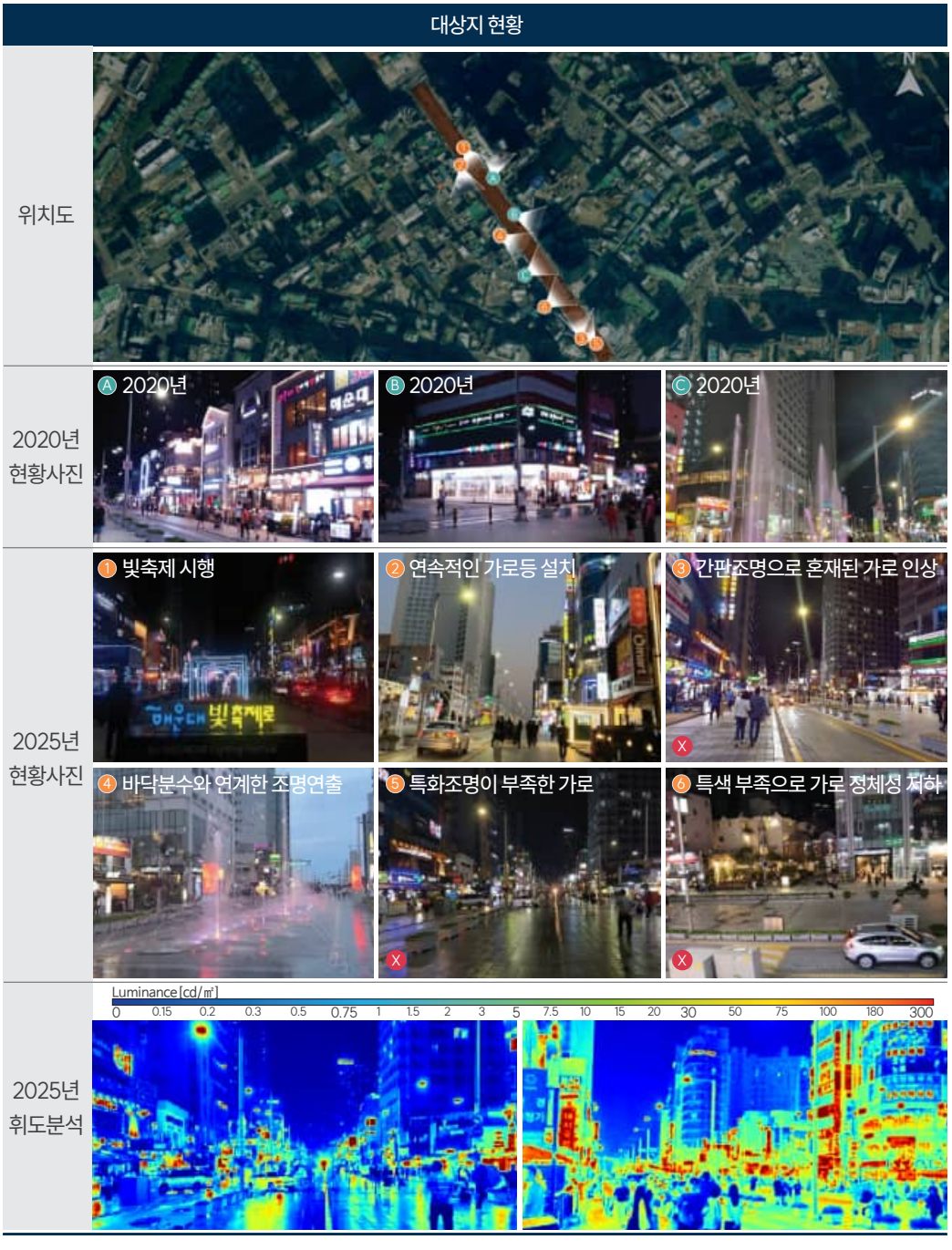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2.7.6 가로경관지역 야간경관 현황

해운대 구남로

- 상업시설과 옥외광고물의 조명이 높은 밀도로 분포하여 밝은 상업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로공간 내 조명 밝기와 색채가 다양하게 나타남
- 해운대 해수욕장과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로이나 빛축제 또는 바닥분수 미시행 시 야간 특색이 흐릿하므로 조명 특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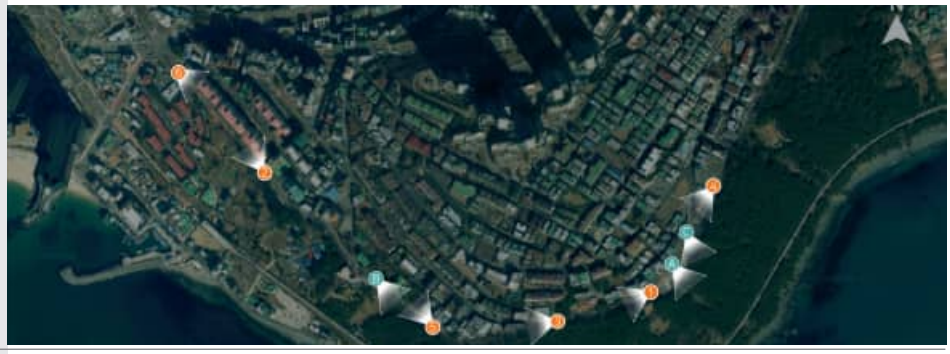


사상역

- 환승역 지점이며, 주변에 상업시설이 발달해 있어 야간에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이므로, 적절한 상점 간판 및 가로등 조명의 조도·휘도 확보 필요
- 사상역 주변 교량·육교 등 입체적인 보행 연결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나, 공간별 조명환경 편차가 나타나 야간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 필요

대상지 현황

위치도



2020년 현황사진







2025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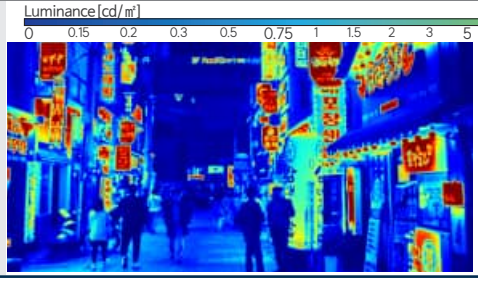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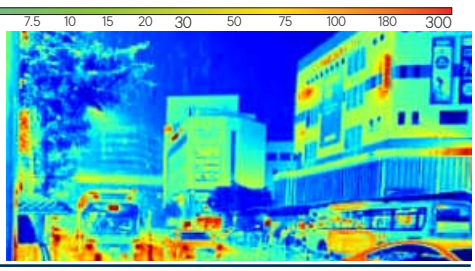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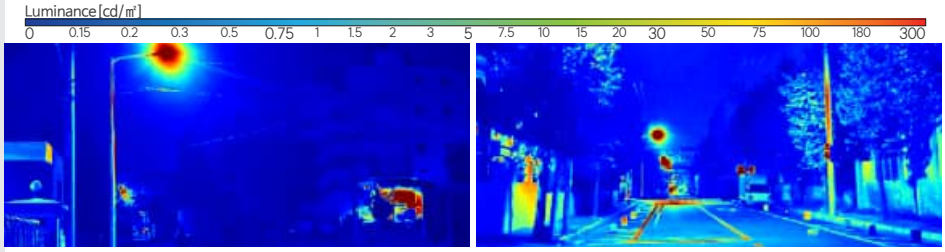
- 준공업지역으로 붉고 어두운 조명으로 야간 이용객이 적으며 안전한 야간 이용을 위해 조명의 조도 및 휘도 조절 필요하며, 야간 조명환경이 단순하고 어두운 구간이 나타나 주요 이동공간의 안전한 야간 이용 위한 조명환경 개선 필요

대상지 현황

2025년 현황사진



2025년 휘도분석



대연사거리

- 대연사거리를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광고조명과 가로시설물, 간판 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빛이 혼재된 복잡한 야간경관이 형성되며 ,주변 이면공간과 밝기 차이로공간별 야간환경의 편차가 나타남

대상지 현황

2025년 현황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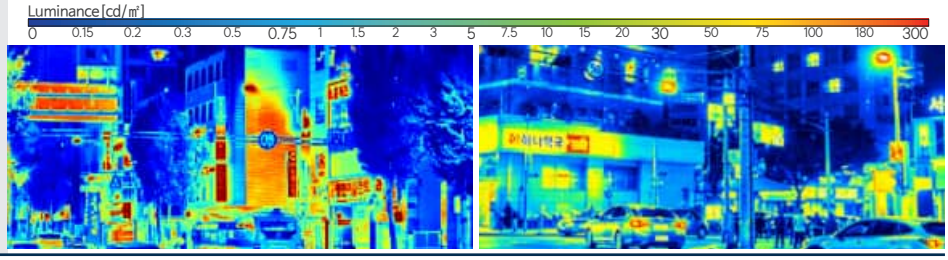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낙동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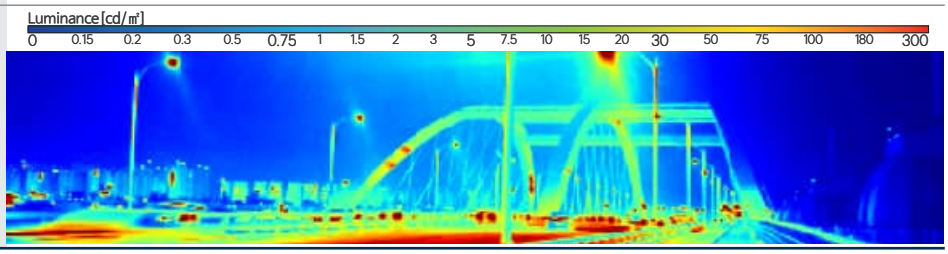
- 교량을 중심으로 특화 경관조명이 적용되어 있으며, 수면 반사와 주변 도시경관이 어우러진 상징적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대상지 현황

2025년 현황사진



2025년 휘도분석



연제구 거제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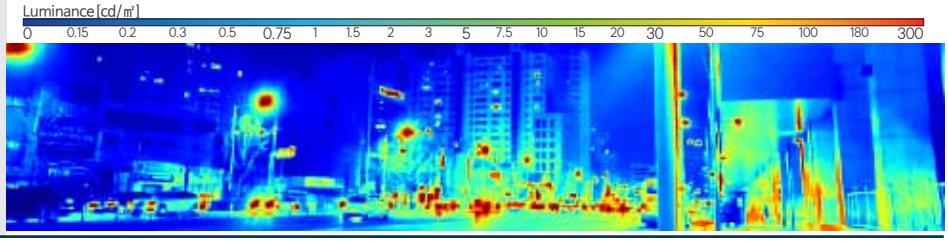
- 간선도로의 차량 및 가로조명은 비교적 밝게 형성되어 있으나, 도로변 보행공간과 생활시설 조도 차이가 나타나 공간별 야간경관의 밝기 편차가 있음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2025년 휘도분석



2.7.7 역사문화경관지역 야간경관 현황

동래읍성

- 야간 명소로 유명한 자원으로 야간 이용객의 비율이 높아 조명 조성이 잘되어 있으나 조화로운 역사자원 경관 연출을 위해 휘도 및 조절이 필요하며, 성벽과 전통건축물은 경관조명이 강조되어 있는 반면, 일부 계단 및 산책로는 상대적으로 어두워 공간별 조명환경의 편차가 나타남



수영사적공원

-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원으로 조도확보는 되어 있으나, 다소 높은 밝기의 조명과 일부 차폐되고 인지하기 어려운 공간이 존재하며 보행공간 시인성이 저하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균일한 조도확보 필요



복천동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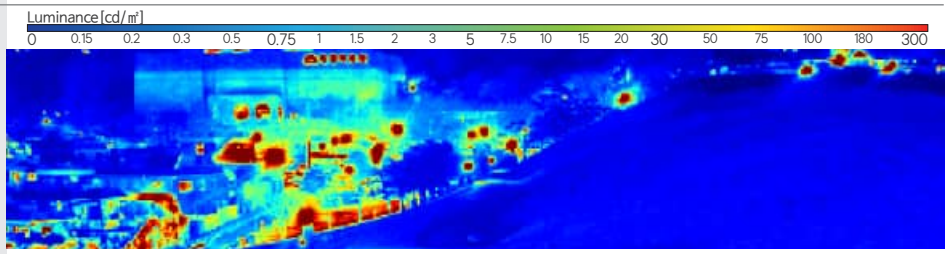
- 야간에 이용하기에는 야간조명요소가 부족하여 공간 이용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조명 시설 보충과 특화 조명으로 공간 정체성을 강화 하고 있지만, 주변 시가지의 밝은 야간조명과 어두운 녹지공간이 대비되어 역사경관의 야간 인지성이낮게 나타남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2025년 휘도분석



차이나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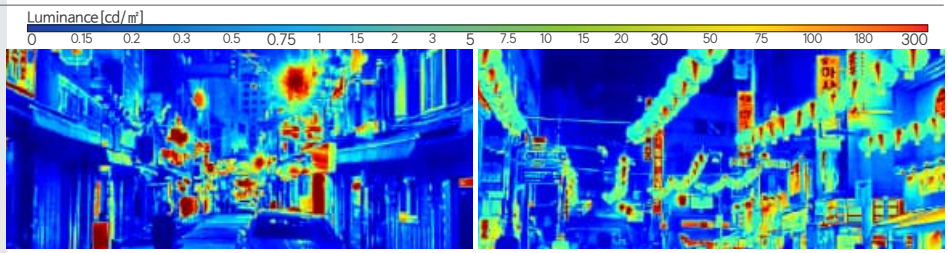
- 상징요소를 활용한 조명과 따뜻한 색감의 조명이 조성되어 있으나, 야간 영업을 하지 않는 상점이 많아 상업시설의 빛이 제한적이며, 보행 안전을 위한 적정 조도 확보 필요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2025년 휘도분석



2.7.8 신개발 및 관문경관지역 야간경관 현황

북항친수공원

- 수변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량·보행로·계단 등 공간별 과도한 색채와 조명연출이 혼재되어 수변경관의 조화성을 저해하고 혼잡한 야간경관 이미지 형성 우려

대상지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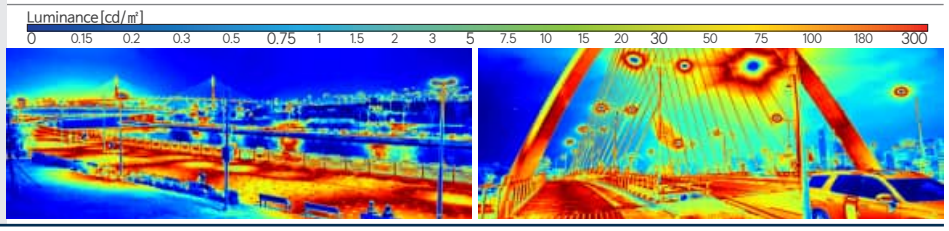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스포원파크

- 야간경관특화 공간을 위해 특화조명, 빛길 등 활용하고 있으나 조도 확보가 부족하며,차폐된 공간이 다수 형성되고 있으므로 밝게 연출된 공간과 어두운 녹음공간이 대비되어 체계적인 조명 계획 필요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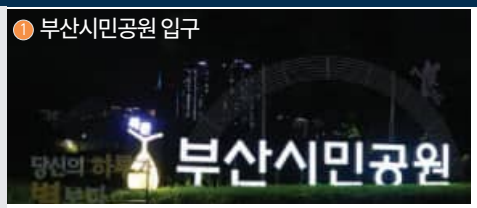


부산시민공원

-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공원으로 야간 이용객이 많은 공간이나 산책로 내 조도가 불규칙적이고 인지성이 떨어지는 차폐공간 다수 형성되며, 공원 입구의 상징조명과 달리 내부 산책로 및 녹지공간 야간 경관 상징요소가 부족하여 공간별 특성을 살린 조명연출 필요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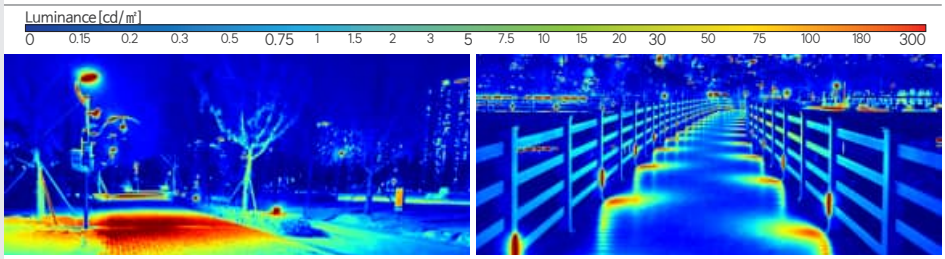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부산콘서트홀

- 건축물 형태와 조화로운 경관조명으로, 공간 정체성 강화와 야간 이용객의 보행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적절한 위치 및 간격을 고려한 조명 설치 필요

대상지 현황

위치도



현황 사진







송도구름산책로

- 산책로와 교량을 따라 연속적 조명이 설치되어 보행동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다채로운 색채 연출을 통해 해양 수변공간의 활력 있는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이기대 해안산책로

- 해안 산책로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우선으로 한 조명 설치 필요
- 펜스와 계단 등 주요 보행시설에 조명이 확보되어 있으나, 구간별 조명시설의 분포와 밝기 차이가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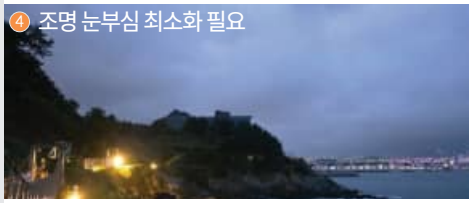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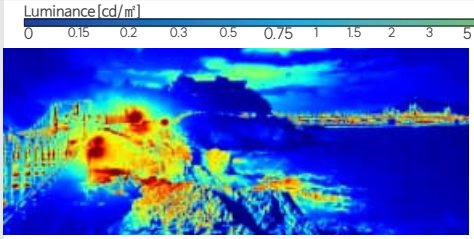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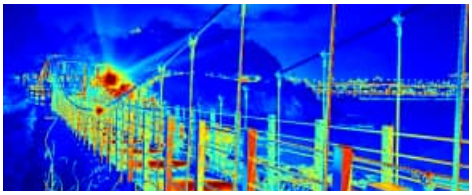






2025년 휘도분석





부산역

- 부산역 정문과 미디어아트 상징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채의 조명이 연출되고 있어 공간의 야간 인지성이 높게 나타남
-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공간으로 휴식공간과 조화로운 조명이 연출되어 있으나 즐길거리 확충 필요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① 부산역 정문	 ② 미디어아트	 ③ 휴식공간과 연계된 조명시설

김해국제공항

- 건축화 조명과 연속적인 가로등 설치로 접근성이 높으나 인근 접근 공간 내 조도 및 휘도 조절 필요
- 청사 창면의 내부 누출광과 외부 조명, 광고판 등이 함께 나타나 공항 주변의 야간 빛환경이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있음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① 창문을 통해 나오는 조명 연출	 ② 광고판과 혼재되는 조명
	 ③ 국제선 입구 조도 확보 미흡	 ④ 연속적인 가로등 설치

명지신도시

- 신개발지역으로 상업지역에 경쟁적으로 밝은 광고물을 사용하고 있어 광고물 관리 위한 조명계획 요구
- 상업가로의 밝은 조명과 나무데크·수변 산책로의 차분한 조명이 상이한 야간 분위기가 나타남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① 상업시설 밀집구역으로 과도하게 밝은 간판 조명	 ② 나무데크 보행등 통합 설치	 ③ 울림공원 산책로

동부산관광단지

- 쇼핑몰, 호텔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로등 및 보행등과 혼재되는 야간경관 연출
- 상업·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밝은 야간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녹지 및 가로공간과의 밝기 차이가 나타남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부산항대교

- 교량 자체가 조명요소 역할을 하고 있어 야간 조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러 시설과 혼재된 이미지 연출
- 교량의 보행등과 주변 수변 조명이 함께 설치되어 교량 및 인접 보행공간의 야간 이용환경이 형성되어 있음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광안대교

-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해안경관과 연계한 야간 조망자원으로 활용
- 선형 조명이 적용되어 교량의 구조적 형태와 스카이라인이 야간에 뚜렷하게 인지됨

대상지 현황			
현황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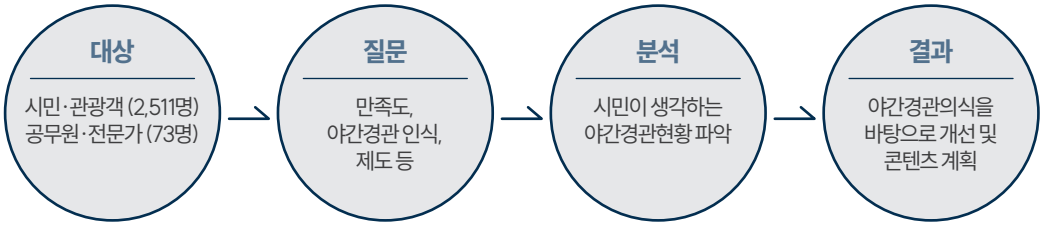
2.8 야간경관 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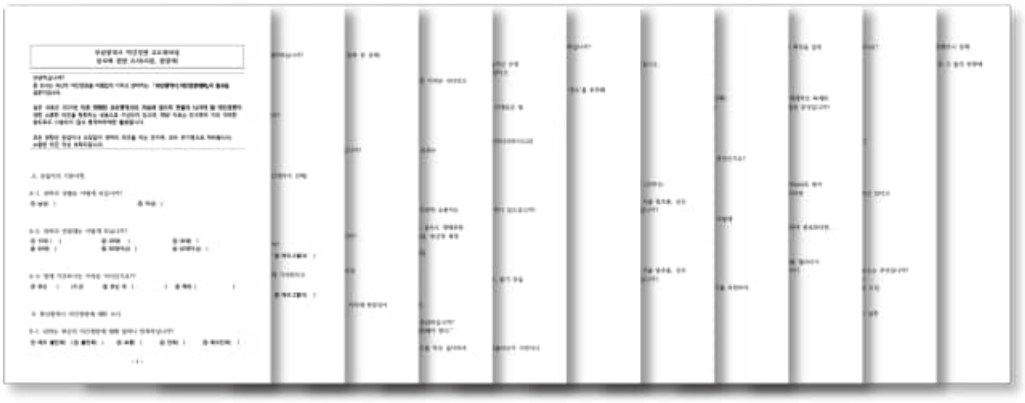
2.8.1 야간경관 의식조사 개요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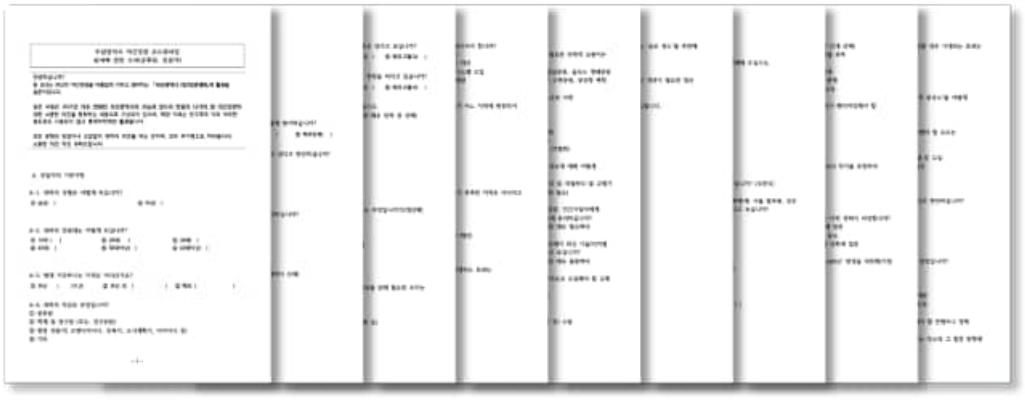
- 시민과 공무원이 체감하는 부산광역시 야간경관특성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만족도, 인식, 제도 등 부산광역시 야간경관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설문조사로 실시
- 의식조사 기간은 2025년 12월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10일 간 진행하였으며, 시민·관광객 2,511명과 공무원·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설문 진행

목적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고도화사업 인식에 관한 조사 (시민,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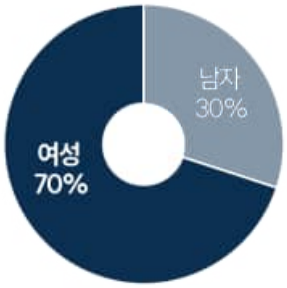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고도화사업 인식에 관한 조사 (공무원 및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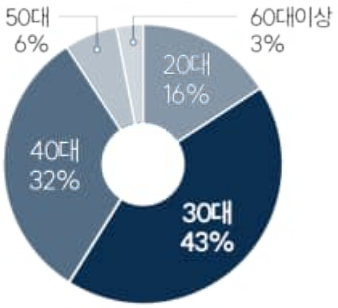
2.8.2 시민 및 관광객 의식조사

응답자 유형

Q.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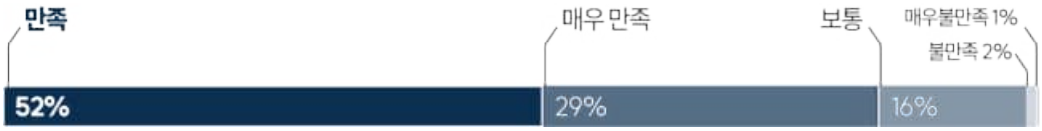
Q.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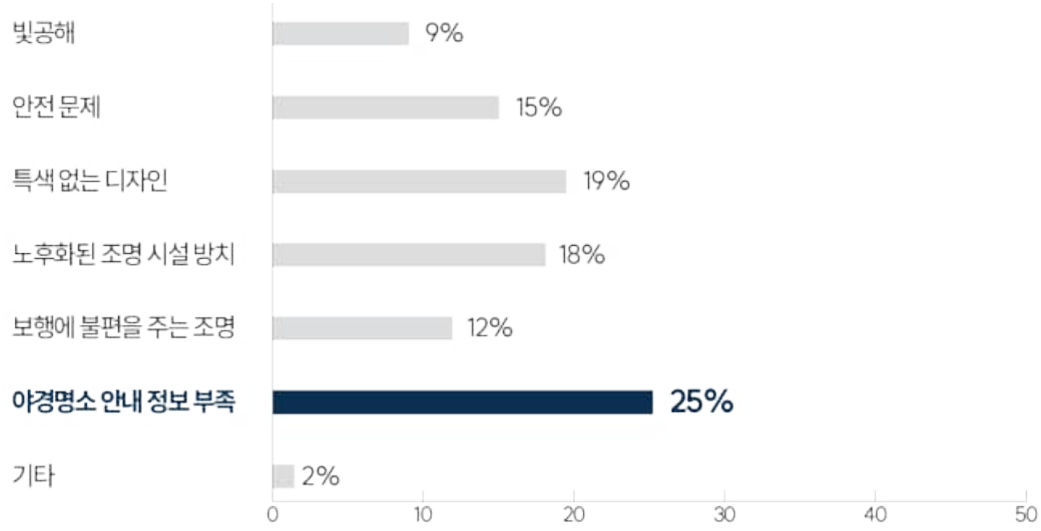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며, 30 · 40대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

부산 야간경관 만족도

Q. 귀하는 부산의 야간경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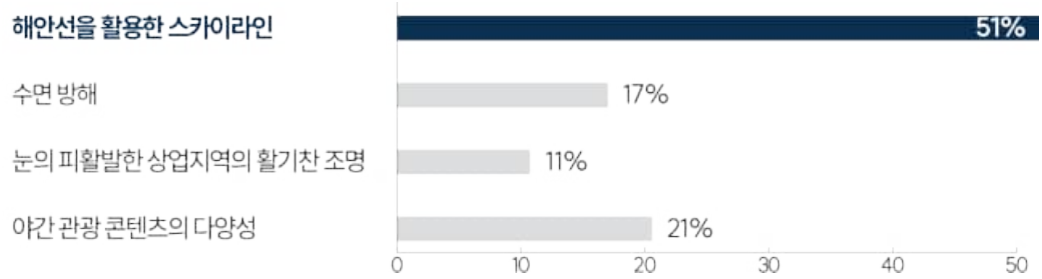
Q. 귀하는 부산의 야간경관에서 가장 아쉽거나 고쳐야할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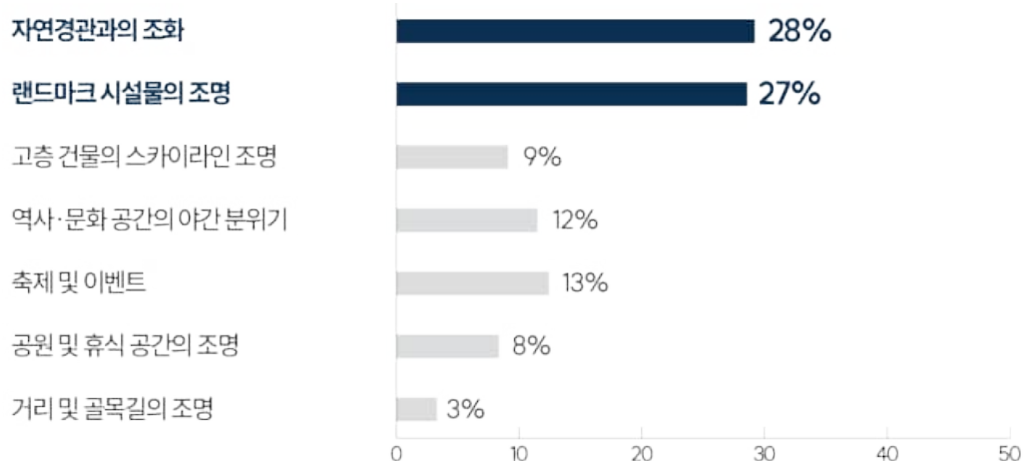
야간경관 만족도 도모를 위해 야경 명소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야간경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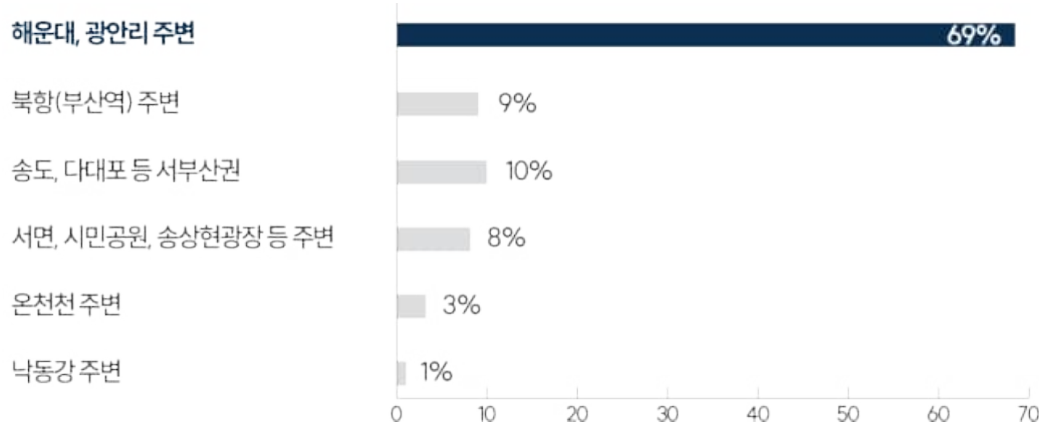
Q. 부산의 야간경관의 가장 큰 매력(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부산의 야간경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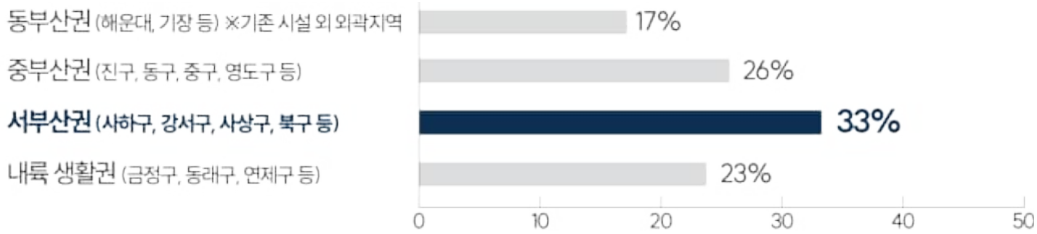


Q. 현재 부산의 야간경관 명소나 미디어파사드 등 볼거리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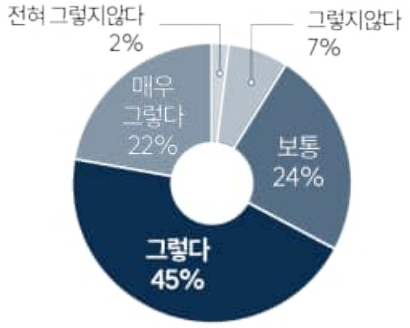
부산 전역적으로 해양 등 자연환경 및 랜드마크 시설물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성 필요

Q. 현재 부산의 야간경관 명소나 미디어파사드 등 볼거리가 부족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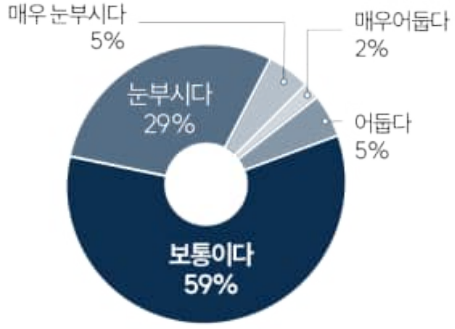


서부산권과 중부산권 등 균형적인 야간경관 조성 필요

Q. 부산이 세계적인 야간 관광 도시가 되기 위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조명시설을 지금보다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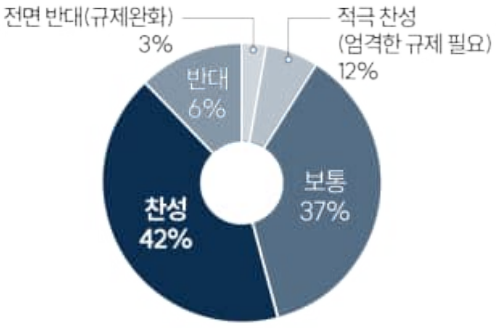


Q. 현재 부산 도심(서면, 해운대 등)의 전광판이나 건물 외벽 조명(미디어파사드)의 무분별한 설치,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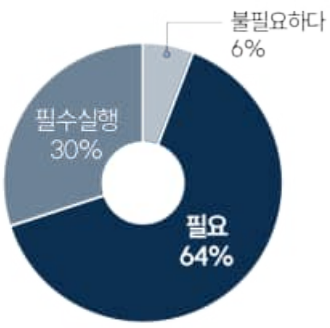


야간경관 발전을 위해 조명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도심조명에 대한 규제 필요

Q.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해 미디어파사드 설치 위치, 가동 시간, 밝기 등을지금보다 더 개선하고 체계화 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Q. 대형 전광판이나 화려한 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시민이나 조명전문가가 사전에 검토해보는 '사전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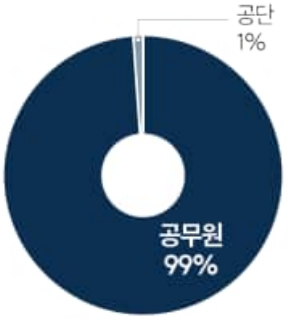


미디어 파사드 규제에 대해 79%가 긍정적 반응이며 사전 심의절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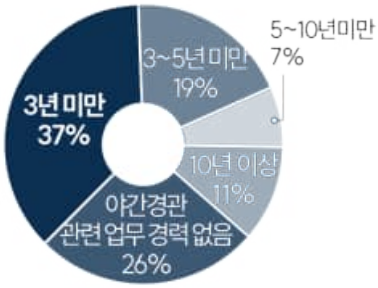
2.8.3 공무원 및 전문가 의식조사

응답자 유형

Q. 귀하의 직군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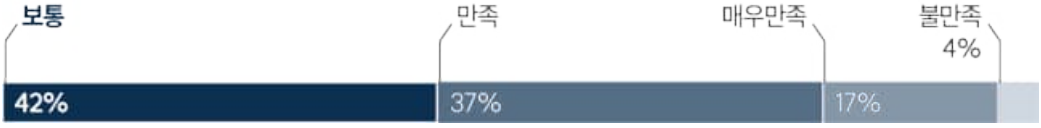
Q. 야간경관 관련 업무 경력은 어느정도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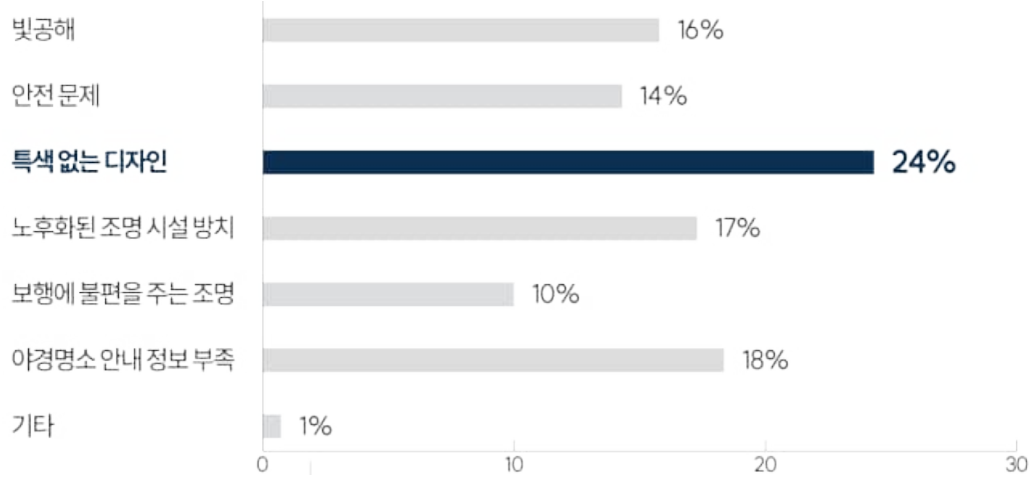
응답자 대다수가 공무원이며, 63%가 1~3년 미만 업무 경력 보유

부산 야간경관 만족도

Q. 귀하는 부산의 야간경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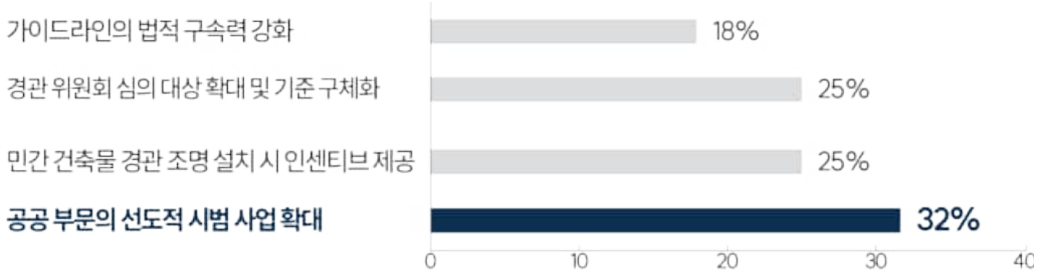
Q. 부산의 야간경관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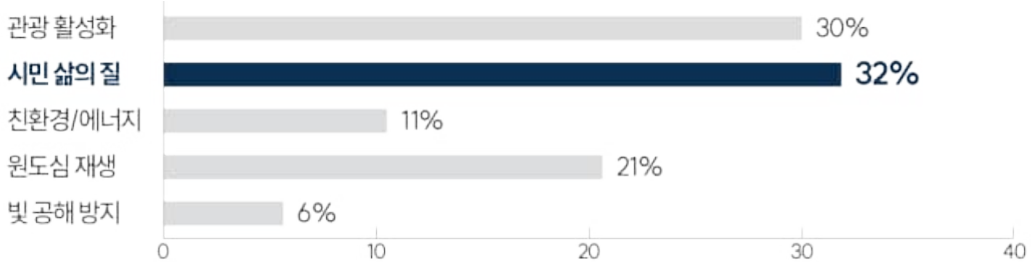
야간경관 만족도 도모를 위해 특화 디자인이 도입된 조명시설 필요

야간경관 관련 제도

Q. '부산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심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Q. 향후 부산시 야간경관 정책 수립 시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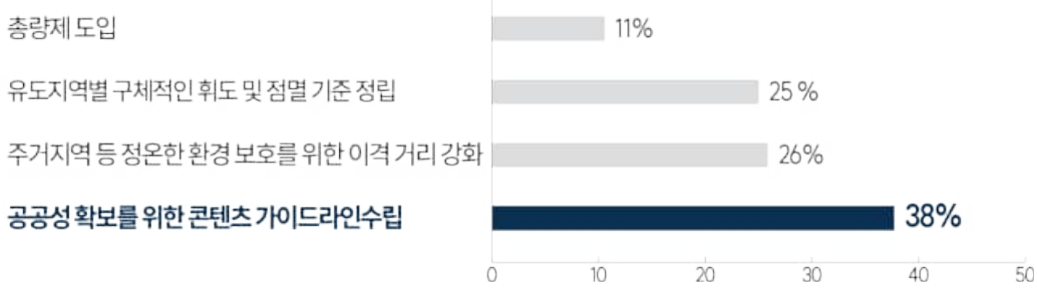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 시범 사업 확대 필요

Q. 현행 야간경관 관련 조례가 최신 기술의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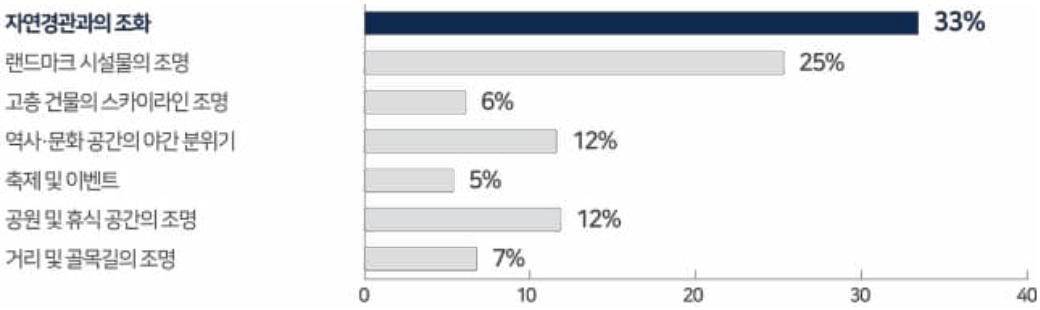
Q. 향후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할 규제장치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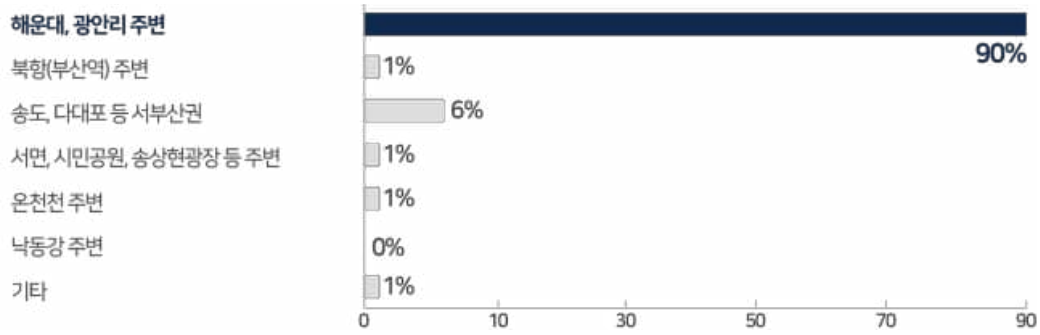
74%가 다양성 확보가 부족하다 응답했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야간경관에 대한 의식

Q. 부산시 야간경관 형성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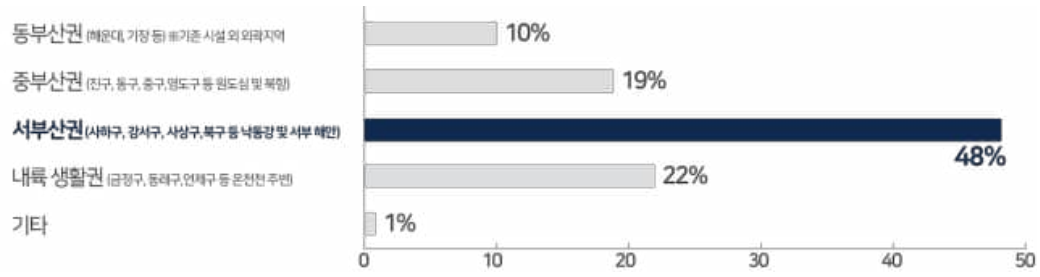


Q. 현재 부산의 야간경관 명소나 미디어파사드 등 볼거리가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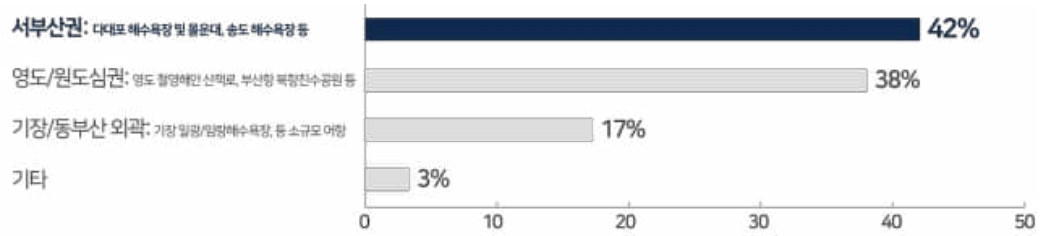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조성해야하며, 해양 및 수변을 활용한 야간명소 다수 형성

Q. 현재 부산의 야간 경관 명소나 미디어파사드 등 볼거리가 부족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Q. 부산의 균형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야간경관 개선이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는어디입니까?



서부산권 내 야간경관 조성이 미흡하므로 균형적인 야간경관 발전을 위해 개선 필요

2.9 야간경관 국내외 사례 조사

2.9.1 프로젝션 맵핑 국내외 사례

호주 비비드 시드니

- 비비드 시드니는 시드니의 대표 야간경관 축제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등 랜드마크에 프로젝션 맵핑을 적용해 건축물을 미디어 콘텐츠로 재해석한 사례
- 단순 조명을 넘어 체험형 야간경관을 구현하고, 도시 브랜드와 관광 활성화를 동시 달성




프랑스 리옹 빛의 축제

- 리옹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빛 축제로, 역사적 건축물 외벽에 프로젝션 맵핑 적용
- 성당, 광장, 공공건축물 등에 스토리 기반 영상을 투사해 공간의 역사성·장소성을 강조하며, 단순 조명을 넘어 문화·예술 중심의 체험형 야간경관 구현




서울 경복궁 홍례문

- 서울시 대표 문화유산을 미디어 콘텐츠로 재해석한 사례로, 궁궐 건축물의 입면과 구조를 활용해 전통 문양과 역사적 이야기를 영상으로 구현
- 고궁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강조하면서도, 관람객이 몰입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여 문화유산 기반 야간 콘텐츠 확장




건축물 또는 물리적 오브제에 빛을 투영시켜 차별화된 야간경관 연출

2.9.2 디지털 사이니지, 조명 국내외 사례

호주 Council House

- 건물 파사드에 LED 조명을 적용하여 색상 변화와 패턴 연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이를 통해 도시 경관에 리듬감과 시각적 상징성을 부여
- 미디어 파사드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건축물이 도시 브랜드 표현




서울 세빛섬

- 수변 입지 특성을 반영하여 조명의 색상 변화와 패턴이 수면에 반사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입체적이고 상징적인 경관 형성
- 계절·이벤트에 따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도시의 야간 관광 콘텐츠 및 경관 랜드마크 기능




서울 SM 타운

- 서울 도심 상업공간에 대형 LED 미디어 파사드를 적용한 사례로, 건물 외벽을 활용하여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송출
- 도시 경관에 역동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건축물 외피를 정보 전달과 문화 콘텐츠 매개체로 활용




건축물 외벽에 미디어 및 조명시설물 설치하여 미디어 파사드 야간경관 연출

2.10 종합분석 및 업그레이드 방향

2.10.1 종합분석

개요

- 관련 법·제도, 상위 및 관련계획, 도시 트렌드, 기술 동향, 야간경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산광역시 야간경관의 현 수준과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고도화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
- 최근 야간경관은 단순한 조명 연출을 넘어 도시 경쟁력, 관광 활성화, 안전 및 환경 관리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요구

주요 분석		기회요인
정책 및 계획	**정책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행 및 운영체계는 미흡** - 관련 법·조례 및 상위계획에서 야간경관의 중요성은 반영 - 경관계획 및 도시정책 내 야간경관 요소 포함 - 다만, 세부 실행기준 및 통합관리 체계는 부족 - 빛공해 방지 및 친환경 정책에 따라 환경관리 기준 중요성 증대	① **해양·수변·야경 자원의 높은 잠재력 보유**
기술 및 트렌드	**조명 기술은 지능형·데이터 기반 인프라로 빠르게 전환 중** - 고효율 LED, 미디어 파사드, IoT 등 신기술 확산 - 스마트 조명 및 AI 기술 도입 증가 - 조명은 단순 시설에서 데이터 기반 도시 인프라로 진화 -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	② **국제 관광도시로서 야간 콘텐츠 수요 증가**
도시 특성 및 활용	**야간경관 자원은 풍부하나, 공간 간 연계성과 체계성 부족** - 해양·수변·관광·축제 중심 도시 구조로 활용 잠재력 높음 - 주요 명소 중심의 개별 경관사업 다수 존재 - 지역 간 야간경관 수준 차이 발생 -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경관 전략 부족	③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기술 도입 기반 확보**
운영 및 관리	**운영체계 분산 및 유지관리 부담이 주요 한계로 작용** - 조명 관리 주체 분산으로 통합 운영 미흡 - 데이터 기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부족 - 해안 환경 특성으로 시설 노후화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 - 선제적 유지관리 및 스마트 운영 체계 필요	④ **친환경·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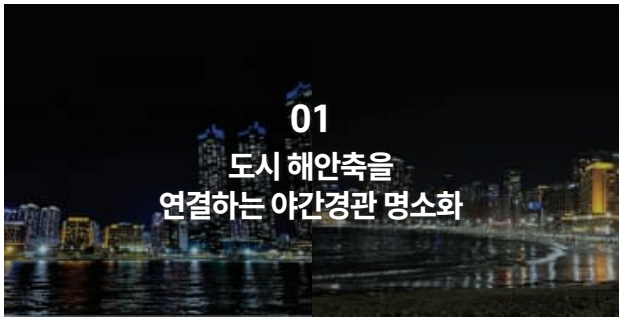
종합분석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개별 사업 중심의 조성 단계이므로,
야간경관 체계 전환으로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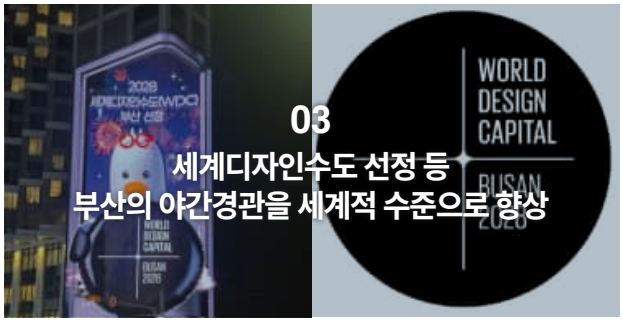
2.10.2 고도화 방향성

강화 ← 잠재력 연속성 — **부산시 야간경관 고도화** — 문제점 → 해소

"도시의 매력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특화 야간경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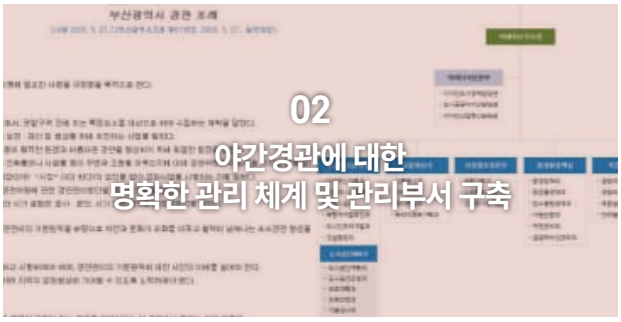




- 도시 해안 야간경관 구축
- 도시 야간경관 이미지 향상
- 신규개발거점 야간경관
- 글로벌부산 야간경관 구축

"야간경관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 신기술 관리 체계 구축
- 야간경관 관리주체
- 명소화 위한 실행력 강화
- 빛공해에서 좋은빛으로 변화

2.10.3 야간경관계획의 업그레이드

UPGRADE 01
조례·행정체계
야간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체계 구축

'빛공해 조례' 외 부산의 야간을 아름답게
형성하고 관리하는 방향 부재

① 경관 조례의 야간경관 심의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 어려움

② 관련법(경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관리부서가 통합 및 연계되지 않아 포괄적 관리 어려움

빛을 공해로 보는것이 아닌 좋은 빛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

UPGRADE 02
명소화 권역
야간경관 명소 조성으로
특색있는 부산 대표명소 확충

자원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타 계획내용 차별점 부족

① 명소화와 연관성이 낮은 지역 다수 포함

②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자원을 개별적으로 계획

③ 부산의 도시 발전, 개발에 따른 신규 명소화 권역(축) 추가

면적·선적 등 권역을 통합적이고 구역별 특징을 강화하는 계획으로 **도시 야간 정체성을 확보하는 경관 조성**

UPGRADE 03
미디어파사드 등
기정 계획 이후
활용도가 많아진 분야

활용도가 많아진 분야에 대한
계획 부재로 혼재된 야간 도시경관 우려

① 미디어파사드 등 최근 설치가 늘어난 야간 경관조명에 대한 관리방안 부재

② AI와 접목한 조명기술 등 신기술을 적용한 조명이 언급되었으나 실질적인 활용방안 미흡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정돈된 야간경관 연출**

UPGRADE 04
빛 축제
지역적 특색을 담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빛축제 활성화

기초지자체에서 축제를 진행하며
유사한 컨셉의 조명 다수 형성

① 매년 추진되는 구·군의 빛축제가 각 사업별 차별성이 없이 획일화되고 관리를 위한 지침 부족

② 부산시가 주관하는 별도의 빛축제가 없고 신규 추진지 구·군의 빛축제와 연계 방안 부족

인접 지역 간 이야기가 이어지되 차별성을 확보하는 디자인으로 **부산 전역의 야경 상징성 강화**

야간경관 기본구상

야간경관 미래상 도출 77
부산시 야간경관 부산빛 형성 79
야간경관 핵심과제 및 방향 80

PART.3

3.1 야간경관 미래상 도출

3.1.1 야간경관 미래상

설정방향

- 부산광역시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상위 및 관련계획, 2020년도 계획의 미래상을 종합하여 야간경관 미래상 설정

상위 및 관련 계획

계획	미래상	추진 방향 및 목표
2026년 시정방향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시민행복도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글로벌 디지털·신산업도시 글로벌 금융·창업·지산학 도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203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방향계획	**부산 도시재생,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	인구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회복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
부산발전 2030 비전과 방향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행복한 공동체 도시 편리한 스마트 도시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시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열림과 어울림의 부산"**	산수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열린경관 형성 입지와 지형이 조화로운 입체적 경관구조 보행일상·체감의 장소성·활동성·연계성 중시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협력·완성하는 부산경관

2020년도 야간경관계획

- 미래상 : **밝고 활기찬 세계 속의 빛의 도시 부산**
- 목표 : 부산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빛, 부산의 매력을 강조하는 빛, 부산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빛

대상지역			2020 부산시 야간경관 추진 방향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	원도심·역사문화 환경	4개 명소화 권역	- 부산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빛을 연출 - 부산의 역사·문화가치를 높인 야간경관 연출로 개성있는 부산 다운 야간경관 창출
	하천환경	2개 명소화 권역	- 부산의 매력을 강조하는 빛을 연출 - 자연생태계를 보전·배려하며, 조화된 빛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과 자연을 향유하는 아름다운 야간경관 창출
	해양환경	7개 명소화 권역	- 부산의 바다 이야기를 공유하는 빛을 연출 - 부산의 화려함과 활기참을 살린 야간경관 연출로 야간관광을 선도하는 야간경관 창출
야간경관 일반 지역		부산시 전역	-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거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야간환경 조성 - 향후 명소화 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빛환경 기반의 형성

도시가 주력하고 있는 품격향상, 글로벌을 미래상에 반영하여 야간경관 방향 계획

3.1.2 미래상 및 추진방향

All Ocean & City

SHINEs

바다와 도시가 함께하는 부산빛

해양도시 부산을 상징하고 부산의 도시 전체가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게 빛나는 포용적 의미로
부산만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Harmony 조화로운 빛	Identity 정체성의 빛	Network 연결하는 빛	Experience 경험하는 빛
생태와 조화로운 지속가능한 야간경관	도시와 빛·어둠이 조화로운 야간경관	부산다움이 느껴지는 특색있는 야간경관	빛으로 연결되는 다채로운 야간경관	시민들과 상호작용하는 변화감 있는 야간경관

추진방향	핵심과제	실행수단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S1. 자연환경보호구역을 보존하여 환경에 대한 배려와 어둠이 공존	야간경관계획 (명소화)
	S2. 시민과 함께 자연 생태계 보전하며 활성화하는 생활 밀착형 계획	
	S3. 고효율 LED,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저탄소 조명기술적용	
Harmony 조화로운 빛	H1. 사람과 자연,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로운 빛 연출	야간경관계획 (지역별)
	H2. 빛이 밝아야 하는 공간과 어두워야 하는 공간에 대한 조화로운 계획	
	H3. 주거지역 인접 구간에 대한 야간경관 완충 설계	
Identity 정체성의 빛	I1. 해안·교량·주요 관문시설을 중심으로 도시 대표 야간경관 축 조성	가이드라인
	I2. 근현대 역사자원·항만·산복도로 등 지역 스토리를 담은 테마 조성	
	I3.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랜드마크 구축	
Network 연결하는 빛	N1. 대중교통 환승 거점 및 주요 관문의 웰컴 라이팅 구축	조례/조직 개편
	N2. 하천·해안·보행로·자전거길을 중심으로 한 선형 야간경관 축 형성	
	N3. 세계적인 수준의 빛축제를 위한 항만도시의 빛 구축	
Experience 경험하는 빛	E1. 신기술(AI조명)을 활용한 참여형·반응형 야간경관 콘텐츠 도입	실행사업
	E2. 첨단 미디어아트 도입 및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E3. 야간 축제 및 체류형, 경험형 야간관광 투어 프로그램, 빛축제 구축	빛 축제

3.2 부산시 야간경관 부산빛 형성

3.2.1 부산시 야간경관 '부산빛'

방향성

- 부산은 해안, 항만, 산복도로 등 다양한 도시 환경을 가진 복합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야간경관은 지역별 편차와 과도한 조명, 빛 공해 등의 문제 발생
-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시각적 피로와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조명 부족으로 인해 안전성과 이용성 저하
- 개별 거점 중심 단편적인 야간경관 조성으로 인해 도시 전반의 연결성과 통일성이 부족하며, 부산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야간경관 형성에도 한계 발생
- 이에 따라 부산의 야간경관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환경·안전·정체성·이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산빛' 중심의 통합적 계획 수립 요구

- 부산빛 형성은 단순한 조명 설치나 경관 연출을 넘어, 빛공해 저감과 쾌적한 야간환경 조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접근을 기반으로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설계 원칙 확립, 실행 및 운영 방향을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

부산시 야간경관 부산빛 형성 방향

①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 구축

빛공해 저감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환경과 공존하는 야간경관 조성

② 조화롭고 쾌적한 빛 환경 조성

조화를 이루는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눈부심 저감, 적정 조도 확보, 색온도 및 연색성 관리 등 '부산빛 설계 기준' 적용

③ 부산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빛 구현

해안, 항만, 교량, 산복도로 등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야간경관 조성

④ 도시를 연결하는 통합적 빛 체계 구축

개별 거점 중심의 단절된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하천·해안·보행로 등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빛의 흐름 형성

⑤ 참여와 체험 중심의 빛 환경 확대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조명과 미디어 콘텐츠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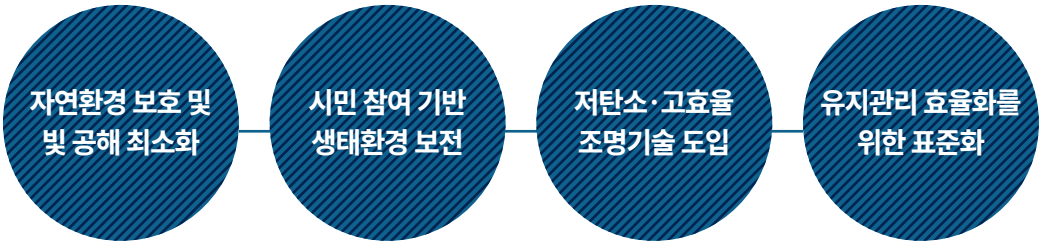
3.3 야간경관 핵심과제 및 방향

3.3.1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방향개요

- 부산 야간경관은 자연환경과 공존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생태계 보호와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친환경적 접근 요구

과제방향



핵심과제 세부방향

S1. 자연환경보호구역을 보존하여 환경에 대한 배려와 어둠이 공존하는 야간경관계획

- 자연환경보호구역 및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공조명의 설치를 최소화
- 필요한 경우에도 저조도·저색온도의 조명을 적용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 차광 설계를 통해 불필요한 빛 확산을 차단하고 어둠의 질을 유지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야간경관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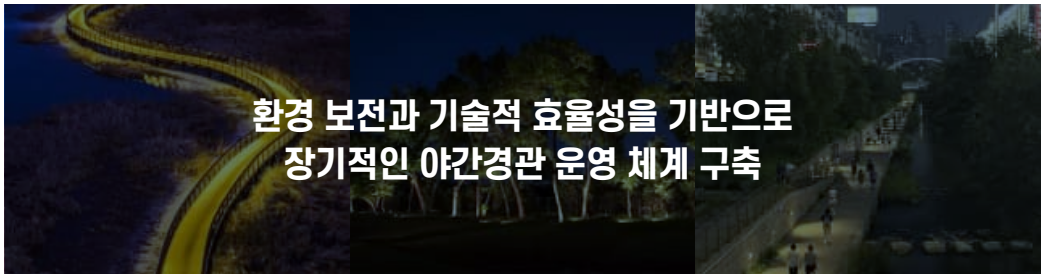
S2. 시민과 함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며 활성화하는 생활 밀착형 계획

- 지역 주민과 이용자가 참여하는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밀착형 야간경관을 조성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명 계획과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 보전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참여 기반 형성

S3. 고효율 LED,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저탄소 조명기술 단계적 적용

- 고효율 LED, 태양광 조명, 에너지 저장장치등 친환경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에너지 소비절감
-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시간대별·공간별 조도를 조절함으로써 운영 효율성 극대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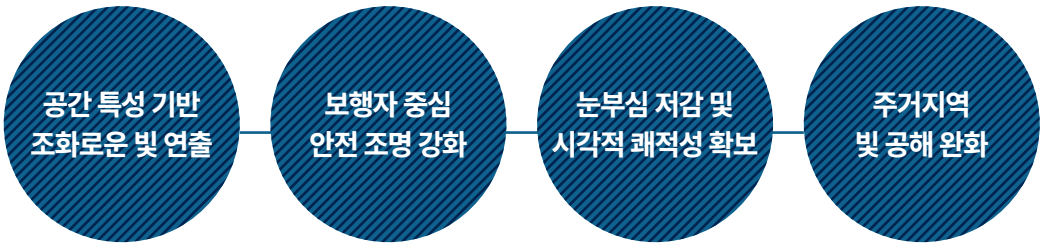


3.3.2 Harmony 조화로운 빛

방향개요

- 부산의 야간경관은 사람, 자연,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빛 환경 지향

과제방향



핵심과제 세부방향

H1. 사람과 바다, 부산의 해안,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조화로운 빛 연출

- 공간별 특성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의 밝기, 색온도, 방향 등을 조절하여 사람, 자연, 건축물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특정 요소만 강조하는 과도한 연출을 지양하고, 전체 경관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
- 도시 전반에 안정감 있고 일관된 바다, 부산의 야간해안 이미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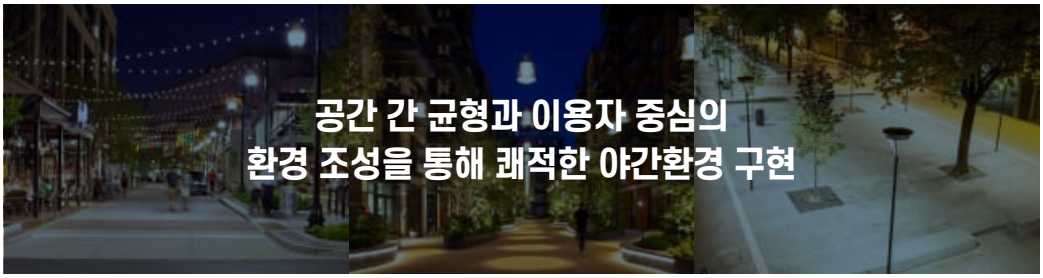
H2. 보행자 동선과 체류공간을 고려한 눈부심 저감 및 안전 중심의 조명 연출

- 보행자의 이동 경로와 체류 공간을 중심으로 조명을 배치하고, 눈부심을 유발하는 직접광을 최소화하는 설계 적용
- 적정 조도를 유지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조명 계획을 통해 야간에도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

H3. 주거지역 인접 구간에 대한 야간경관 완충 설계 적용

- 주거지역과 인접한 구간에서는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 공간을 설정하고, 조명 방향과 밝기를 세밀하게 조정
- 차광시설이나 간접조명을 활용하여 빛이 주거공간 내부 유입을 방지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야간 불편 최소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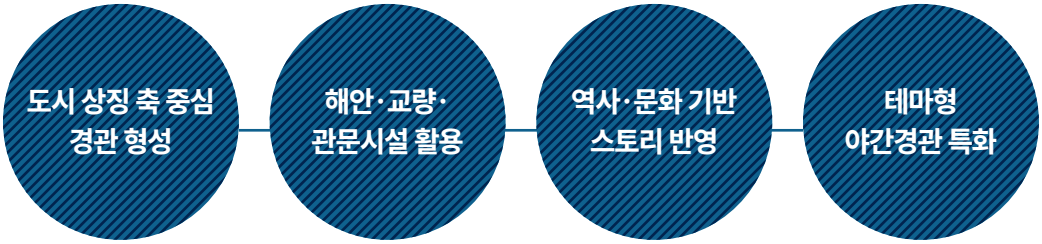


3.3.3 Identity 정체성의 빛

방향개요

- 부산의 야간경관은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로 구축

과제방향



핵심과제 세부방향

I1. 해안·교량·주요 관문시설을 중심으로 도시 대표 야간경관 축 조성

- 해안, 교량, 주요 관문시설 등 부산을 대표하는 핵심 공간을 중심으로 상징적인 야간경관 축을구축
- 각 거점은 개별적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빛 색채, 밝기, 연출 방식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하나의 연속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
-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 스카이라인과 경관 축을 확립하고, 방문객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 구축

I2. 근현대 역사자원·항만·산복도로 등 지역 스토리를 담은 테마형 야간경관 조성

- 부산이 가진 다양한 지역 자산인 항만, 산복도로, 근현대 역사공간 등을 활용하여 스토리 기반의 테마형 야간경관 조성
- 공간의 역사성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연출을 통해 장소의 의미 강화
- 차별화된 테마 구성은 지역별 개성을 강화하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기억에 남는 야간경관 경험 제공

I3.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랜드마크 구축

-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면, 선, 점을 설정하여 야간경관의 랜드마크 조성
- 부산시의 야간경관 사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10대 명소화 사업 설정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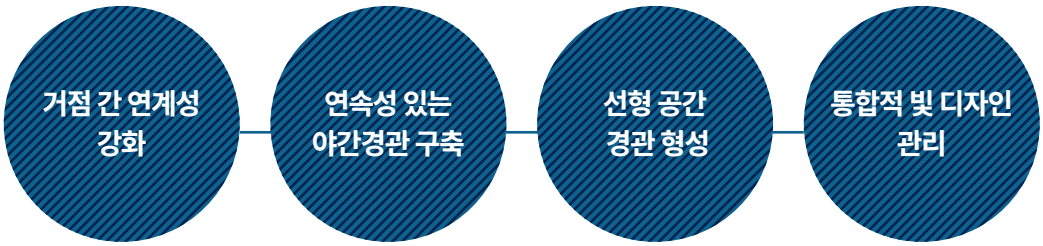


3.3.4 Network 연결하는 빛

방향개요

- 부산의 야간경관은 개별 거점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 전반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로 구축

과제방향



핵심과제 세부방향

N1. 거점에 대한 야간경관사업이 아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야간경관 구축

- 단편적 거점 중심 야간경관에서 벗어나 도시 전반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연속적 경관 체계 구축
- 조명의 색상, 밝기, 디자인 요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간 간 단절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 주요 거점 간 시각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경관의 리듬과 흐름을 형성하여, 시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공간을 인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

N2. 하천·해안·보행로·자전거길을 중심으로 한 선형 야간경관 축 형성

- 하천, 해안, 보행로, 자전거길 등 선형 공간을 중심으로 야간경관 축을 구축하여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
- 선형 축은 단순한 이동 경로를 넘어 경관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용자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빛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
- 주요 거점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 전반 공간 활용도 증대시키는 역할 수행

N3. 세계적인 수준의 빛축제를 위한 항만도시의 빛 구축

-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상징성을 구축하기 위한 해안, 항만을 이용한 빛축제 계획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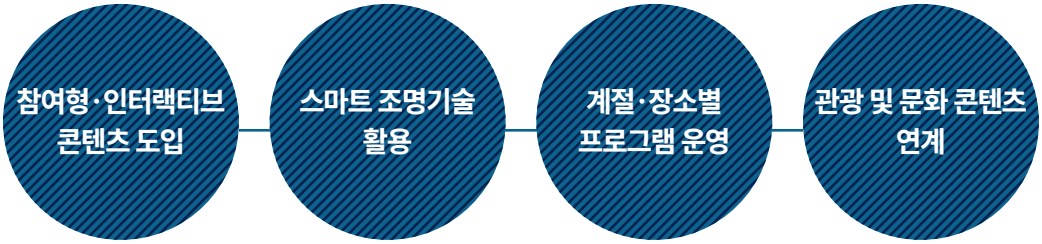


3.3.5 Experience 경험하는 빛

방향개요

- 부산의 야간경관은 관람 중심에서 벗어나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경험 중심 공간으로 확장

과제방향



핵심과제 세부방향

E1. 신기술을 활용한 참여형·반응형 야간경관 콘텐츠 도입

- 미디어파사드, 인터랙티브 조명, 스마트 센서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움직임과 행동에 반응하는 야간경관 조성
- 단순히 바라보는 경관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공간에 대한 몰입도와 흥미 증진
- IoT 기반 시스템과 연계하여 맞춤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도시문화 콘텐츠로 발전

E2. 계절별·장소별 빛의 축제로 아름다운 빛의 거리 조성

- 계절과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빛 축제 및 테마 거리를 조성하여 도시 전반에 활력 부여
-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 가능한 경관 요소 함께 계획하여 지속적 방문 유도
-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고, 야간시간대 도시 이용 활성화
-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

E3. 첨단 미디어아트 도입 및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 미디어아트 시설 및 콘텐츠 증가로 인한 관리 방안 마련 및 가이드라인 제시

기대효과



야간경관 기본계획

일반권역 야간경관 기본계획 87
지역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93
명소화권역 야간경관 기본계획 105
야간경관 조망 명소화 198

PART.4

4.1 일반권역 야간경관 계획

4.1.1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



용도지역 대상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1종 제외지역)
- 황령산 일원, 장산 일원, 승학산 일원, 태종대, 부산어린이대공원 등 폐장시간이 있는 공원, 기장군 생산녹지지역 등

빛환경 특성

- 거주자 및 유동인구 적고 야간교통량 영향이 적은 구역
- 동·식물 서식 및 농경활동 등을 위한 최소한의 빛환경이 필요하고, 차량 이동 및 보행 안전을 위한 적절한 빛환경 조성 필요





권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Network	Harmony
지속가능한 빛	연결하는 빛	조화로운 빛

빛 형성 기본계획

- 도시 확산을 완충하는 녹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공조명 확산 최소화
- 안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밝기를 확보하면서, 자연녹지, 공원 등의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환경 형성
-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거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램프 및 조명기구 사용
- 고효율, 긴수명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
- 조도는 기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계획하고, 비이용 시간대에는 단계적 디밍 또는 소등을 적용
-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의 저색온도를 적용하여 자연경관의 색채 왜곡과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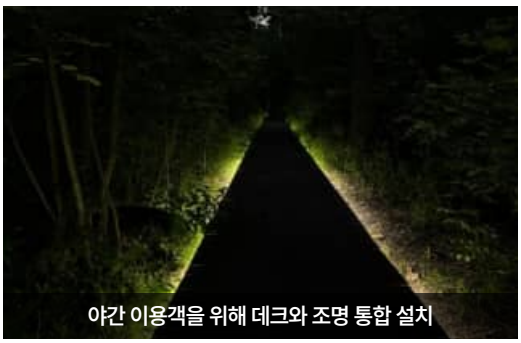

녹지 기능 유지를 위한 조명 설치 최소화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하향광 설치

야간경관 형성방향

- 야간경관은 자연친화적 분위기와 기능 중심의 실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 형성
- 야간에 잠시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빛 이외에는 빛 사용 억제
- 도시지역과 대비되는 저휘도·저채도 중심의 안정적이고 절제된 야간경관을 형성
- 능선 및 녹지 스카이라인은 암실루엣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 도시 전경의 균형 확보
- 광역 투광이나 고휘도 연출은 지양하고 점·선 중심의 단순한 빛 구조 유지
- 시설물 조명은 구조물 전체를 밝히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 부위에 한정하여 절제된 밝기로 계획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기능중심의 조명


야간 이용객을 위해 데크와 조명 통합 설치

4.1.2 일반주거, 전용주거,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대상

- 전용주거지역(제1종 전용,제2종 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지역
- 동구, 수영구, 서구 등의 주거밀집지역, 남구, 해운대구 등의 집합주택지역 등

빛환경 특성

- 야간에 거주자 및 유동인구 많고 야간교통량 영향이 보통인 구역
- 가로등 및 보안등에 의한 빛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이를 고려한 계획 필요
- 차량 이동 및 보행 안전을 위한 적절한 빛환경 조성 필요





권역 핵심 방향

Harmony	Network	Experience
조화로운 빛	연결하는 빛	경험하는 빛

빛 형성 기본계획

- 안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밝기를 확보하면서, 주거지 침입광을 방지할 수 있는 조명환경 형성
-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거나 주거지 침입광 등의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명기구 사용
- 조명은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기능조명 중심으로 계획하고, 과도한 장식조명과 고휘도 연출 지양
- 전용주거지역은 저층·저밀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저조도·저휘도 환경을 유지
- 일반주거지역은 보행로 및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균제도 중심의 안전조명을 적용
- 준주거지역은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지 보호를 위한 휘도 상한 기준 설정


과도한 장식은 지양한 기능 중심의 조명


저층주거지역 내 저조도·저휘도 조명 설치

야간경관 형성방향

- 준주거지역은 생활·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활력 있는 야간 이미지를 형성
- 주거지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옥외조명, 상점조명 등의 색온도는 3,500K 이하, 연색성 85 이상으로 계획
- 건축물 외관조명은 건물 전체를 밝히는 방식이 아닌 출입구 및 저층부 위주의 절제된 조명으로 계획
- 눈부심, 빠른 점멸조명, 적색조명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조명 및 광고조명 지양
- 과다하게 밝은 빛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LED, 스마트 조명으로 에너지 절감 등 환경을 배려


저층부 위주의 절제된 조명 계획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광고 조명

4.1.3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 대상

-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
- 광복로 패션거리, 해운대 센텀시티, 신평·장림 일반산업단지,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빛환경 특성

- 야간에 유동인구 많고 야간교통량 영향이 많은 구역
- 광고조명 빛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며,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지역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계획 필요





권역 핵심 방향

Harmony	Identity	Experience
조화로운 빛	정체성의 빛	경험하는 빛

빛 형성 기본계획

- 상업지역은 보행 활성화와 야간 활동 지원을 위해 가로 및 공개공지 중심의 기능·경관조명 계획
- 준공업지역은 업무·근린상업 기능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 안전과 보행 안전을 중심으로 계획
- 공업지역은 산업 활동과 물류 기능 지원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면 조도 확보 중심의 기능조명 적용
- 과도한 빛이나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 지양
- 조명은 보행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기능조명 중심으로 계획
- 광고물, 미디어파사드, 옥외조명은 점멸·고휘도 연출을 지양하고 점등 시간 관리 기준 마련
- 심야 시간대에는 단계적 디밍 또는 구역별 소등을 실시하여 에너지 절감과 야간 환경 안정 도모



상업지역 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이벤트 조명 계획


작업자의 안전과 효율을 위한 조도 확보

야간경관 형성방향

- 상업지역은 보행 중심의 빛 흐름을 강조하여 가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준공업·공업지역은 작업 공간 중심의 명확한 빛 영역 구분을 통해 기능성을 강화
- 다량의 빛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가로등, 보안등, 장식조명, 광고조명, 건물창에서 새어나오는 빛, 수변의 빛, 월워셔, 라이트 업, 스팟 라이트 등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활기찬 야간경관 형성
- 사용하는 모든 옥외조명, 상점조명 등의 색온도는 5,000K 이하, 연색성 85 이상으로 계획
- 음영이 조화롭고 색온도·밝기가 일체감 있는 빛을 연속성 있게 연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안전·안심의 보행자 공간 연출
- 야간경관 분위기의 형성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 명소화 권역' 및 '원도심·역사문화환경 명소화 권역'의 야간경관 형성 목표, 방향, 가이드라인, 조명수법 등을 준용
- 눈부심, 빠른 점멸조명, 적색조명 등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조명 및 광고조명을 지양
- 과다하게 밝은 빛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LED, 스마트 조명으로 에너지 절감 등 환경을 배려

4.2 지역별 야간경관 계획

4.2.1 산지지역

기본방향

- 산지경관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행로 위주의 조명 연출을 통해 자연녹지공간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계획하며, 시간대별 조명계획을 세워 필요 없는 시간대에는 소등하도록 계획
- 산지경관 내 상업시설물인 공원 내 점포나 자판기의 경우도 새어 나오는 빛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
- 산지경관 내 건축물의 경우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장식조명 연출을 하고, 필요 시 간접조명 방식의 조명연출을 계획하되 점등시간 계획을 통해 반드시 소등되도록 조성
-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전광판이나 색상변화, 점멸등의 연출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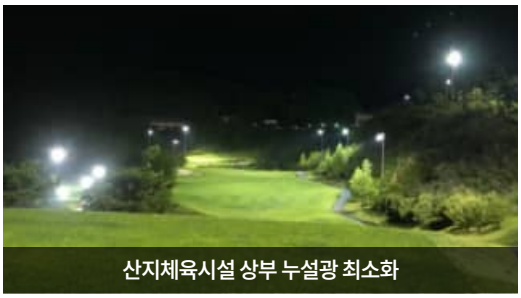
지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Harmony
지속가능한 빛	조화로운 빛

야간조명계획

조명디자인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조명을 적정 조도와 누설광이 없는 배광 형성
등산로와 전망대 등 이용 공간은 3~10lx 범위 내에서 균제도 중심으로 조도 계획
색온도는 2700K~3000K의 저색온도 광원을 사용하여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유지
필요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KS A3011에 따른 조도 확보
산지에 골프장, 골프연습장, 리조트 및 체육시설 조명디자인시 누설광 및 과한 조도 확보 지양
산지경관 내 주택 주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은은한 조명환경 연출
눈부심이 없고, 야생동식물 및 주변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간접조명 설계


산지체육시설 상부 누설광 최소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적정 조도 유지

빛공해 방지

빛공해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이 없도록 계획
주변 주거지 및 생태축 방향으로의 빛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휘도 상한 기준과 배광 제어 기준을 적용
능선, 수림 상부, 조망축 구간은 원칙적으로 비조명 구역으로 설정하여 상향광 및 천공 밝기 증가 차단
조명은 안전 확보에 필요한 구간에 한해 설치하고 면조명 및 광역 투광 방식은 지양

조명기구

조명기구 디자인이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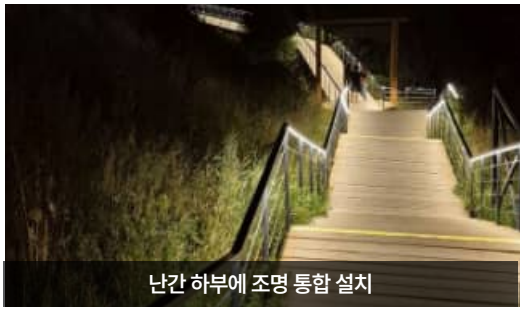
조명기구는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는 풀 컷오프(Full Cut-off)형 하향 배광 등기구를 적용

보행로 구간은 눈부심을 최소화하는 비대칭 배광형 또는 차광형 등기구를 적용

등기구 높이는 지형과 식생을 고려하여 가능한 낮게 계획하고, 능선부에는 고주 조명을 지양

전망대 및 휴게공간은 난간 하부 또는 바닥 매입형 간접조명 활용


상향광 발생을 방지하는 풀 컷오프 조명


난간 하부에 조명 통합 설치

유지관리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선정

먼지나 자연의 성장(수목성장 등)등으로 조명기구의 배광이 가려져서 조명기구 본래의 목적을 구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위치 및 설계

등기구 노후화로 인한 빛 번짐과 눈부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 및 광원 교체 주기를 설정

유지관리 과정에서 조명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수·교체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 운영


수목 성장을 고려한 높이의 조명 설치


조명기구의 배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수목과 이격하여 설치

4.2.2 해안지역

기본방향

- 해안가 보행로의 경우 이용자의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한 기본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계획 필요
- 해수욕장 주변의 경우, 해당 해수욕장 전체의 야간경관 컨셉과 조화를 이루되 야간 이용객을 고려한 조명연출 계획 필요
- 해변공간 주변으로 생태보존지 등이 존재하고 있을 경우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조명환경 조성
- 해안가 작업공간의 경우, 작업을 위한 기본조도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계획
- 고광속의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설계자의 섬세한 조명설계를 통해 항만부두 밖의 인근지역이나 수변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피해 고려 필요

지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Harmony 조화로운 빛

야간조명계획

조명디자인

해안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명설계를 통해 눈부심이 없고, 수변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피해 고려
해양권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명 배치와 연출을 설계하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
산책로 등 해안과 수변지역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조도 확보
어촌 및 어항 주변은 야간 이용 상황에 따른 조명환경 조성
해수욕장 인근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기본조도 확보가 가능한 조명설계 필요
해안가 작업공간(항만부두 등)의 경우 폴대에 설치하는 등기구의 배광(에이밍) 계획 필요


수면에 반사되는 빛 등 수변의 특성을 활용한 조명 연출


야간 환경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명 설계


어촌과 어항의 작업·생활 환경에 적합한 조명 환경 마련


이용객이 많은 해변가 및 산책로에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

빛공해 방지

해양생태계와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명으로 인한 생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설계

해안 산책로, 방파제, 항만 등 이용객이 있는 구간에서는 눈부심과 빛 간섭을 방지하는 조명 설계

갯벌, 생태공원 등 민감한 생태 구역에서는 조명이 누출되거나 반사되지 않도록 관리

항만부두 밖의 지역이나 수변공간으로 과다한 빛이 누설되지 않도록 계획



생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개수의 조명 설치



생활권 피해 최소화를 고려한 항만·부두 조명 계획

조명기구

해수면과 해안 라인의 반사광과 눈부심 최소화를 위한 컷오프형 LED 조명기구 사용

항만, 부두, 방파제, 해안 산책로 등 공간 특성에 맞춘 조명기구 디자인과 배치 계획

수면 반사, 낙조 등 해양 경관 요소를 고려한 조명기구 방향, 색온도, 배광 설계



이용자의 시각적 불편을 줄이기 위한 컷오프형 조명기구 적용



야간 산책객의 즐거움을 고려한 다채로운 조명 계획

유지관리

자연재해와 강풍, 해일 등 해안 특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선정

수명 단축 및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내후성·내식성이 높은 기구 사용

조명기구 점검, 유지보수 주기, 센서·타이머 등 제어 장치를 활용한 운영 관리 체계 마련

4.2.3 하천

기본방향

- 부산시의 경우 하천공간을 특화하여 운동 및 여가활동 등의 공간으로 활용도 증가
- 하천공간의 경우 전체 조명 마스터플랜을 권장하며 부분적 조명설치 시에도 각 구군에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에 적합한 컨셉의 조명 설계 권장
-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하천은 야간이용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낙동강 주변의 생태 습지, 철새도래지 등은 빛을 최소화하여 생태계의 피해 최소화
- 하천 주변의 구조물 및 이용시설 등에 조명연출 시 수변공간으로의 피해를 사전에 검토 필요
- 하천 주변 수목에 조명연출 시 각 수목의 생장특성에 맞는 조명기구 및 배광 각도의 기구를 선정하여 주변에 대한 누출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지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Harmony 조화로운 빛

야간조명계획

조명디자인

쾌적한 하천경관이 되도록 전체 마스터플랜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야간 수변공간 이용객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조도 확보

교량 및 수변시설은 구조적 형태가 드러나는 수준의 저휘도 조명을 적용하고 전면 투광 방식은 지양

Dark zone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최소화

교량 및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명설계 필요

수면은 자연적 반사와 어둠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 하천 고유의 깊이감과 개방감 강조


수변공간 야간 이용 증진을 위한 조도 확보


기존 교량을 구조를 활용하여 조명 계획

빛공해 방지

수변공간으로의 과다한 직접 광조사에 의한 수변생태계 피해를 방지하고, 수면 위로 투영되는 빛 활용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의 저색온도를 적용하여 어류 및 곤충 등 수생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조도는 보행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계획하고 수면 반사광으로 인한 휘도 상승 관리

조명기구

-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기구 사용 권장
- 등기구는 풀 컷오프형 하향 배광 등기구를 적용하여 상향광과 빛 번짐 차단
- 조명기구의 누설광과 눈부심을 사전에 신중한 검토 필요
- 보행로에는 낮은 높이의 볼라드등 또는 비대칭 배광형 보행등을 적용하여 눈부심 최소화
- 교량 조명은 구조 하부 또는 난간 하부 간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수면 확산광 억제


하천의 공간 특색 강조를 위한 특화 조명


풀 컷오프형 조명 설치로 빛번짐 최소화


보행자의 눈부심 최소화를 위한 낮은 볼라드등 설치


보행로 난간 하부 간접 조명 설치

유지관리

-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선정
- 조명은 타이머와 조도센서를 연계하여 일몰·일출 시간에 따라 자동 제어되도록 계획
- 등기구의 방수 상태와 부식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노후 광원은 계획 주기에 따라 교체
- 상습적 침수로 예상되는 수변공간에는 신뢰성이 확보된 조명기구 설치
- 연 1회 이상 조도 및 휘도 측정을 실시하여 빛공해 발생 여부 점검

4.2.4 도로

기본방향

- 가로등에 의한 누설광 및 상향 배광되는 빛을 최소화하기 위해 컷오프형 또는 최신기술 조명기구
- 가로경관조명은 KS A 3701에 따라 도로 노면의 균제도를 충족시켜 계획
- 교차로, 횡단보도, 진출입부 등은 야간에 안전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되 광원 노출로 인한 눈부심이 없도록 계획
- 도로주변 시설물의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나 눈부심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명설계

지역 핵심 방향

Harmony	Network
조화로운 빛	연결하는 빛

야간조명계획

조명디자인

가로경관 조명설계의 기본은 이용자 및 운전자의 안전이므로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

가로의 연속성과 리듬을 고려하여 등기구 간격과 높이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밝기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가로경관인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진출입부 등은 조명 확보를 통해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디밍(Dimming) 등을 사전설계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계획

가로수, 시설물, 건축물 저층부 조명은 공간의 깊이감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과도한 연출 지양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교차로 등 공공시설물은 기본조도를 확보하여 안전과 방범성을 만족시키도록 설계

도로 주변의 경우 노면 균제도를 높여 시인성 확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등기구 설치



공공시설물 주변 충분한 조도 확보

빛공해 방지

버스 및 택시 승강장에 지나친 장식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없도록 계획

보행자 및 운전자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광 제어와 차광장치를 적용

과도한 고휘도 간판 및 광고조명은 휘도 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눈부심을 억제

사전 조명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계 지향

조명기구

가로경관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조명기구의 광원이 직접광원으로 설치 지양

가로등은 풀 컷오프형 하향 배광 등기구를 적용하여 상향광 차단

보행로 구간은 낮은 높이의 보행등 또는 비대칭 배광형 등기구를 적용하여 균제도와 시인성 확보

등주 높이와 간격은 도로 폭과 위계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불필요한 고주 조명 지양

등기구 외관은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가로 이미지의 일관성 확보

광원은 고효율 LED를 적용하고 조도 조절이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기본 사양으로 계획



보행 중심의 공간에는 낮은 높이의 보행등 설치



특화거리 조성 시 디자인 요소가 도입된 조명설치

유지관리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선정

조명은 중앙제어 시스템 또는 타이머·조도센서를 통해 자동 제어되도록 구축

교통량 및 보행량 변화에 따라 조도 수준을 조정하는 스마트 제어 방식 도입

정기적인 조도·휘도 측정을 통해 기준 초과 구간을 점검하고 개선 조치 시행

등기구 청소 및 광원 교체 주기를 설정하여 노후화로 인한 눈부심과 광효율 저하 방지

유지관리 과정에서도 기존 밝기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가로 빛환경 유지



유지관리가 용이한 단순한 디자인의 조명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조도를 조정하는 스마트 가로등

4.2.5 역사문화

기본방향

- 문화재 및 역사유적지의 특성에 맞는 조명설계(조도, 색온도 등)를 계획
- 문화재의 재질, 색상, 형태 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조명계획을 세우되 필요시 이벤트를 위한 조명 연출 고려 필요
- 조명기구 위치 선정 시 방문자 및 이용자의 동선에 방해가 된다거나 주간에 인지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위치를 피하여 계획

지역 핵심 방향

Identity	Experience
정체성의 빛	경험하는 빛

야간조명계획

조명디자인

조명으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필요

야간경관은 주변 도시조명과 대비되는 차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로 형성하여 문화적 상징성 강화

건축물 전체를 밝히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구조부와 입면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입체감과 질감 부각

문화재와 인근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롭도록 계획

직접광보다는 간접조명과 벽면 워시 조명을 활용하여 부드럽고 균일한 밝기 환경 형성

보행자 및 이용자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조명기구 설치



차분하고 정온한 이미지의 조명 연출



문화재 벽면에 워시 조명 적용

빛공해 방지

산지경관등에 위치한 문화재의 경우 주변환경에 누설광 및 눈부심을 고려하여 설계

점멸·변색·고휘도 미디어 연출은 지양하여 시각적 혼란과 경관 왜곡을 방지

주거지인근의 역사문화경관의 조명설계시 야간 빛공해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며, 필요시 점등시간 조절

주거지·문화재에 피해를 주는 현란한 색상변화 및 점멸 등의 조명효과 지양

상향 투광조명 방법 선택을 지양하되, 사전 조명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된 조명기구의 배광 각도 및 에이밍 준수

조명기구

- 역사문화재와 어울리는 조명기구 디자인 및 재질 선정
- 등기구는 문화자원 훼손이 없도록 비접촉 또는 최소 고정 방식으로 설치
- 매입형, 지중형, 소형 투광기 등 소규모 등기구를 적용하여 시각적 노출 최소화
- 배광은 비대칭 또는 벽면 전용 배광형을 적용하여 필요한 부위에만 빛이 도달하도록 설계
- 등기구 외관은 저채도·무광 마감으로 계획하여 주간 경관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광원은 디밍이 가능한 고연색 LED를 적용하여 색 재현성과 조도 조절 기능 확보


문화재 및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연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는 미디어 아트


매입형 소규모 등기구로 시각적 노출 최소화


저채도 색채와 무광 마감의 조명기구

유지관리

-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선정
- 광원의 노후화로 인한 색온도 변화와 눈부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 주기에 따라 교체
- 행사 조명은 사전 승인 및 사후 점검 체계를 운영하여 무분별한 설치 방지
- 문화재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4.2.6 신개발 및 관문

기본방향

- 부산시 야간경관의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는 지역들이므로 각 개발지역의 조명가이드라인 작성하여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 필요
- 개발지 주변 기존 지역의 야간환경을 분석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조명 계획
- 자연환경 및 주변 생태계에 영향이 없도록 조명설계

지역 핵심 방향

Identity	Network
정체성의 빛	연결하는 빛

야간조명계획

조명디자인

조명 설계 대상 경관지역만의 해당지 주변 야간경관과의 조화 고려
기존 야간경관조명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환경 조성
부산시 권역별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며, 각 개발지역의 조명 가이드라인 준수
관문축, 진입도로, 교차로 등 주요 구간은 위계 있는 밝기 구조 형성
랜드마크는 단일 색조 중심의 절제된 강조 조명을 적용하여 상징성을 부여하되 상시적 고휘도 연출 지양
건축물 외관조명은 입면 전체를 밝히는 방식이 아닌 주요 구조부와 저층부 중심의 선택적 연출로 계획
눈부심이 없고, 조도 등이 KS-A-3011 기준에 맞도록 설계
자연환경, 수변공간 등이 설계 해당구역일 경우 누설광 및 눈부심을 고려하여 설계


주변 시설 및 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조성


단일 색조 중심의 강조 조명으로 상징성 강화

빛공해 방지

주거지에 피해를 주는 조명의 과한 색상변화와 점멸 지양
모든 조명은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향 배광형으로 설계하고 빛 번짐 최소화
조명설계 공간의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빛공해방지법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설계
주변 지역과의 밝기 대비를 고려하여 급격한 휘도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조명기구

등기구는 풀 컷오프형 하향 배광 제품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디밍 제어가 가능한 고효율 LED 사용

관문 상징 구간은 구조물 일체형 또는 매입형 등기구를 적용하여 시각적 노출 최소화

보행 공간은 눈부심을 억제하는 차광형 또는 비대칭 배광형 등기구 적용

등주 높이와 간격은 공간 위계에 맞게 설정하여 통일된 경관 이미지 형성

등기구 외관은 주변 건축 및 경관 요소와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계획



관문 상징물에 조명시설을 매립하게 설치



등기구 시각적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순한 디자인

유지관리

자연재해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기구 선정

행사성 또는 이벤트 조명은 운영 기간과 시간을 사전 설정하여 상시화되지 않도록 관리

정기적인 조도·휘도 점검을 통해 휘도 초과 및 눈부심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시행

등기구 노후화로 인한 광속 저하 및 색온도 변화는 계획 주기에 따라 교체하여 경관 일관성 유지

도시 이미지 변화와 개발 단계에 맞추어 조명 계획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관문경관 유지



행사 또는 이벤트성 조명 운영기간은 사전 설정 필요



도시 이미지 변화에 맞춘 조명 계획

4.3 명소화권역 야간경관 기본계획

4.3.1 2020년 부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이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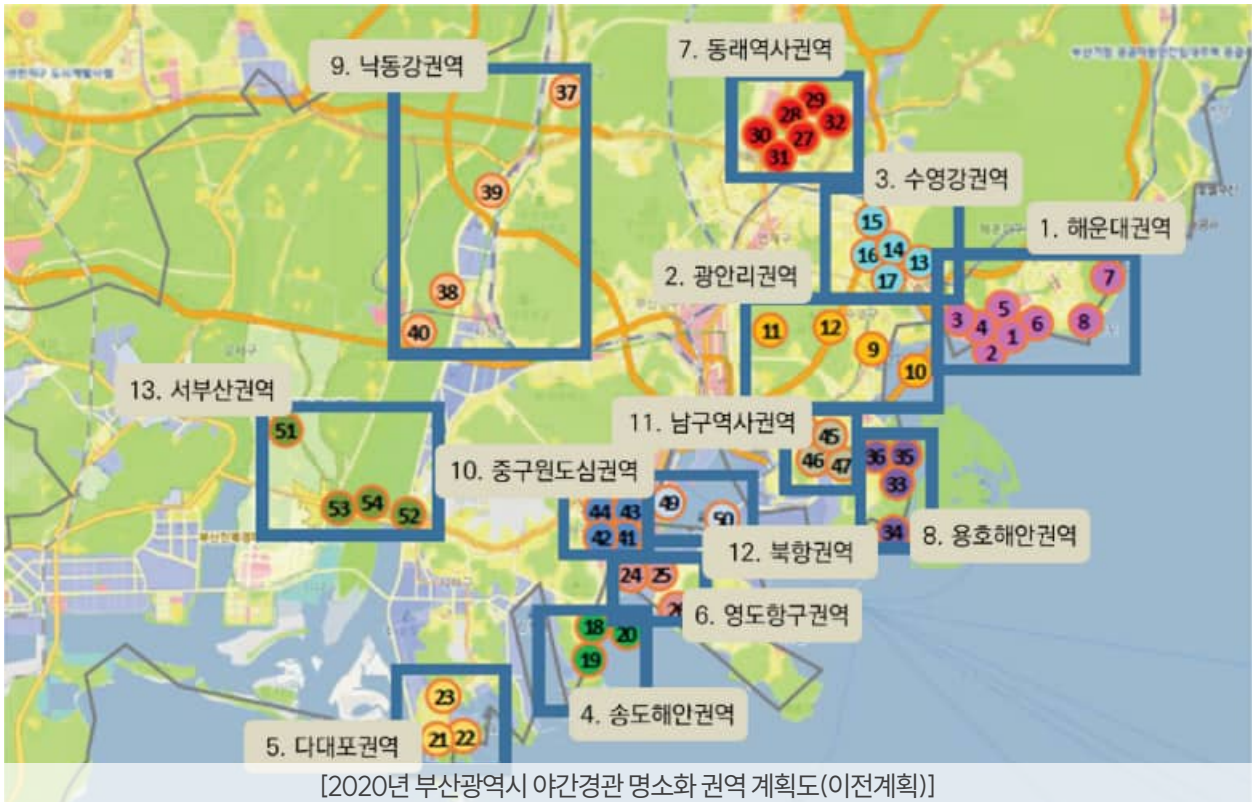
명소화권역 설정

- 부산이 가진 경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산의 야간을 대표할 수 있는 야간경관 명소로 특화·개발하기 위해 3대 명소화 권역을 구분하고 총 13개 명소화 권역을 설정
- 설정된 13개 명소화 권역에 대하여 권역별로 특화된 명소화 특성에 따라 보유한 야간경관 자원을 아름답고 즐거우며 쾌적한 야간경관으로 빛 환경을 연출하여 품격 있고 아름다우며, 즐거움이 있는 부산다운(정체성) 야간경관을 확대 형성

명소화권역 한계

-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명소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명소화를 위한 명확한 대상 및 실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계획의 구체적 실행에 한계가 있음
- 설정된 명소화 권역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사업 실행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16개 구·군에서 야간경관 사업 시행 등을 위한 근거 부족

원도심·역사 ·문화 환경 명소화 권역	하천 환경 명소화 권역	해양 환경 명소화 권역
중구 원도심 역사·문화 동래 역사 · 문화 남구 역사 · 문화 서부산 역사 · 문화	낙동강 하천 수영강 하천	해운대 해안 광안리 해안 용호만 해안 북항 해안 영도 해안 송도해안 다대포 해안



[2020년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 계획도(이전계획)]

4.3.2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 재정비 방향

명소화권역 재정비

명소화 권역의 구역계 정비

- 기정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의 사업 실행 및 활용성 한계 보완 위해 주거지 등의 경관자원과 연관성이 낮은 구역 검토
- 기존 구역은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변경하고 추가가 필요한 명소화 권역을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화를 위한 계획 제시와 가이드라인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



중구원도심권역(기존)



중구원도심권역(변경)

실행 용이한 명소화 계획의 재정비

야간경관의 주요 연출 테마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에 의한 야간경관의 형성 - 카페거리 등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야간경관의 형성 - 바다 수변 환경의 조망 경관 인상의 강화 - 광고조명 및 장식조명의 정비
- 수변 환경의 보전·활용과 창출에 의한 야간경관의 형성 - 화려한 해운대 수변의 개성과 매력적인 거리, 번성함이 있는 활기찬 야간경관의 형성 - 높이와 크기가 있는 건축물의 예술성 있는 파사드 등 야간 경관의 형성 - 해변도로, 마린시티의 고층 건축물 야간경관의 형성 - 미디어 파사드 등 도시의 품격, 즐거움이 있는 야간의 형성 - 해안 수변축으로 녹색 광장조명 및 수목의 야간경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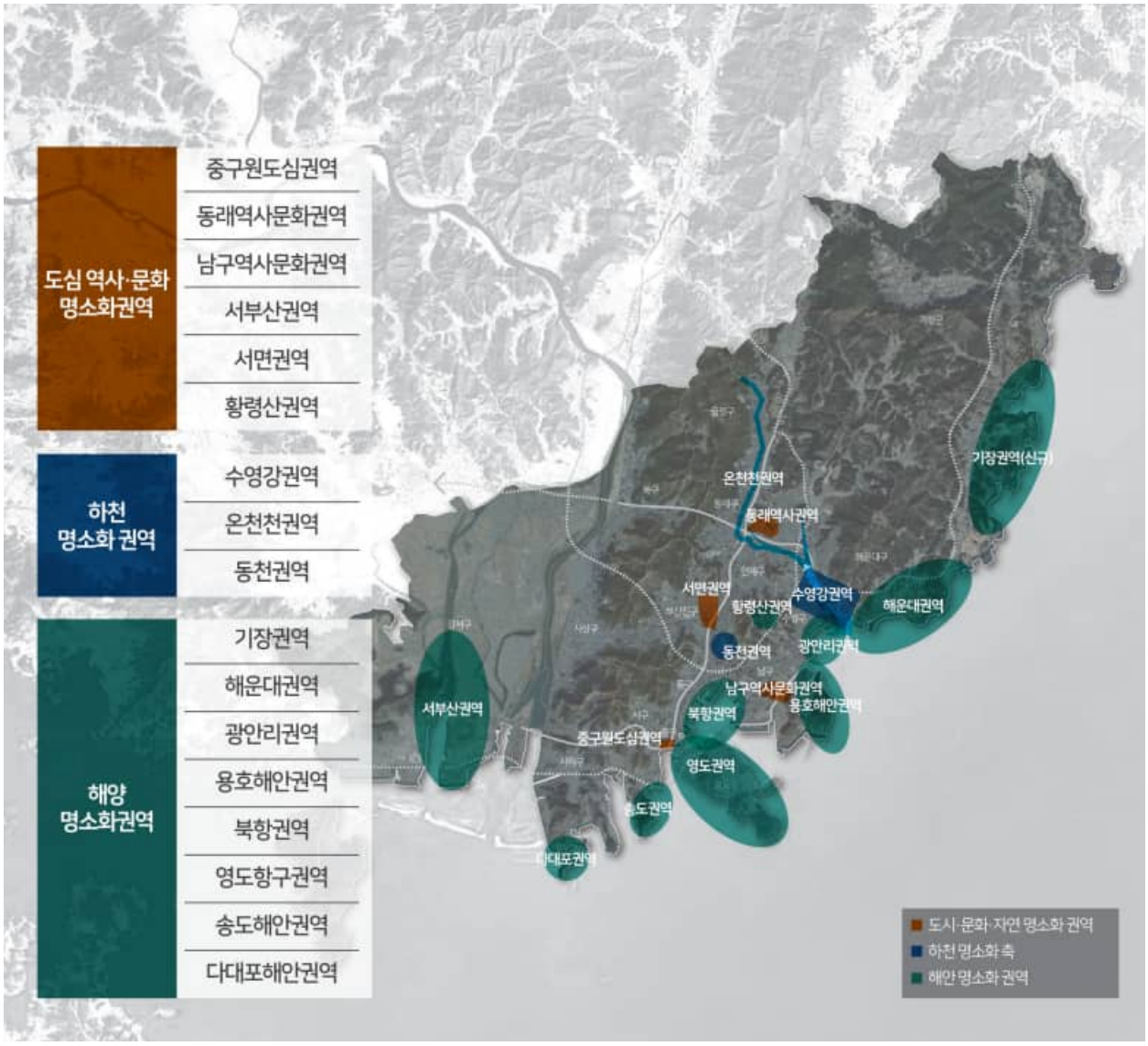

수영강권역 (2020)

- 명소화 권역 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 내용의 세부 적용방안이 글로 작성되어 명소화 위한 실행 어려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소화 권역의 방향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 세밀한 사업 내용 작성과 함께 연출방안을 이미지로 제시하여 향후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 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4.3.3 2026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 계획

명소화권역

- 부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 재정비는 주요 야간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공간을 연계하고, 권역 단위의 야간경관 관리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계획
- 도심 역사·문화, 하천, 해양 3가지 유형으로 명소화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경관 특성에 따른 야간경관 테마 및 차별화된 연출방향 설정
- 권역 설정 통한 '강조할 곳(명소)'과 '절제할 곳(보존/주거지)'의 위계 구축
- 개별 명소 중심이 아닌 주요 명소와 주변 공간을 권역 단위로 연계하여 관광 동선 및 빛의 루트 형성



[부산광역시 야간경관 명소화 권역 계획도]

명소화권역별 야간경관 형성방향

명소화권역	주요 야간경관 대상	야간경관 형성 방향
도심 역사·문화 명소화권역	- 용두산공원(부산타워), 광복로 국제시장, 남포동 등 중구원도심 - 동래읍성, 명륜1번가 등 동래역사문화 - UN기념공원,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등 남구역사문화 - 명지신도시, 신호산업단지, 에코델타시트 등 서부산 - 서면1번가, 전포카페거리, 시민공원, 부전역 등 서면 - 황령산 전망대 등 황령산	- 전통 건축물, 근대 문화유산, 역사적 조형물 등에 저휘도·고연색성의 따뜻한 빛(색온도 2,700K~3,000K 내외) 적용하여 은은하고 깊이 있는 야간 정체성 구현 - 원도심의 복잡한 골목길과 계단길을 안전하게 밝히는 동시에, 바닥 고보 조명이나 벽면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부산의 옛 이야기를 전달하는 야간 도보 루트 조성 -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광장, 공공 건축물의 외벽을 활용한 대형 미디어 파사드 및 디지털 아트 연출로, 예술이 흐르는 활기찬 도심 야간 문화 형성
하천 명소화권역	- 수영교, 휴먼브릿지, 좌수영교, 과정교, 원동교, 세월교, 동천교, APEC나루공원 등 - 부산대, 명륜1번가, 온천천카페거리, 하천둔치 보행로 - 동천, 범4호교, 성서교, 무지개다리, 범5호교, 동천오작교, 범일교, 문현금융단지, 범일동 상권	- 조류 및 수중 생태계, 수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동·식물의 활동을 방해하는 색상의 조명지양 -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상판 하부나 수변 산책로의 측면 은은한 조명 연출, 수면에 비치는 투영 효과 극대화 - 시민들이 걸어서 이용하는 수상 워크이나 친수 보행로에 사람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라이팅을 도입하여 밤길을 걷는 재미와 안전성 동시 확보 - 하천의 생태환경과 정온한 수변경관을 고려하여 생태·보전 구간은 불필요한 조명을 최소화하고, 보행 안전이 필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적정 조도를 확보
해양 명소화권역	- 동부산관광단지, 어촌 등 기장 - 구남로, 문텐로드, 동백섬, 해운대해수욕장 등 해운대 - 민락수변공원, 광안대교, 광안리 해수욕장 등 광안리 - 이기대, 이기대산책로, 오륙도 스카이워크 등 이기대 - 북항친수공원, 부산역,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권역 - 물양장, 깡깡이마을, 흰여울 마을, 해양박물관 등 영도항구 - 송도해수욕장, 암남공원, 거북섬 해안산책로 등 송도해안 - 다대포해수욕장, 낙조분수광장 동측해수욕장 등 다대포해안	-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등 각 해수욕장의 독특한 해안선 곡선과 배후 초고층 빌딩숲을 연결하는 거대한 스케일 야간 파노라마 구축 - 해안가 광장, 방파제, 테트라포드 또는 해상 구조물을 캔버스로 삼아 레이저 쇼, 드론 라이트 쇼, 프로젝션 맵핑 등 결합한 세계적 수준 해양 미디어 아트 콘텐츠 도입 - 개별 해수욕장 단위의 연출을 넘어, 부산 주요 해안 교량(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등)과 해안 산책로를 하나의 거대한 '빛의 해양 벨트'로 묶어 연계성을 느낄 수 있는 시그니처 컬러나 연출 패턴을 도입

4.3.4 중구원도심 명소화 권역

대상 구역

- 중구 원도심 일대(용두산공원, 피프광장, 광복로, 국제시장)는 부산 근현대 역사와 상업, 문화가 공존하는 핵심 공간
- 산과 평지가 입체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짐
- 각 거점별 기능과 유동인구의 편차가 명확한 구역

주요 거점

-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광복로, 근대역사거리, 피프광장, 국제시장, 깡통시장, 보수동 책방골목







현황 및 문제점

- 광복로에서 용두산공원의 주요 동선인 에스컬레이터에 미디어시설 설치되어 있으나 진입부 주변의 인지성 부족
- 부산타워에 대한 인지성은 있으나 야간에 주변 환경과 연속성 있는 빛의 연결 부족
- 근현대 건축물, 골목길, 피란 역사 등 원도심만의 무형적 자산이 단순히 밝기만 한 상업 조명에 묻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콘텐츠 부족
- 현대적 상업가로와 전통시장, 공원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단일한 조명 기준 적용 어려움
- 단순한 조명만이 아닌 비프광장의 빛의 정돈, 근대역사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빛의 콘텐츠 확보 필요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Network	Experience
정체성의 빛	연결하는 빛	경험하는 빛

역사성과 상업활력을 결합한 체류형 도심 명소 발굴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몰입형 빛의 체험공간 조성	즐거움과 활기가 연속되는 품격있는 빛의 거리	역사·시간·이야기가 함께하는 빛의 거리



요소별 연출방안

상업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롯데타워 자갈치시장	- 상업가로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역동적 입면 조명 연출 - 보행 동선과 연계된 저층부 활성화 중심의 가시성 높은 빛 환경 조성 - 간판·미디어요소의 통합적 디자인 관리에 따른 질서 있는 상업경관 구축
오픈 스페이스	국제시장, 광복로, 남포로 BIFF광장	- 상업가로와 연계된 중심 공간으로서 집객력을 강화하는 야간경관 형성 - 보행 흐름을 유도하는 시각적 포인트 및 리듬감 있는 공간조명 연출 - 이벤트·계절 연출이 가능한 유연한 조명 인프라 체계 마련
도시 기반시설	국제시장, 광복로, 남포로 BIFF광장	- 상업가로의 활력을 지원하는 기능 중심의 기반시설 조명체계 구축 - 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및 조명 일관성 확보를 통한 질서 있는 도시경관 조성
문화재	국제시장, 광복로, 남포로 BIFF광장	- 문화재와 인접 상업가로를 연결하는 연속적 야간경관 체계 구축 - 상업가로의 시각적 중심축을 형성하는 문화재 중심 경관 구조 설정



녹지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용두산타워 (용두산공원내 건축물)	- 원도심의 시간성과 생활성이 드러나는 절제된 입면 조명 연출 - 저층부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보행 친화적 건축 빛 환경 조성 - 과도한 장식조명 지양과 색온도·휘도 관리 기반 생활밀착형 조명체계 확립
오픈 스페이스	용두산공원 산책로, 광장 등	- 주민 일상 이용을 고려한 따뜻한 색온도의 체류형 빛 환경 조성 - 과도한 장식조명 지양 및 눈부심 저감 중심의 쾌적한 야간환경 형성
문화재	용두산공원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구역	- 문화재 원형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제된 경관조명 연출 - 원도심의 시간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문화재 야간 이미지 형성 - 문화재 특징과 구조미를 드러내는 간접·하향 중심의 조명 계획 수립



111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경험

용두산공원 도심 속 미디어 숲으로 재탄생

A. 공중 안개층을 활용한 입체형 빛 터널과 오로라 구현

- 고압 미세 안개(Fog)를 공중에 분사하여 층을 만들고, 그 사이로 레이저 빔을 투과시켜 빛의 단면이 안개 입자에 맺혀 빛의 터널과 오로라 연출
- RGB레이저 및 가변형 LED광원을 활용하여 색상, 밀도, 흐름이 변화하는 다이나믹 콘텐츠 구현

B. 용두산 주변 산책로와 숲속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숲 연출

- 기둥을 활용하여 부산의 역사(피란수도 등)를 담은 미디어 파사드 콘텐츠 적용으로 업그레이드
- 보행 동선에 따라 빛이 확장·수축하는 인터랙티브 반응형 연출 시스템(모션센서, LiDAR 등) 적용

C. 공원 진입부 연결로 야간 경관 연출

- 진입 동선과 연결로를 따라 빛의 흐름을 연출하여 공원 내부로 자연스럽게 유도




방향 2
경험

상업시설의 활기는 유지하되, 품격을 증진하는 빛 조성

A. 통합형 스마트 미디어 폴

- 시설물 통합 스마트 미디어 폴을 설치하여 거리를 비우고, LED 화면을 통해 통일된 야간 분위기 연출
- LED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거리 전체에 통일감 있는 야간 분위기 및 미디어 콘텐츠 연출
- 시간대 및 상황에 따라 밝기·색온도·콘텐츠가 자동 조정되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 구축




방향 3
연결, 경험

많은 보행자의 기억을 저장하고 재생하며, 함께 걸어가는 공간 구축

A. 빛과 그림자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람의 활동을 기록하는 시간의 그림자 구역 조성

- 적외선카메라와 고광량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보행자의 그림자를 추출, 저장하여 다음 사람이 지나갈 때 이전사람의 그림자를 함께 투사
- 광복로가 가진 '피란수도'의 역사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현재의 관광객과 1950년대를 살았던 피란민의 그림자를 함께 표현







4.3.5 동래역사문화권역

대상 구역

- 동래부동헌, 동래향교, 북문, 장관청 등 부산의 뿌리를 상징하는 역사자원이 밀집되어 있으며, 매년 동래읍성역사축제가 개최되는 부산 역사문화의 중심축
- 성곽과 공원, 산책로 등 역사·자연자원이 연계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야간 체류를 유도할 콘텐츠와 프로그램 부족

주요 거점

- 동래읍성, 북문광장, 복천박물관, 복천동고분군, 명륜1번가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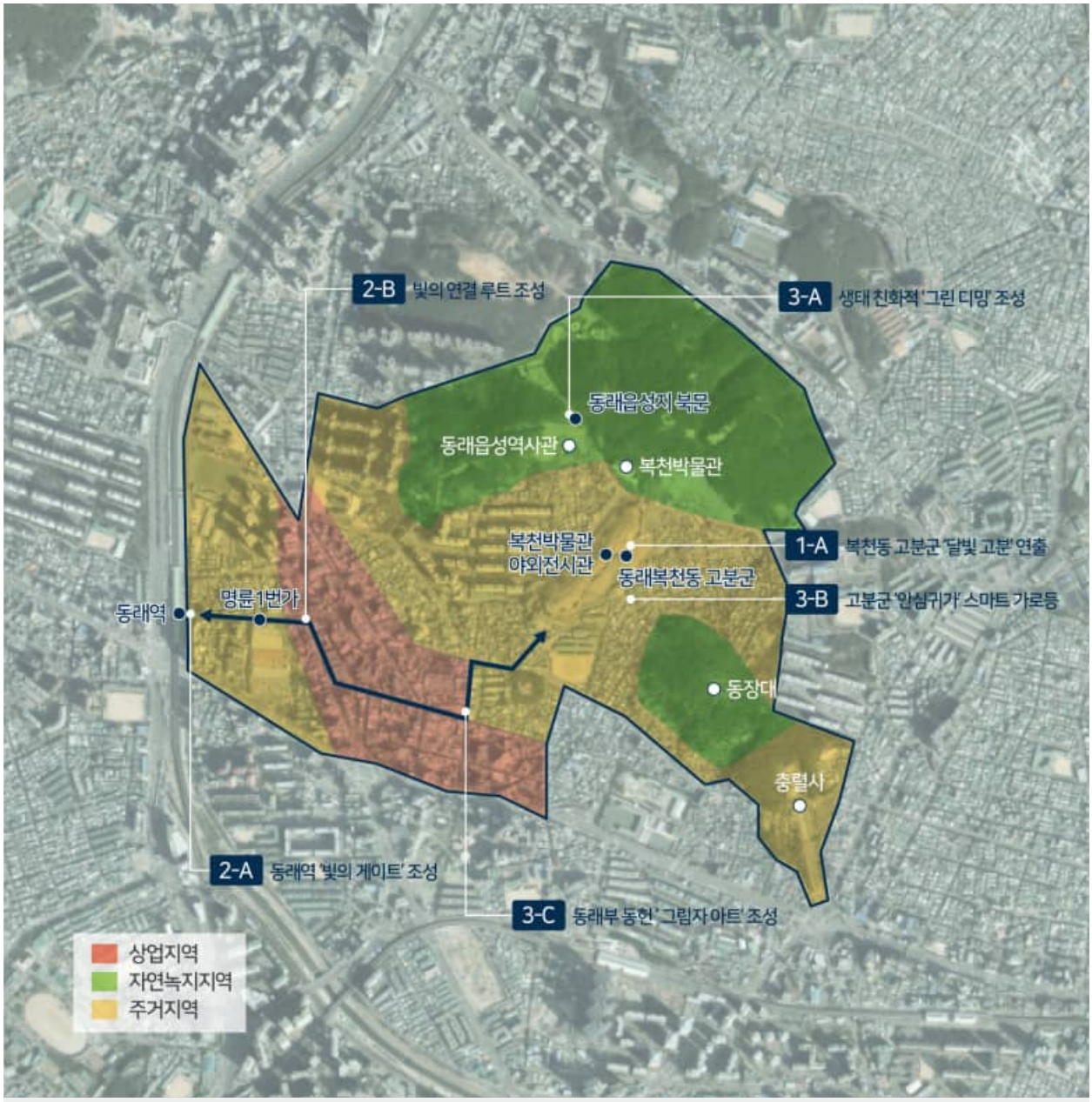
- 동래읍성~복천박물관~명륜1번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나 관광 동선으로 연결 부족
- 명륜1번가의 과도한 광공해 구역을 벗어나 역사 구역으로 진입하는 길목(예: 동래향교 주변, 읍성 진입로)은 갑작스럽게 조도가 낮아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
- 복천동 고분군이나 동래읍성 내부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해 화려한 직접광이나 대형 야간 인프라 설치 불가능
- 이로 인해 주간에는 훌륭한 오픈스페이스지만 야간에는 체류나 산책을 유도할 만한 특화된 조명 요소(앵커)가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상업가로에만 머물고 역사 구역으로는 유입 요인 미흡
- 야간에 꼭 가봐야 하는 상징적 장면의 연출 부족

권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Identity 정체성의 빛	Network 연결하는 빛

동래고색(東萊古色): 과거의 빛과 현대의 활력이 만나 흐르는 밤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역사의 가치를 잇는 흐름의 빛	시간의 흐름을 담은 빛의 서사	문화재 보호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빛환경 조성



■ 명소화권역 ○ 거점자원

요소별 연출방안

녹지(문화재)구역

건축물	복천박물관 동래읍성 동래향교 등	- 성벽과 전통 건축물의 질감을 살리는 조명기법 적용 - 직사광 대신 하부에서 위로 갈수록 빛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라데이션 연출하여 건물의 입체감을 극대화
고분군	복천동고분군	- 능선의 곡선 따라 아주 낮은 채도 빛을 배치하여 밤하늘 아래 고분이 떠 있는 듯한 '부유형 조명(Floating Light)' 연출
오픈 스페이스	동래사적공원	- 문화재 주변 광장은 조도를 최소화하고, 전통 문양(비천문, 기와 패턴 등) 활용한 '투사 조명(Shadow Gobo)'을 통해 바닥에 은은한 동양적 정취를 표현

상업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동래구청	- 상업 건물의 입면에는 전통 창살이나 서까래를 모티프로 한 '라인 LED'를 배치하여 현대적 미디어 아트와 전통의 조화 연출 - 옥상부 엣지 라이팅(Edge Lighting): 상업지 건물 옥상 라인에 3000K ~4000K 선형 조명 적용하여, 동래읍성지에서 조망 시 상업지가 역사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질서 있게 정돈된 느낌 - 브랜드 조명 통합: 개별 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 전체 색온도 통합하고, 간판 배면 조명을 권장하여 눈부심은 낮추고 가독성 확보
오픈 스페이스	명륜로 충렬대로 등	- 동래역 광장 또는 명륜1번가 주요 거점에 보행자 발걸음에 맞춰 동래를 상징하는 캐릭터 등이 따라오는 인터랙티브 조명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재미 요소 제공

주거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동래역 메가마트 등	- 고분군이나 읍성에서 바라보이는 주거지 옹벽이나 노후 건축물 외벽에 따뜻한색감의 조명을 은은하게 비추어, 주거지가 밤에 '어두운 사각지대'가 아닌 '은은한 배경'이 되도록 유도 - 주거지 대문이나 진입로에 동래의 전통 미를 살린 현대식 등롱형 조명을 설치하여 골목 전체의 조명 아이덴티티를 통일
오픈 스페이스	명륜1번가 명륜로 충렬대로 등	- 지능형 CPTED 안심 조명: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조도를 낮추고, 사람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밝아지거나 바닥에 '안심 귀가 구역' 표시를 띄워주는 스마트 보안등 시스템을 전면 도입 - 포켓공원 '달빛 쉼터': 주거지 내 소규모 쌈지공원에 달 모양의 조형물과 벤치 하부 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밤에도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동래읍성과 고분군을 잇는 흐름을 빛으로 강조하여 도심 어디서나 동래의 역사를 인지

A. 복천동 고분군 '달빛 고분' 연출

- 고분군 산책로에 낮은 채도의 달빛 색온도를 적용하여 신비롭고 정온한 야간 분위기 조성
- 동래역 인근 고층 빌딩 상부에서 읍성과 고분군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설정
- 성벽 하부 투광 조명을 전면 정비하여 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성곽의 실루엣을 부각





방향 2
정체성, 연결

동래역~명륜1번가~동래읍성까지 이어지는 보행 축에 시간의 흐름을 담은 빛의 서사 구축

A. 동래역 '빛의 게이트' 조성

- 도시철도 동래역사 외벽에 동래의 사계절을 담은 라이팅 그래픽을 연출하여 권역의 관문성 강화

B. 빛의 연결 루트 조성

- 명륜1번가 '레트로 네온' 거리: 상권의 활기를 위해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간판과 야간 경관 조명을 통합 설치하여 '뉴트로' 테마 구축
- 전통시장(동래시장) '빛의 처마' 연출: 시장 가로변 건물의 처마 라인을 따라 따뜻한 색감의 라인 조명 설치하여 야간 인지도 개선





방향 3
정체성

문화재 보호 구역과 녹지 내의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과 미관을 챙기는 지속 가능한 빛 환경 조성

A. 생태 친화적 '그린 디밍(Dimming)'

-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는 파장의 조명을 사용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자동으로 조도를 낮추는 시스템 도입

B. 고분군 '안심 귀가' 스마트 가로등

- 보행자 유무에 반응하는 센서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되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

C. 동래부 동헌 '그림자 아트'

- 건물의 격자무늬나 창살을 활용하여 바닥에 아름다운 그림자가 생기도록 하는 실루엣 조명 연출





4.3.6 남구역사문화권역

대상 구역

- "세계평화·기억·문화예술"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
-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 묘지인 유엔기념공원을 중심으로 국제적 상징성을 보유
- 단순한 경관조명이 아닌 평화와 추모,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야간경관 특화권역으로 발전 가능

주요 거점

- 유엔기념공원, UN평화공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유엔참전기념탑



현황 및 문제점

- 절대적 보존 및 상징거점인 유엔기념공원은 묘역이라는 특성상 엄숙함과 안신을 위한 내부 조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완전한 소등 상태를 유지
- 부산문화회관 및 부산박물관은 건축물의 입면이나 광장, 진입로를 밝히는 국부적인 경관 조명 설치로 야간의 문화적 활력 일부 제공
- 유엔교차로의 참전기념탑은 관문 역할을 하며 고광도 LED경관조명 설치
- 평화공원 일대는 일정한 조도의 수목등과 보행등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야간 산책로 활용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Harmony	Network
정체성의 빛	조화로운 빛	연결하는 빛

세계를 향한 평화의 울림, 빛의 헌사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역사·문화 자원을 빛으로 연결하는 야간 보행축 조성	주요 거점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정숙하고 절제된 빛 연출	문화예술을 야간에도 향유하는 미디어아트 거점 조성



■ 신규 명소화권역 ○ 거점자원

요소별 연출방안

문화재구역

건축물 및 조형물	국립일제강제공원역사관 아열대식물체험관 등	- 기념탑 하부에서 상층부로 이어지는 정교한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수직적 상승감 부여 - 탑 끝단이 밤하늘에 은은하게 투영되어 멀리서도 평화의 상징을 인지 - 건축물 질감을 살리는 간접조명을 적용하되,눈부심 없는 2700K~3000K의 조명으로 입체적인 건물 실루엣 부각
오픈 스페이스	유엔조각공원 유엔기념공원 당곡공원 등	- 공원 내부 침범광을 차단하기 위해 외곽 울타리 하부 비대칭 배광 조명을 설치, 외부에서는 공원의 경계가 은은하게 보이지만 내부의 정숙함은 깨지 않도록 설계 - 보행로에 낮은 조도의 풋라이트(Foot Light)를 배치하여, 최소한의 발 밑 안전만 확보한 채 사색하며 걷는 정온한 환경 조성

주거지역

건축물	부산문화회관 부산박물관 등	- 대극장의 넓은 외벽면을 활용하여 클래식 음악이나 공연 실황을 추상적인 빛의 움직임으로 시각화하는 조명 연출 - 문화회관 인근 상가는 개별적인 화려함보다는 배면 조명과 따뜻한 색온도를 적용하여, '문화 예술 마을' 같은 정돈된 상권 이미지를 구축 - 아파트 측벽에 강한 조명 대신 건물의 수직 선형을 따라 흐르는 미세 라인 조명을 적용하여, 권역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정돈 - 빌라촌이나 좁은 골목의 진입로에 전통 등을 재해석한 현대식 조명을 설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동네 분위기 조성
오픈 스페이스	평화공원 등	- 야외 조각공원의 작품마다 고유의 형태를 살리는 전용 조명 설치하여 밤에 완성되는 '야외 갤러리'를 조성 - 시민들이 광장을 걸을 때 발걸음을 따라 평화의 메시지나 꽃잎 모양 고보조명의 참여형 연출 도입 -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에 조도를 낮추었다가 사람이 접근하면 부드럽게 밝아지는 스마트 디밍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심리적 안정감 극대화 - 바닥에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편지 문구나 평화를 상징하는 시구 등을 투사하여, 일상이 역사가 되는 골목길을 연출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연결

역사·문화 시설들을 하나의 빛의 동선으로 연결하여 보행성을 높이고 권역의 일체감 부여

A. 빛으로 연결되는 연속적 평화의 길 조성

- UN 참전국 테마 가로등: 참전국 국기나 상징 패턴을 활용한 특화 가로등 설치
- '평화의 길' 태양광 보행등: 박물관에서 유엔평화기념관까지 이어지는 보행로에 태양광 매립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안전한 산책로 조성
- 연결 보행교 '라이트 릴레이': 시설 간 단절된 구간을 잇는 보행교 난간에 흐르는 듯한 저휘도 라인 조명 연출





방향 2
정체성

유엔기념공원과 기념관 등 주요 거점에 정숙하고 절제된 조명 연출로 장소의 정체성 강화

A. '영원의 빛' 조성

- 유엔참전기념탑 '영원의 빛': 기념탑 상부 향한 수직 투광 조명 통해 평화를 향한 염원을 시각화하는 상징적 조명 연출(하늘향한 빛의 기둥)
- 유엔기념공원 외곽 '그림자 펜스': 공원 내부 침범광을 최소화하면서도 담장에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형성하는 조명 연출
- 평화공원 '명상 산책로': 수목 하부 투광을 지양하고 발밑 조도만을 확보하여 사색하며 걷는 정온한 조명 환경 조성





방향 3
정체성, 조화

문화회관과 박물관 광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야간에도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거점 구축

A. 예술이 빛나는 조명 연출

- 부산박물관 '역사의 창' 라이팅: 박물관 유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홀로그램, 윈도우 디스플레이 조명 연출
- 야외 조각공원 '스포트라이트': 조각 작품별 특성에 맞춘 포인트 조명을 설치하여 밤에 완성되는 '야외 갤러리' 구현

B. 문화가 있는 밤 '버스킹 라이트'

- 문화회관 인근 버스킹 존에 공연 비트에 반응하는 컬러 체인징 조명 시스템 구축

C. 커뮤니티 '소소한 빛' 쉼터 조성

- 공원 및 문화공간 등과 연계된 휴게 공간에 감성적인 스트링 라이트와 포토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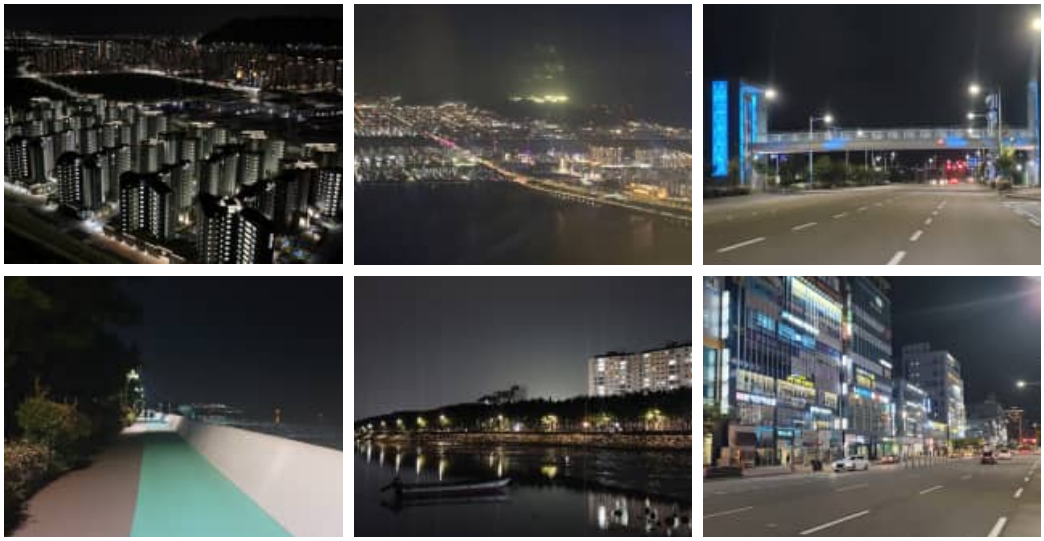
4.3.7 서부산권역

대상 구역

- 부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구역이자, 자연과 산업이 공존하는 구역
- 철새도래지로 철새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조명 설치에 제약이 많은 구역
- 평탄한 지형으로 수변을 따라 길게 뻗은 선형적 특징의 공간으로, 공간의 기능에 따른 빛의 성격 구분 중요

주요 거점

-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에코델타시티, 명지국제신도시, 녹산·신호국가산업단지



현황 및 문제점

- 서부산권역은 개발이 진행 중인 팽창 도시로서, '인간-자연-산업' 간의 빛 충돌 우려
- 철새도래지로 빛의 활용에 제약이 많음
- 야경을 입체적으로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점 부족
- 산업단지는 퇴근 시간 이후 유동인구가 없고, 거대한 산업시설물로 인해 삭막한 공간으로 방치
- 주거지 야간경관과 수변 야간경관과의 조화 필요

권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Harmony	Identity	Network
지속가능한 빛	조화로운 빛	정체성의 빛	연결하는 빛

생태의 시간과 도시의 빛이 만남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수변의 유기적인 빛의 동선	빛을 활용한 현대적 랜드마크	수변 생태경관의 조화



요소별 연출방안

상업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스타필드 등	- 더현대 '미디어 키네틱 스킨': 건축물 외벽에 바람에 반응하는 물리적 소재와 LED를 결합하여, 낙동강의 바람을 시각적 패턴으로 치환하는 역동적 미디어 파사드연출 - 커튼월: 상업 빌딩 내부의 빛이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은은하게 배어 나오게 유도하여, 인위적인 투광 없이도 고급스러운 도심 야경 형성
오픈 스페이스	서부산 유통단지	- 디지털 플라자 바닥조명 계획: 공공건축물 광장에 보행자 움직임을 추적하는 센서 조명 매립하여, 시민들이 걷는 길 따라 빛의 물결이 퍼지는 참여형 경험 공간 조성 - 상업지 광장에 조형적인 인공 수목 조명 배치하여, 계절이나 이벤트(크리스마스, 지역 축제 등)에 맞춰 컬러가 변하는 도심 포토존을 운영
사회기반 시설물	명지TG 명호 IC	- 스마트 미디어 버스 정류장 조명: 정류장 상부에 투명 디스플레이와 경관조명 결합하여, 버스 도착 정보와 함께 서부산의 미래 지향적인 그래픽을 송출 - 디자인 통합 배전함 조명: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배전함에 타공 디자인과 내측 조명을 적용하여, 야간에 거리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소규모 경관 오브제로 활용

주거지역

건축물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 아파트 측벽 '수평 선형 조명': 옥상 하부의 라인을 따라 일정하게 흐르는 따뜻한 백색 선형 조명을 적용하여, 낙동강 건너편에서 정돈된 주거지의 실루엣을 인지 - 단지 진입부 문주 조명: 아파트 주출입구 문주에 저휘도 간접 조명 적용, 주민들에게 안락함을 주는 따스한 입구 경관 연출(연직면 조도 확보)
오픈 스페이스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 포켓공원 '안심 귀가 쉼터': 단지 인근 작은 공원에 따뜻한 색온도 포인트 조명을 배치하고, 벤치 하부 조명 통해 눈부심 없는 안전한 휴게 환경 조성 - 주거지 인공 수로 조명: 주거지 주변 인공 수로변에 낮은 볼라드 조명을 배치하여 물과 빛이 어우러지는 평온한 수변 산책로를 연출
사회기반 시설물	녹산교 등	- 스마트 CPTED 보안등: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에는 조도를 30%로 유지하다가 보행자가 감지되면 100%로 밝아지는 지능형 조명을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 - 상향광 차단형(Full-cutoff) 가로등: 모든 주거지 가로등에 상향광을 차단하는 갓을 장착하여 아파트 저층부로의 빛 침입을 철저히 차단

녹지 및 생태지역

건축물	국회부산도서관	- 수상 및 수변 주변에 설치한 전망 데크나 휴게 시설물 하부에 수면 반사 조명을 설치하여 건물이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효과 연출 - 수변 인근 공공 건축물은 직접 투광을 지양하고, 벽면에 부드러운 간접 조명을 사용하여 건물의 형체만 인지하도록 계획
오픈 스페이스	철새보호구역	- 생태보호구역의 빛공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파장 계열의 호박색 조명을 적용하여 수변 완충지역의 야간조명 환경을 조성
사회기반 시설물	에코델타시티 전망대	- 수변 및 난간 손잡이 하단에 보행로 바닥만 비추는 라인 조명을 내장하여 보행 안전은 확보하되 주변 생태계를 방해하는 빛 확산 방지 - 교량 주탑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점차 흐려지는 조명을 통해 구조물의 압도적인 수직감을 강조하되, 철새 비행을 고려한 상향광 각도를 조절 - 곤충과 조류가 가장 적게 반응하는 노란색 계열 앰버 조명을 사용하여 생태 교란을 최소화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공업지역

건축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 대형 파사드 '그래픽 고보' 연출: 공장 대형 창고 외벽이나 사일로(Silo)를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서부산의 미래 비전이나 기하학적 패턴을 투사하는 고보 조명을 설치 - 구조체 '실루엣 포인트' 라이팅: 공장의 복잡한 파이프라인, 설비 구조물 포인트 조명을 적용하여 기계적인 조형미를 강조하는 '인더스트리얼 아트' 경관 연출
오픈 스페이스	화전지구 신호지구	- 근로자 쉼터 '비타민 라이트': 산업단지 내 공원·휴게공간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청색 및 녹색 계열의 조명을 배치하여, 야간 근무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라이트 테라피' 공간을 조성 - 공단 진입로 '빛의 게이트':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변에 상징적인 라이팅 폴을 연립 배치하여 외부인에게 명확한 경계를 알리고 내부 근로자에게 소속감을 주는 관문 경관을 형성
사회기반 시설물	신호대교 등	- 빛나는 산업 '굴뚝(Stack) 랜드마크': 단지 내 가장 높은 시설물인 굴뚝 상부에 회전형 레이저나 컬러 체인징 조명 설치하여, 멀리서도 서부산 산업단지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야간 등대' 역할을 부여 - 지능형 '안전 가이드' 도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이 많은 공단 도로의 교차로 및 횡단보도에 고휘도 바닥 유도등을 설치하여 야간 시야를 확보하고, 사고 위험을 낮추는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

명소화 방향

방향 1
조화성, 연결

수상 워크웨이와 강변축을 따라 이어지는 유기적인 빛의 동선을 통해 수변 접근성 및 시각적 상징성 강화

A. 일몰이 아름다운 서부권역의 수변 시그니처 조명 연출

- 수상 워크웨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 안전조명을 바닥면에 연출하고 상부로 향하는 조명의 철새 및 주변 자연으로 빛 유출 지양
- 명지 수변 '리니어 파크' 라이팅: 명지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일관된 색온도(3000K)의 볼라드 조명과 쉼터 포인트 조명 배치 낙동강 하구 '디지털 반딧불이' 로드: 에코델타시티 수변 녹지에 미세 레이저를 투사하여 자연 친화적인 야간 산책로 테마 조성
- 보행 연결교 '빛의 매듭' 연출: 주거지와 수변을 잇는 보행교에 컬러 테마 조명을 적용하여 권역 내의 동선 연결성 확보







방향 2
상징성

더현대 부산 2.0 등 민간·공공 건축물인 대규모 인프라에 첨단 라이팅 기술을 접목하여 서부산의 현대적 이미지를 구축

A.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복합민간건축물 건축시 빛의 랜드마크 연출 유도

- 더현대 부산 2.0 '키네틱 라이트 스킨': 건축물 외벽에 바람·소리에 반응하는 키네틱 라이트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여 서부산 최고의 랜드마크화
- 글로벌 랜드마크 '빛의 등대': 권역 최남단에 서부산을 상징하는 이벤트형 상향 투사형 레이저 설치





방향 3
지속가능, 조화

철새 도래지 및 수변 생태계에 미치는 빛공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정온한 빛 환경 조성

A. 빛공해 최소화를 위한 에코 라이트 연출

- 생태 보호구역 '앰버 라이팅(Amber Lighting)': 철새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낮은 파장의 호박색 조명을 수변 완충 지역에 적용
- 지능형 디밍(Dimming) 시스템: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 시간대(01시 이후)의 조도를 자동으로 50% 이상 낮추어 에너지 절감 및 생태 보호
- 저휘도 고효율 보안등 교체: 주거지 배후 도로 가로등을 Full-cutoff(상향광 차단) 기구로 전면 교체하여 빛공해 제로화 추진
- 에코-세이프티 스마트 길 찾기: 어두운 숲길이나 공원에 위급 상황 시 점멸하며 위치를 알리는 안심 유도등 시스템 구축





4.3.8 서면권역

대상 구역

- 서면교차로를 중심으로 서면젊음의거리, 서면1번가, 전포카페거리, 부전역, 송상현광장, 시민공원 등 상업, 문화, 휴식, 교통 등의 중요 거점을 포함하여 구역 설정
- 단순히 상업가로에 국한하지 않고, 상업, 문화, 휴식을 연계 가능
- 부산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압도적인 유동인구와 젊은세대 중심의 활력 가득한 공간

주요 거점

- 중앙대로, 새싹로, 서면젊음의 거리, 서면1번가, 전포카페거리, 서면문화로, 부전시장, 송상현광장, 시민공원, 부전역(국철)
- 상업중심 공간으로 특히 젊은 세대 중심의 공간이 다수
- 도심녹지공간으로 주야간 다양한 세대가 즐기는 휴식공간



현황 및 문제점

- 상업조명의 무분별한 옥외광고물과 조명으로 광공해 및 시각적 피로 유발
- 메인골목을 벗어난 이면도로는 조도가 급격히 떨어져 심야 보행 불안감 조성
- 시민공원은 도심한가운데 위치한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공원 내부는 생태적 빛 환경 보존을 위해 저조도 공간 다수
- 송상현광장에 대한 조명 계획 부족으로 중앙광장의 조도 부족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Network	Experience
정체성의 빛	연결하는 빛	경험하는 빛

서면 라이트 허브 : 낮과 밤이 연결되는 복합 문화 벨트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보행 중심의 연결성 강화	시간대별 반전 매력	시민 참여형 야간 콘텐츠 구축



■ 명소화권역 ○ 거점자원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 및 상업 혼합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 저채도·온백색 조명: 건축물의 질감을 살리는 투광 조명 사용하되, 주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빛이 위로 퍼지지 않는 Full-Cutoff 방식 조명 채택 - 감성적 포인트 라이팅: 카페거리의 개별 건축물 특성에 맞춰 간판, 입구에 따뜻한 색온도(3000K 이하)를 적용하여 아늑한 골목 분위기를 연출
오픈 스페이스	시민공원	- 주민 일상 이용을 고려한 따뜻한 색온도의 체류형 빛 환경 조성 - 스트링 라이트 & 펜던트: 골목 상부에 스트링 라이트 설치하여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보행로 전체의 조도를 확보 - 휴게 공간 라이팅: 벤치 하부나 수목 투광 조명 등 간접 조명을 활용해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어 머물고 싶은 공간 조성









상업지역

건축물	롯데백화점	- 미디어 파사드 통합 연출 : 서면 교차로 주변의 고층 빌딩 외벽을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활용, 특정 시간대에 빌딩들이 동기화된 라이팅 쇼 연출 - 상업 전면부(Podium): 보행자 시선의 저층부 컬러 조명 설치 및 역동적인 조명을 활용하여 상권의 활기를 극대화
오픈 스페이스	전포 카페거리 젊음의 거리 등	- 보행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바닥 매립형 LED를 설치하여 '걷는 즐거움'을 제공 - 서면 정체성을 담은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고, 계절이나 축제에 따라 조명 연출(Color Change)을 달리하여 상징성을 부여
도시 기반시설	부전역 전포역 서면역	- 상업가로의 활력을 지원하는 기능 중심의 기반시설 조명체계 구축 - 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및 조명 일관성 확보 통한 질서 있는 도시경관 조성
문화재	송상현광장 등	- 문화재와 인접 상업가로를 연결하는 연속적 야간경관 체계 구축 - 상업가로의 시각적 중심축을 형성하는 문화재 중심 경관 구조 설정

명소화 방향

방향 1
연결

대상지들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끊기지 않는 빛의 흐름' 강화

A. 웨이파인딩(Way-finding) 시스템

- 서면 '블루 닷(Blue Dot)' 유도등 설치 : 각 공간을 잇는 보행로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형 LED 노면 점등 블록을 설치하여 직관적인 보행 가이드라인 제공
- 스마트 라이팅 이정표 : 주요 교차로에 미디어 폴(Media Pole)을 설치하여 현재 위치에서 주변 명소(카페거리, 전통시장 등)까지의 거리와 이벤트 정보를 빛의 그래픽으로 표출
- 디자인 통합 가로등 교체: 권역 전체에 서면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특화 가로등 디자인을 적용하고, 상단에는 권역별 컬러 코드를 입힌 비콘(Beacon) 조명





방향 2
정체성

시간대별 이용자 특성에 맞춘 조도 및 연출의 유연한 변화

A. 전포 카페거리 '선셋 필터' 사업

- 일몰 후 2시간은 사진이 잘 나오는 따뜻한 톤, 심야는 정온성 위한 부드러운 간접 조명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스마트 디밍 시스템 도입

B. 팝업 라이팅 존

- 특정 요일이나 시즌(Lotte Giants 경기 등)에만 활성화되는 테마 조명 구역을 지정하여 서면의 야간 경관에 매번 새로운 변화 제공





방향 3
정체성, 경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서면만의 독보적 야간 콘텐츠

A. 라이트 캔버스 조성

- 스마트폰 앱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광장 바닥이나 미디어 월에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구현되는 참여형 미디어 아트 설치

B. 서면교차로 '랜드마크 타워' 연출

- 서면의 중심 건물을 지정하여 부산의 날씨, 대기질, 혹은 부산의 기분(데이터 시각화)에 따라 컬러가 변하는 상징적 야간 랜드마크화

C. 전포 '감성 골목' 포토존

- 전포카페거리의 숨은 골목마다 미학적인 네온 사인 아트나 착시 효과를 이용한 '착시형 조명(Anamorphic light)'을 설치하여 SNS 명소 육성

D. 부산시민공원 '미스틱 포레스트'

- 공원 내 특정 숲에 안개 분수와 레이저 조명을 결합하여 마치 몽환적인 숲을 걷는 듯한 가상 체험형 야간 산책로 조성

E. 디지털 버스킹 스트리트

- 젊음의 거리 내 버스킹 공연 구역에 연주 소리의 크기와 비트에 맞춰 바닥 조명이 춤추듯 반응하는 '사운드 반응형 조명' 시스템 구축





4.3.9 황령산권역

대상 구역

-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360도로 펼처저 부산 전역의 야경을 조망 할 수 있는 부산야간경관의 중심점
- 부산시내를 조망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부산시내에서 황령산의 송신탑을 바로 보는 랜드마크

주요 거점

- 황령산 송신탑, 황령산 전망대, 봉수대, 순환도로 및 등산로



현황 및 문제점

- 송신탑은 부산의 대표적인 시각적 타워이나 상징성 있는 조명계획 없음
- 황령산 전망대와 봉수대 주변 조명은 안전 위한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행자와 야경 관람자에게 눈부심 발생
- 전망대에서 단순이 아래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시각적 감상만이 가능하고, 야간에 체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경험적 조명 없음

권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Identity	Network
지속가능한 빛	정체성의 빛	연결하는 빛

부산의 밤을 밝히는 도심의 등대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도시를 상징하는 야간 랜드마크	빛으로 이어지는 문화의 길	생태를 보존하는 절제된 빛 연출



요소별 연출방안

녹지지역 (황령산 산림 및 정상부)

건축물	황령산 스토리타워	- 황령산 전망대 및 관련 건축물은 주변 수목과 조화되도록 저채도 조명을 적용하여 도심에서 황령산 조망 시 과도한 빛이 인지 되지 않도록 계획
오픈 스페이스	황령산전망쉼터 황령산 레포츠공원	- 자연 그대로를 배경으로 수목 하부 투광을 지양하고 '빛의 징검다리'처럼 바닥면의 유도등 위주로 배치하여 어둠과의 대비를 통한 극적인 야간경관 강조

상업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 카페나 근린생활시설의 외벽에 따뜻한 온백색(3000K) 조명을 사용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윈도우 조명을 적극 활용하여 황령산 진입을 위한 도로 조도확보
오픈 스페이스	대연램프 교차로	- 상권과 산책로가 만나는 광장에는 인터랙티브 라이팅 설치하여 방문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이 변하는 '맞이의 공간'을 연출

주거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남부경찰서 등	- 황령산과 접한 아파트와 주택들은 강한 투광을 피하고, 옥상 라인이나 현관 입구에 정온한 포인트 조명을 적용하여 정갈한 스카이라인을 형성
오픈 스페이스	남치이 인문학거리 등	- 주민들의 운동 공간이나 쌈지공원에 CPTED(범죄예방설계)를 적용한 고연색성 보안등을 설치하되, 산림 쪽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는 상향광 차단(Full-cutoff) 기구를 사용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경험
부산 전역에서 인지 가능한 송신탑과 봉수대 압도적 시각 거점 형성

A. 송신탑 통합 라이팅 쇼

- 황령산 정상 송신탑 3개소에 동기화된 LED 연출을 적용하여 부산의 대기질, 축제, 스포츠 승리 등을 알리는 '디지털 봉수' 기능 강화

B. 스카이 빔 라이트(Sky-Beam)

- 특별한 기념일 등에 하늘과 부산 전역에서 인지 가능한 서라운드 조명 및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빛 기둥을 연출하여 글로벌 축제 분위기 조성

C. 통합 조망점 라이팅 전망대 조성

- 연제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등 각 구별 조망 포인트에 동일한 디자인의 라이팅 포토존 설치





방향 2 지속가능,연결
황령산 순환도로와 등산로를 안전하고 낭만적인 빛의 산책로로 탈바꿈하여 보행·드라이브 환경 개선

A.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황령라이트웨이 조성

- 황령산 순환로 '라이트 드라이빙': 도로변 가드레일에 저휘도 라인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드라이브 코스 조성 및 빛의 궤적 형성
- 은하수 산책로(Starry Path): 주요 등산로 바닥에 야간발광소재(축광석)을 활용하여 전력이 없어도 빛나는 신비로운 숲길 연출

B. 빛의 편의시설 설치

- 스마트 쉼터 '라이팅 벤치': 주요 조망 지점의 휴게 공간에 태양광 기반의 LED 벤치를 설치하여 야간 인지성 확보
- 보행자 안심 비콘(Beacon): 조난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긴급 호출 기능이 포함된 라이팅 폴(Lighting Pole) 배치




방향 3
지속가능,연결

산림 생태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특정 거점에는 몰입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연출하여 반전 매력 제공

A. 반딧불이 레이저 연출

- 숲속 깊은 곳에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한 녹색 미세 레이저를 투사하여 환상적인 숲 분위기 연출

B. 디지털 포레스트 전시

- 유휴 공간을 활용해 야간에만 나타나는 가상 동식물 미디어 아트 전시(AR 결합)

C. 생태 보호 디밍 시스템

- 심야 시간(01시 이후) 조도를 최소화하여 산림 동식물의 수면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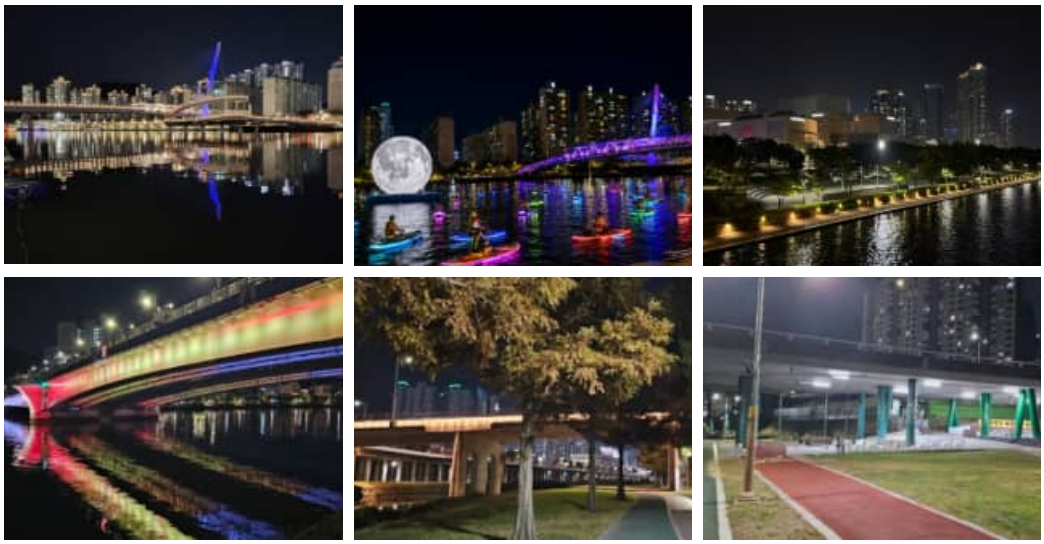

4.3.10 수영강권역

대상 구역

- 부산 동부권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대표 하천으로 해운대, 센텀시티, 수영구를 연결하는 광역 경관축 역할 수행
- 휴먼브릿지를 포함한 수영강의 다양한 교량, APEC나루공원, 센텀시티 등은 수영강의 상징성과 이용 가치를 보여주는 핵심거점

주요 거점

- 수영교, 휴먼브릿지, 좌수영교, 과정교, 원동교, 세월교, 동천교, APEC나루공원



현황 및 문제점

- 수영강을 경계로 센텀시티와 수영구(일반 상업/주거지 조명)의 조도 대비가 큼
- APEC나루공원 산책로는 배후의 초고층 빌딩 빛에 눌려 공원 내부의 야간 정체성이 저하
- 수영강 교량들의 경관 조명이 각기 다른 시기에 설치되어 색온도와 연출 방식이 제각각으로 보여 '연속된 빛의 축'으로 인지 되지 못하고 시각적인 산만함 유발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Network	Experience
정체성의 빛	연결하는 빛	경험하는 빛

도심의 활력과 자연의 쉼이 공존하는 수변 미디어 갤러리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도시 인프라의 미디어 가치 융합	수변 보행축의 연속성 및 접근성 강화	지속 가능한 로우글로우 생태 경관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망미초등학교 등	- 상층부 탑라이트 및 직접 투광 지양 - 중·저층부 필로티와 진입부에 정온한 웜화이트(2700K) 간접 조명 배치
오픈 스페이스	APEC공원	- 가로변 벤치 및 산책로 하부 매립 조명으로 보행 안전 조도(10~15 Lux) 유지 - 수목 직접 투광 지양
사회 기반시설	부산원동역 민락역	- 고연색성(Ra 80 이상) CPTED 안심 보안등 설치 - 보행교 진입부 가독성 확보

상업지역

건축물	벡스코 신세계백화점 등	-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고층부 경관 조명 허용 - 저층부 투명 유리를 통한 내부 유출광(내침광) 적극 활용 및 간판 톤앤매너 통합
오픈 스페이스	영화의전당	- 광장 바닥에 무빙 라이트 및 고보 프로젝션 맵핑 연출 - 미디어 아트를 품은 스마트 쉼터 조성

자연녹지, 수변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목련선원 등	- 미디어가 연동되는 친환경 저조도 스킨 연출 - 자연 구조물과의 일체감을 주는 매립형 조명 방식 적용
오픈 스페이스	민락수변공원 해운대수목원	- 수목 직접 투광 지양 - 수림대 문라이팅(Moonlighting) 기법 적용
사회 기반시설	휴먼브릿지 수영교 등	- 생태 보호 파장(Amber LED, 2200K 이하) 보안등 적용 - 수면 직접 투광을 방지하는 풀컷오프(Full Cut-off) 조명 기구 사용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휴먼브릿지 중심의 빛과 물의 랜드마크

A. 휴먼브릿지 키네틱 라이팅 게이트
- 주탑과 케이블에 영화의전당과 연동되는 미디어 조명을 설치하여 진입 관문성을 강화

B. 수영강 워터-시네마틱 분수 쇼
- 휴먼브릿지 측면 및 수면 위에 대형 분수와 레이저 프로젝션을 도입하여 물결 패턴의 미디어 쇼 연출

C. 수영강변 미디어 글라스(Media Glass) 쉼터
- 주요 조망 거점에 투명 미디어 글라스를 활용한 스마트 쉼터를 설치하여 인터랙티브 정보를 제공

D. APEC나루공원 '빛의 등대' 타워 연출
- 권역 내 랜드마크 타워 상부에 장거리 빔라이트를 도입해 북항과 해운대를 잇는 야간 앵커 포인트로 활용






방향 2
정체성, 경험

시민과 관광객이 수영강의 야경을 가장 가까이서 즐기고 체류할 수 있는 '빛의 에코-실크로드' 구축

A. APEC 나루공원 미디어 포레스트

- 수영강변을 대표하는 오픈스페이스인 나루공원 산책로를 야간 미디어 테마 파크로 전환
- 수목 상부를 향한 눈부신 업라이팅 지양하고, 나뭇잎 사이로 빛이 흘러내리는 듯한 '고보 프로젝션'을 통해 몽환적인 숲길을 조성

B. 플로팅 레이어(Floating Layer) 보행로 구축

- 수영강 수면 위 보행 데크를 연장하고, 데크 하부에 수면을 향한 간접조명을 설치하여 걸을 때 바다와 강이 만나는 수영강 특유의 물결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는 역할

C. 교량 하부 '언더 브릿지 갤러리

- 수영강 교량 하부 음영 구역에 고해상도 프로젝션 맵핑을 적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야간 갤러리를 조성

D. 수영강 교량 빛의 브릿지 조성

- 수영강의 교량별 특화된 조명설치를 통한 빛의 브릿지 구현으로 이야기가 있는 수영강 조성






방향 3
연결, 경험

생태 보존 가치가 높은 수영강 상류 및 주거지 인접 구간을 위한 환경 친화적 야간 경관 계획

A. 컷오프(Cut-off) 기술 기반 지향성 조명 설계 (Eco)

- 빛이 하늘이나 강 표면 전체로 번져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빛의 조사 각도를 보행로 바닥면으로 투사하는 컷오프 가로등을 전면 도입

B. 생태 감성 라이팅 (Open Space)

- 수변 식생 구역은 색온도 2,700K 이하의 따뜻한 웜화이트 조명을 사용하여 인공광으로 인한 피로도 최소화
-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 사이로 미세한 광섬유 조명을 배치해 자연 고유의 움직임을 야간에 부각

C. 친수 스마트 인프라 (Infra)

- 주거 구역과 자연 구역의 경계부에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사람이 없을 때 조도를 30%로 낮추고, 사람이 접근하면 100%로 밝혀주는 '스마트 모션 센싱 가로등 체계'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정온한 야간 환경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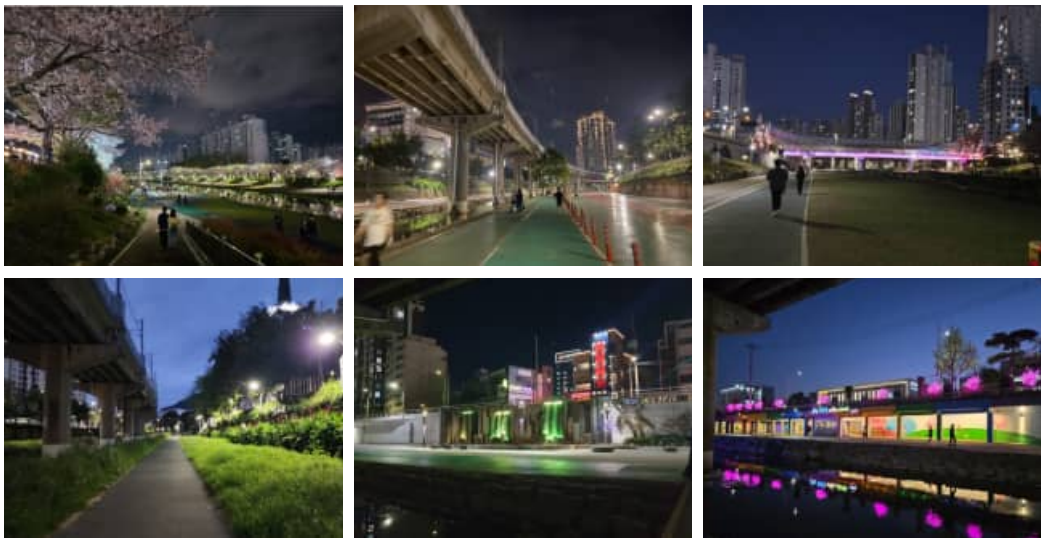
4.3.11 온천천권역

대상 구역

-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온천천을 중심으로 하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를 연결하는 약 15km 규모의 수변 녹지축
- 부산 시민의 일상적인 생태 축이자 거대한 선형(Linear) 오픈스페이스

주요 거점

- 부산대, 명륜1번가, 온천천카페거리, 하천둔치 보행로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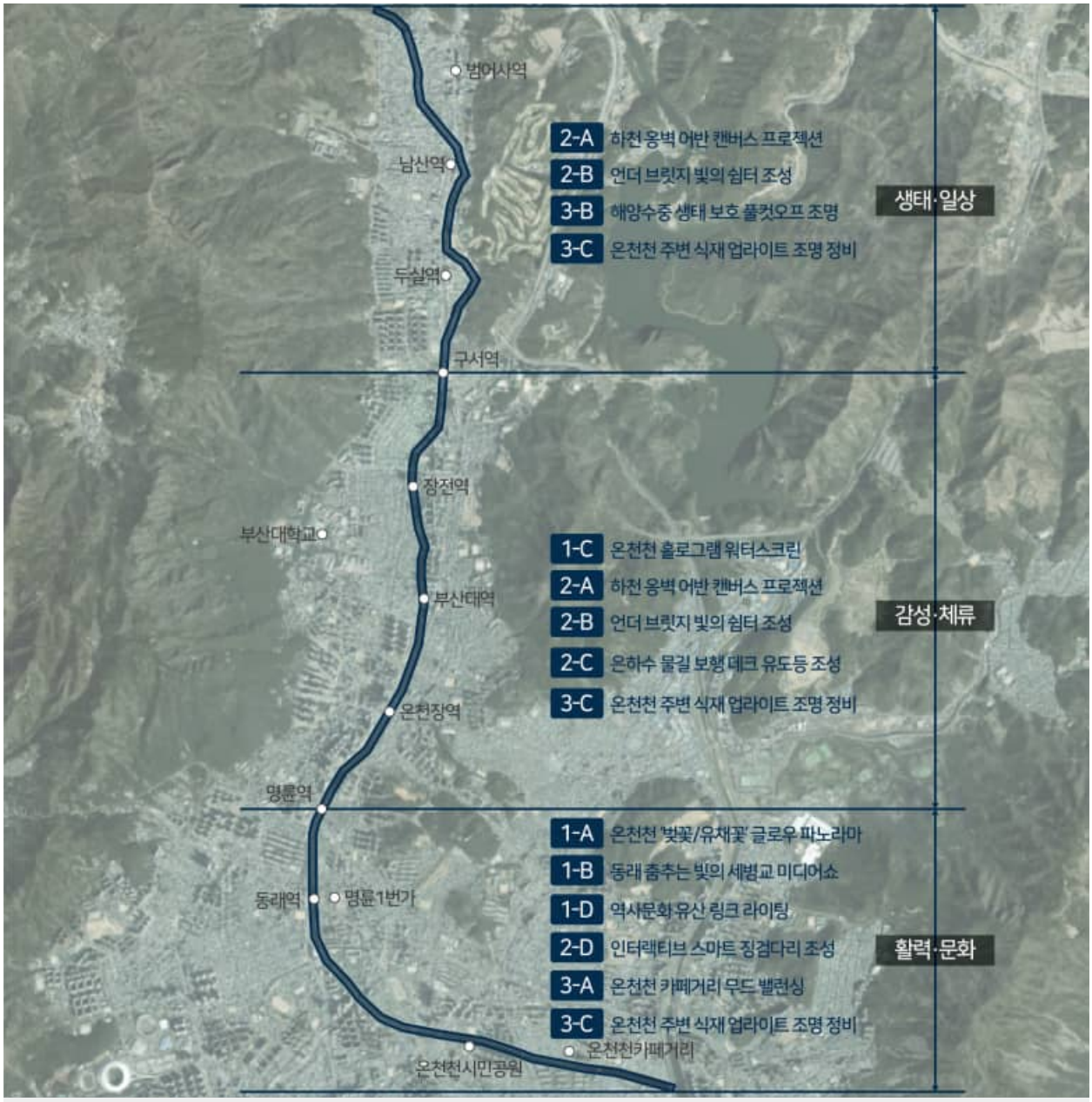
- 벚꽃 시즌(봄)에 편중된 극단적인 계절적 불균형
- 봄철 벚꽃 개화기에 벚나무를 비추는 임시 투광등과 상가 불빛이 어우러져 전국적인 야경 명소
- 그 외의 계절(여름~겨울)에는 수목이 어둠에 묻히고 특화된 조명 콘텐츠가 없어공간 야간 정체성이 급격히 사라지고 산책로가 단조로워지는 한계
- 야간체류 유도가 부족하며 관광형, 감성적 야간경관 콘텐츠 부족

권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Harmony	Network
지속가능한 빛	조화로운 빛	연결하는 빛

빛으로 흐르는 온천천의 사계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온천천 사계' 미디어 예술화 및 역사 자산 부각	시민 체감형 '안심·감성 보행 네트워크' 고도화	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라이트 조닝(Light Zoning)



■ 명소화권역 ○ 거점자원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부산대학교	- 아파트 단지 상층부 탑라이트 및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지양 - 필로티와 저층부 진입로 정온한 웜화이트(2700~3000K) 간접 조명 적용
오픈 스페이스	명륜1번가 온천천카페거리	- 가로변 쉼터 및 어린이공원 하부에 벤치 매립형 조명 배치 - 과도한 수목 투광 지양
사회 기반시설	동래역 등	-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의 고연색성 안심 보안등 설치 - 보행로 교량 연결 계단부 가독성 확보

상업지역

건축물	금정구청 동래구청	- 상가 간판의 크기·조도 가이드라인 적용(배면 간접 조명 유도) - 윈도 내부 유출광을 활용한 투명 가로 경관 형성(3500K~4000K)
오픈 스페이스	동래시장 온천천 어울마당	- 상권 전면 데크 및 소광장에 고보 조명 팝업 존 형성 - 보행 활성화를 위한 감성 조명 디자인 통합 연출

자연녹지, 수변지역

건축물	부산외국어 대학교 동래문화회관	- 친환경 저조도 스킨 및 건축 입면 매립형 간접광 연출 - 시설물 가독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도 적용
오픈 스페이스	동래읍성 북문광장	- 수목 직접 투광 지양 - 수림대 상부에서 하부로 비추는 문라이팅(Moonlighting) 기법 적용
사회 기반시설	구서IC	- 생태 보호 파장(Amber LED, 2200K 이하) 보안등 적용 - 수면 직접 투광을 방지하는 풀컷오프(Full Cut-off) 조명 기구 사용

명소화 방향

방향 1
지속가능, 연결

'온천천 사계'의 미디어 예술화 및 역사 자산 부각

온천천의 생태적 흐름과 동래 역사적 서사를 야간 미디어 콘텐츠로 융합하여독창적인 지역 정체성을 구축

A. 온천천 '벚꽃/유채꽃 글로우 파노라마

- 봄철 벚꽃길과 유채꽃 군락지에 특화된 컬러 연출용 LED 고보 조명을 배치하여, 야간에도 사계절의 색채가 극대화되는 경관을 연출

B. 동래 춤추는 '빛의 세병교' 미디어 쇼

- 역사적 거점 교량인 세병교 교각과 상판 측면에 미디어 파사드 도입하여 동래야류, 세병의 서사를 디지털 아트로 연출

**세병 : 임진왜란 등 큰 전쟁을 치른 후 피 묻은 무기를 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평화 기원 의미

C. 온천천 홀로그램 '워터 스크린

- 하천 중심부에 가동식 분수를 활용한 미디어 워터스크린을 설치, 물 위에 흐르는 부산의 역사 문화를 야간에 상시 상영

D. 역사문화 유산 링크 라이팅

- 온천천에서 동래부동헌, 수안역 역사관으로 이어지는 진입 동선에 통일된 야간 가이드 조명을 설치해 내륙 역사 구역과의 연계성을 확보






방향 2
조화, 연결

시민 체감형 '안심·감성 보행 네트워크' 고도화

유동인구 많은 하천변 산책로와 교량, 하부 음영 구역을 안전하면서도 시각적 즐거움 가득한 거점 공간 조성

A. 하천 옹벽 '어반 캔버스' 프로젝션

- 온천천 변의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을 야간 갤러리로 전환하여 보행자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 변하는 반응형 그래픽을 투사

B. 언더 브릿지 '빛의 쉼터' 조성

- 도시철도 교각 하부 및 하천 교량 밑 어두운 음영 구역에 간접 조명이 결합된 야외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아늑한 보행 쉼터를 제공

C. '은하수 물길' 보행 데크 유도등

- 온천천 보행 데크 난간 하부에 연속형 띠 LED를 매립한 산책로 조성으로 눈부심 없는 야간경관 조성

D. 인터랙티브 '스마트 징검다리'

- 보행자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마다 센서가 반응하여 발밑에 연꽃, 물고기 모양의 빛이 피어나는 야간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






방향 3
조화, 연결

생태계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라이트 조닝'

온천천 생태계를 보호하는 저자극 조명 배치, 온천천 카페거리 등 주변 상권과는 상생할 수 있는 야간 연출

A. 온천천 카페거리 '무드 밸런싱' 가이드

- 카페거리 전면 건축물의 원색적 투광을 지양하고, 실내에서 외부로 은은하게 확산되는 빛 중심으로 조명환경을 유도

B. 해양·수중 생태 보호 풀컷오프(Full Cut-off) 조명

- 하천의 수중 생태계와 야간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수면으로 직접 투광을 지양하고, 상향광 제로(0)인 차광형 등기구를 의무화

C. 온천천 주변 식재 업라이트 조명 정비

- 온천천 주변 식재를 보호하고 일률적인 조명 환경 조성을 위한 웜화이트 조명을 활용한 업라이팅 정비





4.3.12 동천권역

대상 구역

- 부산 도심을 관통하여 서면, 문현금융단지 및 북항을 연결하는 대표 도심하천으로 도시 주요 공간을 연결하는 수변축 역할 수행
- 동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산책·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 도시 공간과 연계 가능한 핵심 수변거점으로 기능

주요 거점

- 범4호교, 성서교, 무지개다리, 범5호교, 동천오작교, 범일교, 문현금융단지, 범일동 상권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교량과 동천로를 중심으로 야간경관조명이 조성되어 있으나, 구간별 조명 특성이 상이하여 연속적인 야간경관 형성에 한계
- 교량 및 수변 산책로 중심의 단편적인 조명으로 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야간경관의 연속성 부족
- 수변공간의 야간 이용 및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조명 콘텐츠가 부족하여 야간 활성화에 한계
- 주변 상업·업무시설 및 도로조명이 혼재되어 수변공간의 야간경관 특성이 미흡

권역 핵심 방향

Network	Harmony	Experience
연결하는 빛	조화로운 빛	경험하는 빛

도심의 활력과 자연의 쉼이 공존하는 수변 미디어 갤러리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동천의 기억을 담은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	시민의 일상을 위한 '안심·감성 보행 네트워크' 고도화	서면-문현-부산항을 잇는 수변 야간경관 연결축 구축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성동초등학교	- 아파트 단지 상층부 탑라이트 및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지양 - 필로티 및 저층부 진입로에 정온한 웜화이트(2700K) 간접 조명 적용
오픈 스페이스	동천문화공원	- 가로변 쉼터 및 어린이공원 하부에 벤치 매립형 조명 배치 - 과도한 수목 투광 지양
사회 기반시설	범일역 문현역	-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기반의 고연색성 안심 보안등 설치 - 보행로 교량 연결 계단부 가독성 확보

상업지역

건축물	한국은행 BIFC	- 상가 간판의 크기·조도 가이드라인 적용(배면 간접 조명 유도) - 윈도 내부 유출광을 활용한 투명 가로 경관 형성(3500K~4000K)
오픈 스페이스	범천동골드 테마거리	- 상권 전면 데크 및 소광장에 고보 조명 팝업 존 형성 - 보행 활성화를 위한 감성 스트링 라이트 디자인 통합 연출

자연녹지, 수변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 친환경 저조도 스킨 및 건축 입면 매립형 간접광 연출 - 시설물 가독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도 적용
오픈 스페이스	전포돌산공원	- 수목 직접 투광 지양 - 수림대 상부에서 하부로 비추는 문라이팅(Moonlighting) 기법 적용
사회 기반시설	범일교 성서교 등	- 생태 보호 파장(Amber LED, 2200K 이하) 보안등 적용 - 수면 직접 투광을 방지하는 풀컷오프(Full Cut-off) 조명 기구 사용

방향 1
조화

'동천의 기억'을 담은 야간경관 콘텐츠 구축

동천에 남아있는 지역의 역사와 장소적 기억을 빛으로 재해석하여 동천만의 야간 정체성을 구축

A. 무지개다리 '기억의 빛'

- 무지개다리 교량 및 수면 공간에 상징적 경관조명을 적용하여 동천 역사와 지역의 기억을 담은 야간 인지거점으로 연출

B. 동천 '생활문화 빛길' 구축

- 무지개다리~범일교 일대 상업공간과 인접한 보행공간에 고보조명 및 프로젝션을 적용하여 지역의 생활·문화 이야기를 야간 콘텐츠로 연출





방향 2
연결

시민의 일상을 위한 '안심·감성 보행 네트워크' 고도화

산책·러닝 등 시민의 일상적 이용이 활발한 동천 수변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공간으로 고도화

A. 동천 '빛의 보행 리듬' 구축

- 동천 수변 산책로의 러닝·산책 이용이 많은 구간의 주요 교차·휴게구간에 보행 유도조명을 보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이용환경 구축

B. 동천 교량 경관조명 통합 정비

- 기존에 개별적·산발적으로 설치된 보행로 경관조명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밝기·색온도·조명방식을 조정하고, 교량 간 연속성과 수변경관의 조화성을 확보





방향 3
경험

서면-문현-부산항을 잇는 수변 야간경관 연결축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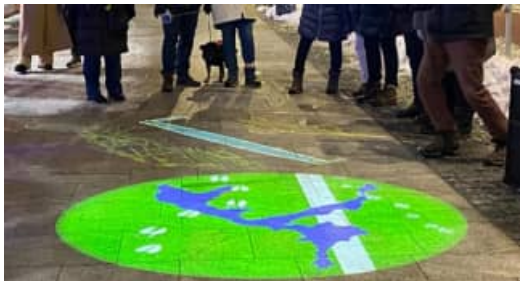
서면의 도심부터 문현 금융·업무공간, 부산항 수변공간까지 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야간경관 네트워크 구축

A. 동천 '빛의 루트' 안내체계 구축

- 서면-문현-부산항을 연결하는 주요 보행동선에 통일된 디자인의 방향 유도조명·바닥 그래픽·안내사인을 적용하여 주요 거점 간 야간 보행동선의 연결성 강화

B. 동천 수변 '야간경관 시퀀스' 구축

- 구역 내 도심·업무·수변의 공간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구간별 색온도·조도·조명 연출방식을 차별화하여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경관 시퀀스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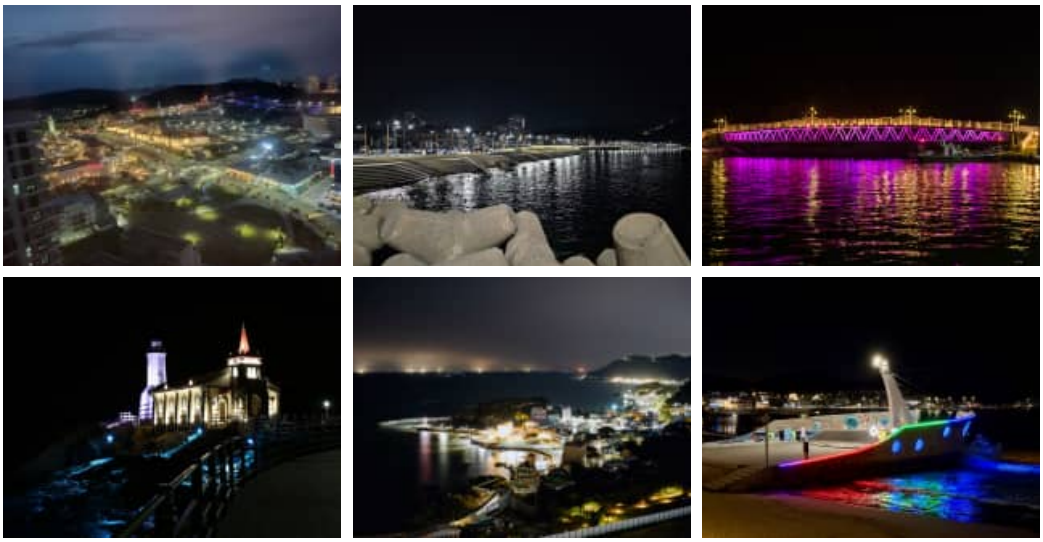

4.3.12 기장권역

대상 구역

- 천혜의 해안선과 어촌 마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단지(오시리아)가 공존
- 부산의 동북부 해안축으로, 천혜의 해안경관과 관광자원을 보유한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 권역
- 기장권역은 긴 해안선을 따라 점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간 기능에 따라 빛의 밀도와 성격이 극단적으로 대비

주요 거점

- 오시리아관광단지, 일광, 임랑, 대변항, 연화리, 죽성리, 해동용궁사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지가 점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 이동동선의 단절 및 야간 관광 루트 부재
- 롯데월드 어드벤처, 아울렛, 대형 리조트 등이 밀집한 기장 최대의 빛 응집 구역은 테마파크의 화려한 경관 조명과 리조트의 건축 조명이 거대한 '빛의 섬'을 형성
- 해안선을 따라 대형 오션뷰 카페와 식당들 다수 조성되어 있어 각 상업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화려한 파사드 조명과 테라스 조명을 밝히며 자생적 야간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공공 인프라보다는 민간 조명에 전적으로 의존
- 권역 전체의 야간경관 통일성이 부족하고 야간방문 동기 부족
- 일몰 이후 방문객이 감소하고 관광 매력도 저하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Harmony	Network
정체성의 빛	조화로운 빛	연결하는 빛

첨단 미디어의 파도와 태고의 바다가 교감하는 글로벌 빛의 관문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오시리아 메가 앵커의 '글로벌 디지털 페스티벌 시티' 구현	오시리아~해안선을 종단하는 '빛의 문화길' 구축	상권 활성화와 어업·해양 생태계 조화를 위한 '빛을 절제한 스마트 야간환경'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동암마을회관	- 옥상 구조물 및 아파트 브랜드 로고의 고휘도 라이팅 지양 - 필로티 및 주차장 진입부에 정온한 웜화이트(2700K) 간접 조명 적용
오픈 스페이스	대변항	- 단지 내 산책로 및 어린이공원에 눈부심 없는 볼라드 조명(Low-pole) 배치 - 과도한 수목 투광 지양
사회 기반시설	오시리아역	- 빛이 창문 내부로 침입(광공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광 가로등 설치 - 고연색성(Ra 80 이상) CPTED 안심 보안등 설치

상업지역

건축물	롯데월드 롯데아울렛	-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서 스케일감 있는 미디어 파사드 및 동적(Dynamic) 컬러 조명 권장 - 상가 간판의 입면 라인 조명 통합 및 글레어 프리를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투광
오픈 스페이스	동부산 관광단지	- 대형 광장 및 보행자 전용 도로 바닥에 무빙 라이트 및 고보 프로젝션 맵핑 연출 - 디지털 포토 스팟 및 스마트 정보 쉘터 구축

자연녹지, 해안지역

건축물	해동용궁사	-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형과 일체감을 주는 매립형 구조 조명 방식 적용 - 인공 구조물을 숨기고 자연과의 동화를 유도하는 조명
오픈 스페이스	오랑대 동암항 등	- 해안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해안 생태계를 고려하여, 과도한 직접 투광 및 원색 조명을 지양하고 자연 실루엣을 강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접 투사 방식 적용
사회 기반시설	국립수산 과학원	- 생태 보호 파장(Amber LED, 2200K 이하) 보안등 적용 - 수면 직접 투광을 방지하는 풀컷오프(Full Cut-off) 조명 기구 사용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조화

테마파크, 복합상업시설 입면과 광장 연계한 압도적인 스케일 미디어 랜드마크 구축, 야간 브랜드 인지도극대화

A. 오시리아 테마파크 '스카이 글로우 미디어 쇼'

- 테마파크 내부 상징 구조물과 유입 광장에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 및 싱크로 라이팅 쇼 도입

B. 복합 상업특구 '빛의 스트리트 갤러리'

- 대형 아울렛 및 쇼핑몰 건물 파사드를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정돈하고, 보행로 바닥에 인터랙티브 고보 맵핑을 적용해 '걷고 싶은 야간 쇼핑 거리'를 연출

C. 국립부산과학관 '디지털 키네틱 파사드'

- 건축물의 기하학적 형태를 활용해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미디어 아트를 연출, 가족 단위 야간 방문객을 위한 지적 촉매 공간을 마련

D. 공수·학리항 '어촌 스마트 등대 랜드마크'

- 관광단지와 인접한 어항 방파제 등대에 고해상도 LED 도트 '히든 파사드'를 결합해 기장의 역사와 문화를 동적으로 투사



방향 2
정체성, 연결

관광단지 인공적 빛과 연화리, 대변항, 오랑대 이어지는 해안 갈맷길 에코 조명 연결 야간 보행 네트워크 활성화

A. 오랑대 '오시리아 해안 산책로'

- 고급 리조트 단지에서 오랑대로 이어지는 갈맷길에 저휘도 볼라드 조명을 적용하여 산책로 기본 보행 안전조명으로 활용하고 해안경관을 고려한 쾌적한 야간 산책로 조성

B. 연화리 포장마차촌 '감성 라이트 밸런싱'

- 무분별한 알전구 조명을 정돈된 다운라이트 형태의 라탄/목재 펜던트 조명으로 통합하여 품격 있는 야간 미식 거리를 구축

C. 시랑대·오랑대 '태고의 어둠' 저자극 자연 프로젝션

- 기암괴석과 바위 절벽의 원형을 해치지 않는 은은한 환경의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야간에 기장의 신비로운 해안 실루엣을 강조

D. 동해선 연계 야간 네비게이션 가로 조명

- 오시리아역에서 테마파크 및 해안 상권으로 도보 이동하는 관광객을 위한 연속적 스마트 웨이파인딩 라인 조명을 설치





방향 3
조화

해안의 야간 조업과 수중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배광 제어 시스템 및 시간대별 디밍 시나리오 수립

A. 리조트 단지(아난티·롯데 등) '내침광 밸런싱'

- 대형 숙박시설의 과도한 외벽 직접 투광을 지양하고, 객실 통창에서 나오는 내부 유출광(내침광)과 조화를 이루는 따뜻하고 정온한(2700K) 간접 경관을 유도

B. 오시리아 인공 빛 제어 '스마트 타임 슬라이스(Time-Slicing)'

- 유동 인구가 급감하는 심야 시간대(23시 이후)에는 대형 상업 건축물과 테마파크의 미디어 라이팅을 100% 소등하고 필수 안심 보안등 체계로 전환

4.3.13 해운대권역

대상 구역

- 부산을 대표하는 국제관광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 중심지
-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동백섬, 마린시티, 미포, 달맞이길, 청사포,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까지 연결되는 해안 관광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산의 도시 브랜드와 야간경관 이미지를 대표하는 지역
- 자연경관(해변·해안절경)과 도시경관(고층 스카이라인)이 결합된 국내 유일 수준의 해양도시 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 수준의 야간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

주요 거점

-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마린시티, 동백섬, 더베이101, 달맞이길, 청사포,미포, 블루라인파크



현황 및 문제점

- 구남로는 보행가로 공간으로 호텔, 상업 시설의 초대형 전광판과 미디어 파사드가 밀집해 있으며, 버스킹 등 야간 문화 활동이 끊이지 않는 '빛 집중구역' 구역
- 특히 상가 간판, 공공 가로등, 그리고 거대한 민간 미디어 파사드가 혼재되고 무질서하게 충돌하여 쾌적한 활력이 아닌 시각적 피로도와 혼란을 가중시키는 '과잉의 공간' 인식
- 동백섬과 달맞이길은 산책로 외 구간 조명이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주변 상업·관광공간과 대비되는 어두운 야간경관이 나타남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Network	Harmony
정체성의 빛	연결하는 빛	조화로운 빛

마천루의 빛과 일렁이는 바다가 만드는 글로벌 럭셔리 스카이라인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초고층 마천루와 해안선을 연계한 '프리미엄 빛의 파노라마' 구축	해변 배후 보행축을 활성화하는 '인터랙티브 빛의 산책로' 조성	정온한 해양 여백 확보를 위한 '빛의 침범 통제(Anti-Glare Zoning)'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해운대두산위브 더 제니스 민간건축물	- 휘도 및 색온도 제어: 건축물 외벽 투광은 최대한 지양하고, 주동 진입부(로비)와 필로티 하부에 한해 2700~3000K 이하의 간접 조명 - 동 구조물(옥상 옥탑부) 및 브랜드 로고 조명은 단색(Warm White, 주거지 브랜드 고유색)으로 고정해야 하며, 심야 시간에는 점멸하거나 조도를 50% 이상 디밍(Dimming) 권장
오픈 스페이스	해리단길 구덕포항	- 어린이공원 및 단지 내 산책로는 눈부심을 유발하는 고가등이 아닌 낮은 볼라드 조명(Low-pole)을 배치 - 보행로 평균 조도는 10~15 Lux를 유지
사회 기반시설	해운대도서관	- 가로등 기둥에서 주거지 창문으로 직접 빛이 들어가는 것 방지하기 위해, 주거면 방향으로 풀컷오프(Full Cut-off)형 차광 갓 및 비대칭 배광 렌즈 권장

상업지역

건축물	그랜드조선 파크하얏트 엘시티더샵 등	- 고층 빌딩군의 스카이라인은 세련된 3500K~4000K(Neutral White)를 베이스로 설정, 저층부 상권 진입부는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3000K Gold/Warm White)로 레이어링하여 시각적 깊이감 조성 - 상업 시설의 돌출 간판 및 고휘도 전광판을 전면 정돈하고, 건축물 입면과 조화를 이루는 배면 간접 조명방식으로 품격 있는 야간 경관 조성
오픈 스페이스	부산영화의거리	- 대형 광장 및 보행자 전용 도로 바닥면에는 보행자의 움직임에 동적으로 반응하는 고보 프로젝션 맵핑(Gobo Mapping)특화 공간을 구축

자연녹지, 해안지역

건축물	누리마루 APTEC하우스	- 녹지 내 관리동, 공중화장실 등 필수 시설물은 건축물 외형을 숨기고 지형과 일체감을 주는 매립형 풋라이트(Foot-light) 방식을 적용. 조명 기구는 자연 석재, 목재 내부에 숨겨 주간 경관 훼손도 방지
오픈 스페이스	동백섬 아이파크공원	- 나무 하부에서 하늘로 강하게 투사하여 수목의 생장 저해 및 조류의 생태 리듬을 깨트리는 업라이팅(Up-lighting) 시간 제한
사회 기반시설	수영만매립지 방파제 부산해양경찰서	-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상향광 속성이 제로(0%)인 풀컷오프 배광 기구 사용, 강이나 바다 수면으로 빛이 직접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차광판을 장착 - 광원은 곤충 유입률 낮고 시각 자극이 가장 적은 앰버(Amber/호박색)색 LED만 일부 사용 권장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연결

개별 건축물의 경관 조명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 제어로 해운대만의 독보적인 랜드마크 스케일 시각화

A. 해운대 마천루 '글로벌 싱크로 미디어 쇼'

- 마린시티·엘시티 스카이라인의 주요 빌딩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시마다 부산의 파도를 모티프로 한 정제된 미디어 아트를 상시 연출하고 컨텐츠 개발 등을 위한 관련계획 수립

B. 해운대 백사장 '스마트 오션 레이저 맵핑'

- 야간 해수욕장 수면과 백사장 전면부 대형 고해상도 환경 프로젝터를 도입하여 밤바다와 어우러지는 몽환적인 '빛의 바다 캔버스'를 구현

C. 동백섬~미포 '호라이즌 라인 LED' 연출

- 백사장 배후 호안 도로 난간 전체에 실시간 동기화되는 지능형 연속 라인 조명을 설치하여 해안선의 시각적 연속성을 극대화

D. 해운대 이벤트 광장 '미디어 랜드마크 폴'

- 해운대의 역동적인 이벤트 연출을 위한 광장 주변 미디어 핸드마트 폴을 설치하여 주야간 다양한 연출환경을 구축하여 옥외광고물 특화구역의 장점을 강화



방향 2
연결

구남로에서 해운대 해변, 미포 철길(그린레일웨이)로 이어지는 보행 동선 인터랙티브 빛의 산책로 조성

A. 송림공원 '반딧불이 매직 포레스트' 연출

- 동백섬 진입부 송림공원의 소나무 수림대에 레이저 마이크로 도트 조명을 결합하여 밤하늘 은하수와 반딧불이가 숨 쉬는 듯한 신비로운 야간 숲길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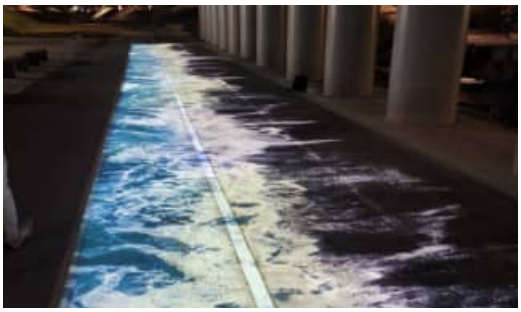
B. 구남로 '미디어 스트리트' 고도화

- 보행자 중심 가로인 구남로 바닥에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파동이 퍼지거나 모래사장의 자연스러운 질감이 표현되는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맵핑을 확대 적용

C. 미포 그린레일웨이 '빛의 레일 갤러리'

- 폐선부지 산책로를 따라 은은한 전구색 풋라이트를 매립하고, 터널 및 옹벽 구간에는 해운대의 역사와 자연을 담은 고보 프로젝션 및 홀로그램 갤러리를 구축





방향 3
조화

주거·숙박시설의 과도한 내부 유출광과 직사광을 억제하고, 해수욕장과 생태계에 유입되는 빛을 철저히 차단

A. 주거·숙박 밀집구역 '내침광 및 글레어 스크리닝'

- 초고층 리조트 및 주상복합 건물의 통창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출광을 완벽히 정돈하기 위해, 커튼월 배면 간접 조명 가이드를 제시하고 정온한 색온도(2700K~3000K) 체계로 통합

B. 해양 생태계 보호 풀컷오프(Full Cut-off) 조명

- 해변 가로등 및 보안등에 상향광과 바다 전면부 유출광을 완벽히 차단하는 차광판을 의무 도입하여 해양 수중 생태 보호 및 빛 공해를 방지

C. 동백섬 생태 보존 '다크 스카이(Dark Sky) 조닝

- 동백섬 내부 산책로는 인공 조명을 극한으로 배제하고 2200K 이하의 친환경 앰버(Amber) 파장 조명만 사용하여 야간 조류 및 식물의 생태 리듬을 보호

4.3.14 광안리권역

대상 구역

-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해변 야경 명소. 특히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야간 스카이라인은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상징하는 핵심 경관자산
- 광안리해변, 광안대교, 민락수변공원, 수영강 하구, 해양레포츠시설, 카페거리 등이 집약된 부산 최대 야간관광 공간
- 드론쇼, 미디어콘텐츠, 야간축제 등이 활성화되면서 부산 야간관광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의 해양 야간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야간경관 체계 구축이 필요

주요 거점

-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광안대교, 밀락더마켓



현황 및 문제점

- 초대형 랜드마크로 최근 경관조명 개선 사업을 통해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와 다양한 색온도 연출이 가능해졌으며, 광안리 밤바다를 거대한 '빛의 캔버스'로 조성
- 매주 M드론라이트쇼가 열리며, 수많은 버스킹과 거리 예술이 펼쳐지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 밤바다를 바라보는 '관람석'의 역할과 동시에 시민들이 야간 문화를 소비하는 '무대'의 역할
- 드론쇼가 없는 평일이나 쇼가 끝난 심야 시간대에는 백사장이나 테마거리를 걷는 보행자의 발 끝, 눈높이에서 상호작용하는 아기자기하고 세밀한 야간 특화 요소가 부족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Harmony	Experience
정체성의 빛	조화로운 빛	경험하는 빛

광안대교와 호흡하는 빛의 광장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광안대교-백사장-상권을 엮는 '지능형 미디어 경관' 고도화	글로벌 수변 문화 쉼터 중심의 '체험형 빛의 공간' 조성	정온한 해양 여백 확보를 위한 '빛의 침범 관리구역' 설정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밀락더마켓	- 광안대교 조명 쇼가 끝나는 밤 23시 이후에는 배면 주거지 유입 가로의 모든 연출 조명을 동시에 소등하는 '싱크로 오프(Synchro-Off)' 시스템 적용 - 주거지 진입 골목길에는 빛 공해를 차단하는 비대칭 배광 렌즈가 탑재된 '고연색성 안심 보안등(Ra 85 이상, 2700K)' 설치해 보행 안전 확보
오픈 스페이스	민락동 횟집거리	- 단지 내 소공원 및 가로변 쉼터에 볼라드 조명(Low-pole) 배치 - 과도한 가로수 조명 지양
사회 기반시설	금련산역	- 고연색성(Ra 80 이상) CPTED 안심 보안등 설치 - 가로등 배면에 주거지 방면 빛 침입 차단 가림막 설치 권장

상업지역

건축물	어댑터씨어터 포디움다이브 등	-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고층부 경관 조명 및 동적 미디어 파사드 제한적 허용 - 상가 쇼윈도 내부 유출광을 적극 활용하며 세련된 화이트·골드 톤 통합 (3000K~4000K)
오픈 스페이스	광안리카페거리	- 상권 전면 데크 및 소광장 바닥에 무빙 라이트 및 고보 프로젝션 매핑 연출
사회 기반시설	광안역 남천역	- 미디어 스크린, 무선 충전, 환경 센서가 결합된 통합 스마트 폴 권장 - 교차로 및 교통섬 시인성 강화 조명

자연녹지, 해안지역

건축물	해상문화공연장	- 구조물 노출을 최소화하고 지형과 일체감을 주는 매립형 구조 조명 방식 적용 - 인공 구조물을 숨기고 자연과의 동화를 유도하는 저조도 스킨
오픈 스페이스	광안리해수욕장	- 수변공원 글로우 시네마틱 연출
사회 기반시설	광안대교	- 해양 생태계 보호 파장(Amber LED, 2200K 이하) 보안등 적용 - 백사장 및 수면 직접 투광을 완벽히 차단하는 풀컷오프 등기구 의무화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광안대교와 연동하여 백사장의 가로등, 상가 전면부 조도·색상 실시간으로 통합 제어 유기적 야간 정체성 창출

A. 광안리 '빛의 해안선' 싱크로 라이팅

- 광안대교의 LED 조명 연출 마스터 신호와 백사장 배후 1.2km 구간의 특화 가로등 및 호안 난간 조명을 실시간 연동하여 파도의 움직임을 연출

B. 미방향성 '시네마틱 미디어 스킨' 통합 연출

- 민락동 관리동 및 공공 구조물 외벽에 광안대교 실루엣을 모티프로 한 미디어 스킨(히든 파사드)을 도입

C. SUP 존 중심의 '글로우 스카이 드론 라이팅 게이트'

- 상설 드론 쇼 전용 관람 구역인 생활체육(SUP) 존 주변에 하이테크 디자인의 스마트 폴 연출을 더해 드론 쇼의 시각적 몰입감을 배가

D. 광안 해변로 '모노톤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 해변 전면 상업 빌딩의 고층부 경관 조명을 정제된 화이트/골드 톤으로 통합하여 화려하면서 무분별하지 않은 스카이라인을 유도





방향 2
경험

민락수변공원의 빛 연출 공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빛의 연출에 직접 참여하는 야간 경험 확대

A. 민락수변공원 '몰입형 빛 연출(Glow Cinematic)' 스탠드 시팅

- 수변공원의 계단식 콘크리트 스탠드 측면에 고해상도 고보 프로젝션을 적용하여 바닥이 파도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팅 미디어'를 연출

B. 백사장 내 '인터랙티브 파동 스팟'

- 보행자의 위치와 걸음걸이를 인식해 백사장 모래 위에 빛의 파동이나 물고기 떼가 피어나는 스마트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존을 상시 운영

C. 해변 스마트 쉼터 및 '선셋 웨이브 벤치(Sunset Wave Bench)'

- 일몰 모티프 조명이 내장된 가구와 CPTED 기반 안심 비상벨이 결합된 스마트 쉘터 주요 조망점 배치

D. 버스킹 전용 '앰비언트 미디어 스테이지'

- 버스킹 구역 바닥에 연출용 무대 고보 라이팅을 고정 배치하여 거리 공연의 시각적 퀄리티를 높이고 정돈된 공연 문화를 유도



방향 3
조화

수변과 배후 상권을 잇는 '내륙 연계형 빛의 축' 형성

A. 해변 상권 간판 '배면 간접 조명' 의무화

- 민락수변 상가 및 카페거리의 무분별하고 자극적인 가로형 간판을 정돈하고, 배면광 중심의 정갈한 톤앤매너를 도입

B. 테마 보행로 조성을 통한 동선 유도

- 해변에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주요 결절점과 보행로에 각 공간의 장소성을 반영한 특화 조명을 설치
- 빛이 도심으로 스며드는 듯한 조명 연출로 방문객의 발걸음 유도

C. 골목길 사이의 뷰 코리더(View Corridor) 발굴

-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을 통해 광안대교나 바다가 조망되는 틈새 시점(Viewpoint)을 발굴
- 해당 구간의 바닥이나 벽면에 프레임 형태의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은밀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포토 스팟으로 랜드마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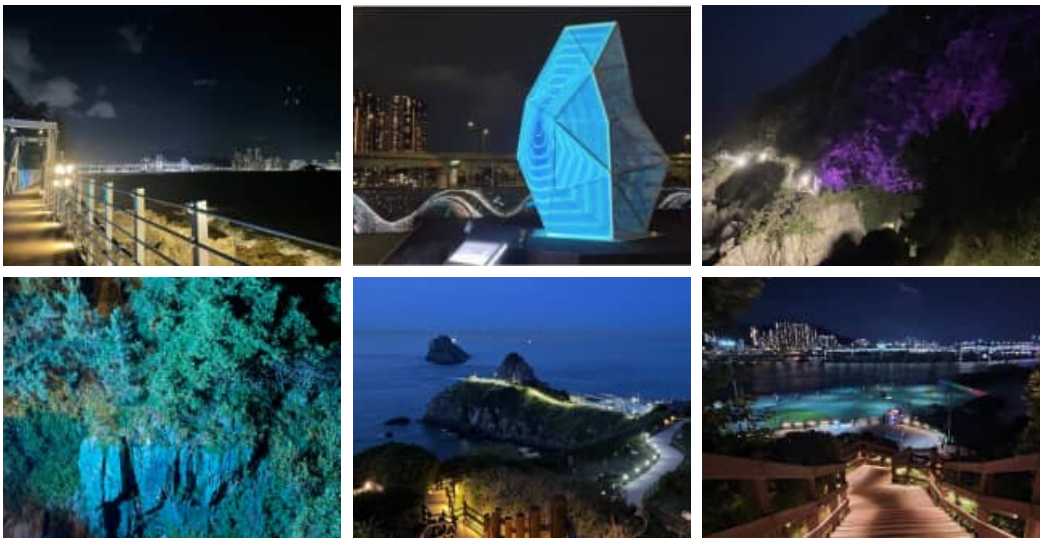
4.3.15 용호해안권역

대상 구역

- 부산의 화려한 도심(해운대, 광안리)을 가장 완벽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산 야경의 프라이빗 발코니'이자, 거대한 해안 절경을 품은 생태 거점
- 용호해안권역은 평탄한 매립지(주거/상업)에서 시작해 험준한 해안 기암절벽(이기대)을 거쳐 바다 끝 섬(오륙도)으로 이어지는 다이나믹한 지형 변화를 지니며, 구역별 빛의 밀도 차이 발생

주요 거점

-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용호별빛공원, 이기대 해안산책로, 오륙도 스카이워크, 해맞이 공원



현황 및 문제점

- 용호해안권역의 '보는 야경(해운대 방면)'은 매우 우수하나, 대상지 자체의야간 인프라는 '극단적 명암의 대비'와 '야간 보행 안전성의 결여'라는 한계점
- 용호만 일대의 초고층 주거·상업 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생활광과 상업 조명과 이기대의 어둠과 극단적으로 대비
- 일몰 후에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오륙도의 실루엣을 감상할 수 있는 조명이나, 해맞이공원 언덕을 활용한 감성적인 야간 산책 콘텐츠가 없어 방문객저하. 화려한 도심과 대비되는 '차분하고 신비로운 밤바다'라는 고유의 정체성 구축 필요

권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Harmony	Experience
지속가능한 빛	조화로운 빛	경험하는 빛

빛과 해안이 조화되는 빛의 그라데이션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오륙도·이기대 지형을 활용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빛 연출'	용호유람선터미널~이기대를 잇는 '체험형 바다빛 문화길' 조성	초고층 주거지와 생태계 상생을 위한 '어둠 보존구역' 조성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 옥탑 경관등은 파스텔톤이나 동적 연출을 지양하고 오직 3000K 이하의 정온한 단색 모노톤으로 연출하며, 오륙도 등대 및 이기대 야간 생태계 조류 시야 방해를 막기 위해 밤 22시 이후에는 100% 소등 권장
오픈 스페이스	용호별빛공원 용호시장	- 단지 주변의 거친 해풍을 막는 수림대에는 나무를 직접 비추는 스포트라이트 지양 - 산책로 바닥면에 '벽면 하향식 슬롯등'을 설치해 나무의 거친 가지가 보행로에 장엄한 그림자 패턴으로 드리워지게 하는 저조도 감성 연출 적용

상업지역

건축물	W스퀘어	- 용호만 전면 상가의 과도한 고휘도 네온 간판을 지양 - 상가 유리창 내부 조명을 3000K(골드 화이트)로 일원화하여 매장 안의 따뜻한 빛이 자연스럽게 용호만 부두 가로로 배어 나오는 '자연 내침광 가이드' 적용 - 외부 간판은 건축 구조물 틈새에 숨긴 '라인 이중 배면 간접등(Halo Light)'으로 정돈
오픈 스페이스	용호만매립부두	- 보행 데크와 안벽(콘크리트 제방) 하부에 '수평형 비대칭 LED리니어 등기구'를 하향으로 매립 - 빛이 수면을 스치듯 투사되게 하여, 용호만 바닷물의 일렁임이 안벽 콘크리트의 벽면에 거대한 미디어 아트처럼 자연 역반사되도록 연출

자연녹지, 해안지역

건축물	남구국민 체육센터	- 이기대 갈맷길 내부 잔존하는 옛 군사 초소, 콘크리트 옹벽, 섭자리 방파제 등은 인공적인 투광을 지양 - 구조물의 노출을 막기 위해 암석과 유사한 톤의 '암석 매립형 로우 볼라드(2000K 앰버, 상향광 0%)'를 배치하여 주간에는 조명 기구가 보이지 않고, 야간에는 오직 시민의 발밑 보행 안전 조도 확보
오픈 스페이스	오륙도 해맞이공원	- 이기대 수림대의 50% 이상을 가로등이 아예 없는 '절대 암흑 구역(Dark Core)'으로 지정하여 생태계를 보존 - 개방된 해안 데크 산책로 역시 인공 폴(Pole)가로등 세우는 것을 엄격히 지양하며, 난간 하부 손잡이 레일에 숨겨진 '선형 다운라이트'와 바닥면의 '태양광 야간발광소재(축광석) 스크립트'로 동선을 유도
사회 기반시설	오륙도 스카이워크	- 백운포 및 오륙도 스카이워크 주변의 필수 가로등은 야간 조업 선박의 시야 확보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 전면부로 나가는 빛을 차단하는 '비대칭 배광 후드(Full Cut-off Shield)' 장착 권장 - 광원은 수중 생태 자극을 최소화하는 '1800K~2000K 천연 앰버 LED'를 적용

명소화 방향

방향 1
지속가능, 조화

인위적인 다채색 투광을 전면 배제, 달빛을 모티프로 기암괴석과 섬의 해안 실루엣 저조도 경관을 구축

A. 오륙도 '달빛 스민 스카이워크' 연출

- 오륙도 상공으로 뻗은 스카이워크 구조물 하부에 투명 미디어 글라스와 2500K웜화이트 간접 라인을 매립하여 바다 위에 떠 있는 빛의 가이드라인을 연출

B. 이기대 동굴 및 해안 절벽 '실루엣 워싱(Washing)'

- 기암괴석에 빛을 직접 쏘는 것을 지양하고, 절벽 배면과 측면에서 은은하게 씻어내리듯 비추는 저휘도 투광 기법으로 고유의 지형미를 강조

C. 용호만 관문 '오션 가이드 바닥 고보 라이팅'

- 광안리 방향에서 용호동으로 진입하는 해안 도로변에 용호해안의 파도 패턴을 시각화한 모노톤 고보 조명을 연속 투사

D. 섭자리항 '어촌 감성 히든 파사드'

- 소박한 선착장인 섭자리 어촌계 구조물 옹벽에 LED미디어 도트를 숨겨 야간에 기장의 멸치나 수영강의 파도와 대조되는 '잔잔한 바다의 서사'를 빛으로 표현



방향 2
경험

수변공간의 빛 연출 공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빛의 연출에 직접 참여하는 야간 경험 확대

A. 이기대 갈맷길 '은하수 에코 산책로'

- 이기대 해안 산책로 바닥면에 주간 태양광을 흡수해 밤에 스스로 미약한 은빛을 내는 친환경 야간발광 소재를 활용, 가로등 폴 없이 눈부심 제로의 감성 숲길 조성

B.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글로우 마리나 데크'

- 크루즈 탑승 보행 데크를 따라서 수면 리플렉션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리니어 LED를 설치하여 수상 관광 거점의 연속성을 확보

C. 해안 조망 거점 '선셋 테라피 쉘터' 배치

- 해운대·광안대교 마천루를 역방향으로 조망하는 뷰포인트마다 CPTED 기반의 안심 비상벨과 디밍 센서 벤치가 결합된 저조도 스마트 쉼터를 구축

D. 동생말 보행교 '인터랙티브 파동 라이팅'

- 이기대 진입부 동생말 다리를 건너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에 맞춰 빛의 파동이 부드럽게 번져나가는 센서형 라이팅을 도입





방향 3
조화

천혜의 자연경관과 도심 워터프런트를 고려한 빛의 밸런스

A. 해양 생태 보존 '이기대 다크 코어(Dark Core)' 지정

- 이기대 핵심 수림대의 40%를 '완전 무조명 구역'으로 설정하여 야간 조류 및 식물 생태 리듬을 보호

B. 심야 시간대 '스마트 세이프티 디밍(Dimming)' 관제

- 유동 인구가 급감하는 심야 시간(23시 이후)에는 용호만 일대의 모든 경관 연출 조명을 소등하고 필수 안심 보안등의 조도를 50% 감쇄

4.3.16 북항권역

대상 구역

- 과거 부산의 수출입을 담당해 온 국가 주요 항만에서 시민과 세계를 향해 열린 글로벌 해양·문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공간
- 북항은 바다(수변), 거대 인프라(항만·교량), 그리고 육지(원도심)가 만나는 결절점(Node)
- 부산항, 원도심, 영도, 남항, 부산역을 연결하는 핵심 결절점으로서, 해양도시 부산의 역사와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

주요 거점

- 북항친수공원, 부산항대교, 부산역, 오페라하우스, 국제여객터미널



현황 및 문제점

- 수로와 산책로, 교량으로 조성. 주간에는 훌륭한 오픈스페이스이나, 야간에는 일정한 조도의 보안등 위주로 켜져 있어 아직 '북항만의 감성' 부족
-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는 완공 시 북항의 강력한 랜드마크. 국제여객터미널은 거대한 규모감으로 수변의 웅장한 배경광 역할
- 영도와 남구를 잇는 대형 교량으로 현재 다채로운 색상의 LED미디어 조명을 송출하며 북항 친수공원 어디서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력한 원경(Background) 요소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Harmony	Experience
정체성의 빛	조화로운 빛	경험하는 빛

미래를 비추는 빛의 항해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유기적 연결 축, 빛의 거리	미래적 랜드마크, 미디어 스카이라인	감성적 수변 경관, 수면과 도시빛의 조화



■ 신규 명소화권역 ○ 거점자원

요소별 연출방안

상업·업무지역

건축물	부산롯데타워 롯데백화점	- 고해상도 미디어 파사드와 수직 선형 조명을 통해 첨단 도심 이미지 강조 - 건물의 최상층부(옥상)에 수직 지향성 빔 라이트나 선형 조명을 설치하여 도심 어디서나 북항을 인지할 수 있는 상징적 빛의 조형물 형성
오픈 스페이스	차이나타운	- 보행자의 발걸음이나 스마트폰 신호에 반응하여 바닥 조명 패턴이 변하는 참여형 광장을 조성 - 낮에는 거울처럼 주변을 반사하고 밤에는 스스로 발광하는 키네틱 아트 조형물을 배치하여 포토존 역할을 수행
사회 기반시설	영도대교 부산대교	- 가로등 하단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하여 주변 상권 정보와 실시간 교통 정보를 빛의 그래픽으로 제공 - 도로변이나 단차 구간의 옹벽에 입체적인 레이어 조명을 설치하여 '거대한 야간 갤러리'를 구현

녹지·친수구역

건축물	부산북항마리나	- 친수공원 내 카페나 안내센터 등 소규모 건축물은 건물의 형태만 은은하게 드러나도록 따뜻한 전구색(2700K~3000K) 간접 조명을 적용 - 건축물의 유리면을 통해 내부의 온기가 밖으로 새어 나오게 유도하여 인위적인 투광 없이도 아늑한 야간 풍경 구현
오픈 스페이스	부산항북항 친수공원	- 나무 높은 곳에 조명을 설치하여 나뭇잎 사이로 달빛이 쏟아지는 듯한 서정적인 그림자 패턴을 바닥에 형성 - 해안 산책로 데크 하부에 은은한 푸른색 라인 조명을 매립하여 밤이 되면 바다위에 보행로가 떠 있는 듯한 플로팅 효과를 연출
사회 기반시설	부산세관 부산중부경찰서	- 벤치 아래에 매립 조명을 설치하여 바닥면 조도를 확보함으로써 눈부심 없는 안전한 휴식 환경을 제공

문화·레저지역

건축물	부산오페라 하우스	- 건물의 유선형 외벽을 따라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점점 부드러워지는 그라데이션 조명을 적용하여 우아한 광택을 시각화 - 요트 돛을 형상화한 건축 구조물에 투광 조명 쏘아 올려 랜드마크적 인지성 확보
오픈 스페이스	부산역광장	- 바닷물을 이용한 분수에 레이저와 영상을 투사하여 관객들에게 몰입감 있는 야간 공연 콘텐츠를 제공 - 야외 전시 공간 조각 작품마다 고유의 질감과 형태 부각하는 전용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여 야간 야외 미술관을 조성
사회 기반시설	오륙도방파제	- 요트가정박하거나이동할때파동에맞추어조명컬러가변하는인터랙티브 볼라드를 설치 - 수변 난간에 저해상도 LED 바를 내장하여 파도의 움직임이나 음악에 맞춰 빛의 파형을 시각화

교통·여객지역

건축물	부산역 부산국제 여객터미널	- 터미널 지붕 끝단에 라인 조명을 설치하여 입항하는 배들에게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 -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처음 마주하는 건물 후면에 역동적인 라이팅 그래픽을 연출하여 북항으로의 진입을 유도
오픈 스페이스	크루즈부두 감만부두	- 여객터미널과 부산역 광장에 대형 미디어 폴과 환영 고보 조명 설치하여 글로벌 관문의 역활 - 터미널 진입로 주변 교통섬에 부산을 상징하는 빛 조형물 배치
사회 기반시설	부산항대교	- 부산역과 북항을 잇는 공중 보행교 내부에 컬러 테마를 적용하여 이동하는 동안 기대감을 높이는 '빛의 전이 공간'으로 연출 - 대기 공간에 온도나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 컬러가 변하는 경관 조명을 결합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

명소화 방향

방향 1
경험, 조화

부산역에서 친수공원, 오페라하우스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는 보행 중심의 빛의 동선 구축

A. 환영의 의미와 동선유도가 가능한 라이트 로드 조성

- 부산역-북항 보행교 내부를 투명 LED와 센서를 활용해 걷는 속도에 맞춰 빛이 흐르는 인터랙티브 구간 조성
- 보행로 바닥에 목적지별(오페라하우스, 터미널 등) 컬러 코드를 적용한 라인 조명을 매립하여 직관적 길 찾기 지원
- 부산역 후면 광장에 대형 미디어 폴을 설치하여 북항으로 진입하는 방문객에게 환영 메시지와 함께 아트워크 송출
- 공원 내 눈부심을 최소화하고 바닥면 조도를 확보하는 낮은 높이 디자인 볼라드 조명 전면 배치




방향 2
정체성

오페라하우스, 마리나 등 혁신적 건축물들의 야간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합된 미디어 콘텐츠로 조율

A. 주요 거점별 빛의 포인트 조성

- 오페라하우스 '빛 스킨': 건축물 외벽 곡면을 따라서 은은한 색 조명을 연출하고, 공연 정보와 연계된 예술적 미디어 파사드 운영
- 북항 마리나 '요트 마스트 라이팅': 마리나 계류장 요트들의 마스트 라인을 시각화하거나 수변에 반응하는 포인트 조명 설치
- 국제여객터미널 지붕 곡선과 외벽을 활용해 부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징적 라이팅 그래픽 연출
- 권역 내 주요 건물의 조명을 한곳에서 제어하여 정시마다 펼쳐지는 '북항 라이팅 쇼' 연출




4.3.17 영도항구권역

대상 구역

- 부산 근대 산업의 심장부이자, 바다를 곁에 두고 치열하게 살아온 시민들의 삶의 궤적이 가장 짙게 남아 있는 곳
- 대한민국 근대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부산 원도심 해양문화권역
- 항만·조선산업·근대역사·생활문화가 집적된 부산만의 고유한 해양문화자산을 보유한 지역

주요 거점

- 영도다리, 부산대교, 깡깡이마을, 영도물양장, 흰여울 마을, 해양박물관, 태종대








현황 및 문제점

- 깡깡이예술마을과 물양장 일대는 영도만의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지닌 곳이나,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골목과 수변이 어두움
- 거대한 선박과 녹슨 기계설비들이 빚어내는 거친 환경 속에서 빛이 소멸하다 보니, 보행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야간 관광(Night-time Economy) 동선 연계 미흡
- 흰여울마을은 절벽이라는 위험한 지형 특성상 방문객의 추락 및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조도를 높여야 하지만, 골목 폭이 좁아 가로등 빛이 주민들의 창문으로 고스란히 쏟아지는 광침해가 발생. 주거권 보장과 야간 관광객의 안전 문제 발생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Harmony	Experience
정체성의 빛	조화로운 빛	경험하는 빛

영도의 주요 거점들의 특성 반영 및 방향강화

방향 01

거점의 특성을 반영한 Zone 설정으로 명소화 사업의 실행력 및 경쟁력 강화



■ 신규 명소화권역 ○ 거점자원

요소별 연출방안

일반주거, 전용주거, 준주거지역

건축물	영도구청 국립해양박물관	- 원도심의 시간성과 생활성이 드러나는 절제된 입면 조명 연출 - 저층부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보행 친화적 건축 빛 환경 조성 - 과도한 장식조명 지양, 색온도·휘도 관리 기반 생활밀착형 조명체계 확립
오픈 스페이스	아미르공원 흰여울문화마을	- 지형을 따라 흐르는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리듬감 있는 조명 배치 - 방향성 있는 조명을 통해 공간의 흐름과 연결성 강화 - 과도한 밝기와 색채를 지양하고 저조도·간접조명 중심으로 구성 - 바다, 하늘, 절벽 등 자연 요소를 보조적으로 드러내는 조명 구성 - 색온도는 따뜻한 계열을 중심으로 통일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 형성




상업지역, 준공업, 공업지역

건축물	아르떼뮤지엄 부산국제 크루즈터미널	-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외관 강조 - 상업시설은 활력 있는 파사드조명 및 간접조명, 공업시설은 기능 강조형 최소 조명 - 간판, 출입구, 코어 부분 등 주요 기능부 강조
오픈 스페이스	깡깡이마을 영도문화의거리	- 바다 수변 환경의 보전 · 활용과 창출에 의한 야간경관의 형성 - 문화마을, 예술마을 등 야간의 이용을 촉진하는 영도의 개성과 조화로운 매력적인 거리 및 야간경관의 형성
도시 기반시설	흰여울전망대 태종대전망대	- 도시의 품격을 살려주는 야간의 형성 - 사람들의 교류와 활기찬 야간경관의 형성
빛의 이벤트 미디어파사드	남항시장 영도대교 유라리광장	- 단순 미관 연출을 넘어 도시의 성격과 활동을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 - 공공성과 상업성, 산업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미디어 기반 경관 체계 구축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산업 유산의 재해석 & 역동적인 예술의 빛

깡깡이마을의 다양한 사업 구조물을 활용한 역사와 문화의 야간경관 조성

A. 산업 구조물 라이팅 아트

- 조선소의 크레인, 도크 등 거대 산업 시설물을 예술 작품화 : 선박과 구조물 컬러 키네틱 조명(Color Kinetic Lighting) 설치로 역동적 빛의 쇼 연출

B. 깡깡이 사운드스케이프 연계

- 마을의 역사적 소리(깡깡이)를 빛과 결합한 스토리텔링으로 재해석 : 특정 공간 깡깡이 소리와 연동한 조명 시스템 (Sound-Reactive Lighting) 설치, 체험 제공

C. 영도대교, 부산대교 라이팅 및 미디어아트

- 역사적 가치가 높고 영도를 대표하는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빛의 거점 조성 :
  영도대교의 야간 도개 시, 교량 바닥면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연출







방향 2
조화, 경험

감성적인 삶의 풍경 & 바다가 보이는 은은한 빛

흰여울마을의 거주민, 방문객이 함께 살아가는 감성적인 삶의 품경 연출

A. '생활 배려형' 저광도 조명 도입

- 주민의 수면 및 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안전하고 은은한 야간 환경 조성 : 골목길/계단 색온도 2700K 이하 전구색 간접 조명 설치, 조명 설치 위치 낮춰 빛 공해 최소

B. 해안 산책로 테마 라이팅

- 절영 해안 산책로를 활용하여 바다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경험 제공 : 해안 터널 내부에 푸른색 또는 바다 물결 패턴 라이팅 활용 이색적이고 안전한 야간 통행로 조성

방향 3
정체성

미래 해양 문명 & 빛의 파노라마

해안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간과 박물관을 활용한 빛의 공간 연출

A.디지털 워터프론트 구축

- 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캔버스 구현 : 박물관 외벽에 고해상도 미디어 파사드 설치 해양 생태, 해양 에너지 등 교육적/예술적 콘텐츠 정기 상영

B. '빛의 물결' 체험 동선 조성

- 박물관과 아미르공원을 잇는 청량하고 통일된 야간 보행로 마련 : 광장 및 산책로 바닥 광섬유 또는 LED 바닥 조명 설치하여 유기적인 물결 패턴을 연출

C. 주말 야간 콘텐츠 연계

- 야간 경관과 결합된 체류형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 유도 : 주말 저녁 워터 스크린 & 레이저 쇼 (Water Screen & Laser Show)를 정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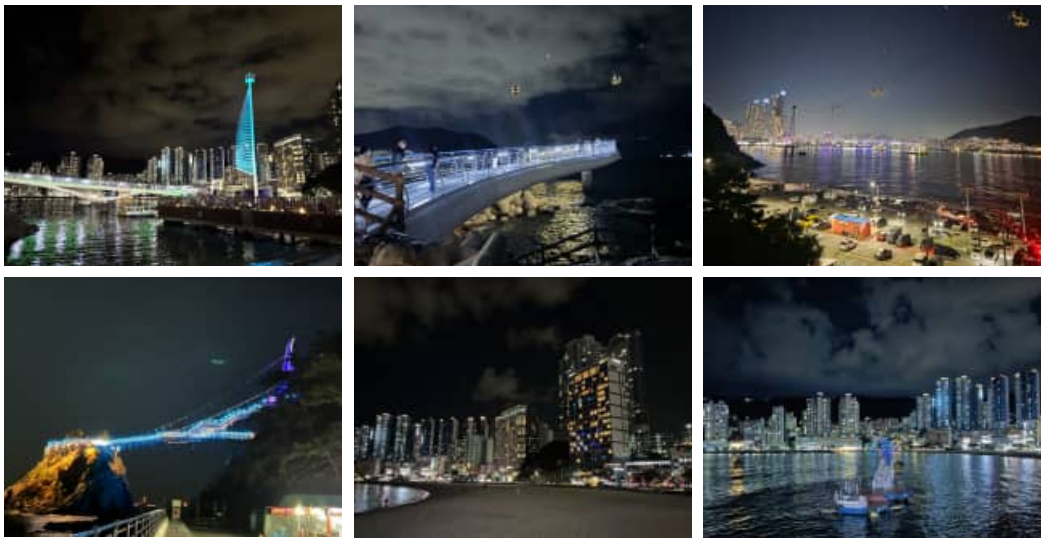
4.3.18 송도해안권역

대상 구역

- 대한민국 제1호 공설해수욕장이라는 독보적인 역사적 상징성과 함께, 해상케이블카·구름산책로 등 현대적 해상 인프라, 그리고 암남공원의 천혜의 절경이 입체적으로 맞물린 장소
- 송도는 해안절경, 섬 경관, 케이블카, 공원, 해수욕장이 결합된 입체적 해양관광지라는 차별성
- 남항과 북항, 영도, 오륙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부산 최고의 파노라마 해안경관을 보유

주요 거점

- 송도해수욕장, 송도해변광장, 구름산책로, 해상케이블카, 송도용궁구름다리, 암남공원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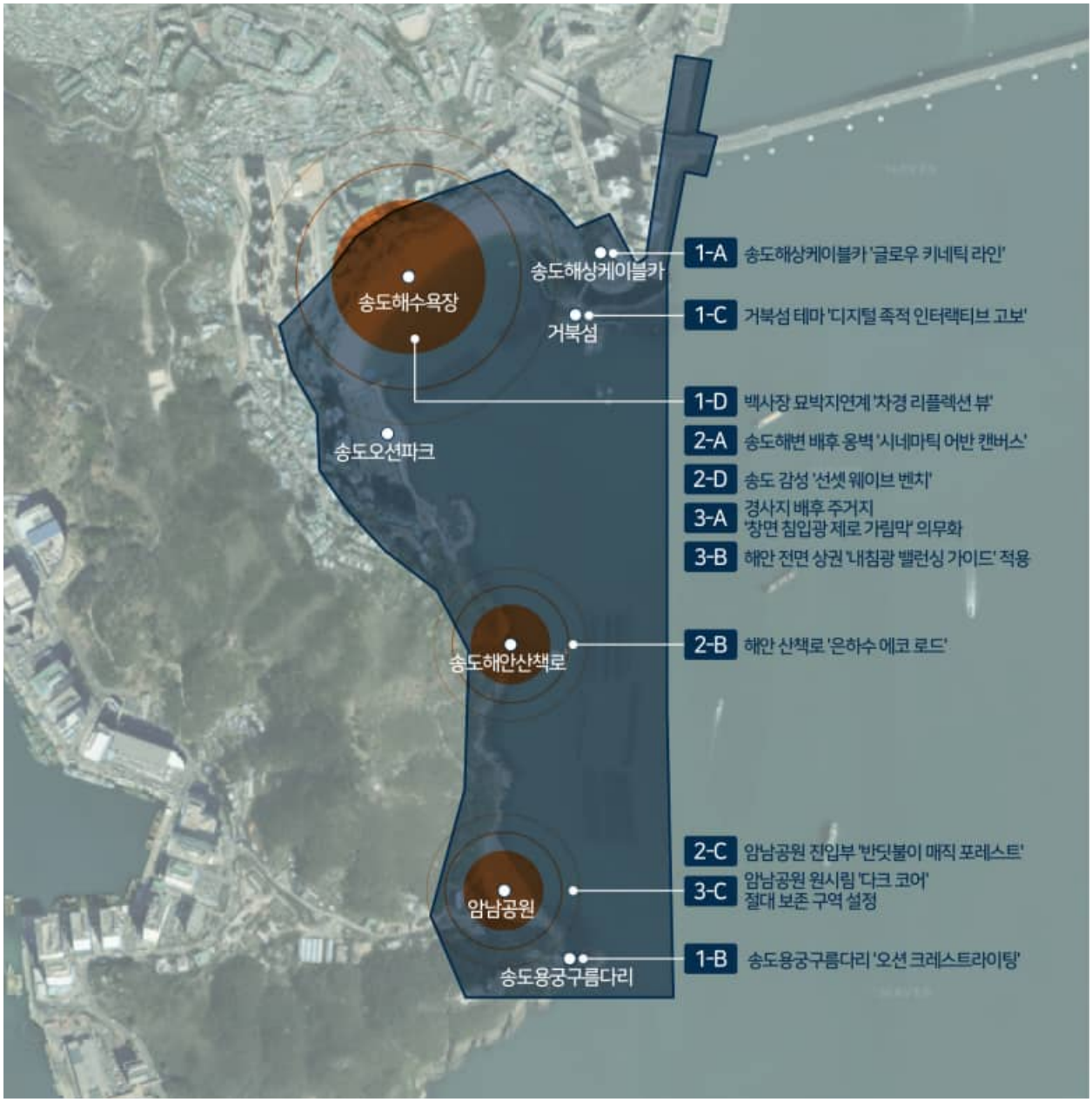
- 해변을 따라 상업 시설과 최근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어 권역 내에서 조도가 가장 높은 구역. 백사장 전면을 비추는 공공 투광등과 민간의 생활·상업 조명이 결합하여 매우 밝은 야간 환경을 형성
-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동적·선형적 빛의 요소입니다. 구름산책로는 보행자 눈높이의 경관 조명으로 아늑한 야간 보행 환경을 제공하며, 해상케이블카는 밤하늘을 수놓는 움직이는 빛의 점이자 수직적 시각 표지물로 기능

권역 핵심 방향

Identity	Harmony	Experience
정체성의 빛	조화로운 빛	경험하는 빛

자연과 관광이 함께 하는 빛의 바다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3차원 입체 랜드마크 스카이넷 구축	체험형 해안 야간보행축 조성	빛공해 저감 및 생태·주거환경 보호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송도초등학교	- 경사지 낙후 주거지의 미관을 해치는 원색 투광 지양 - 고층 아파트 주동 상층부 탑라이트의 동적 연출 지양 및 밤 22시 이후 50% 디밍 가이드라인 적용
오픈 스페이스	빛여울공원 남항체육공원 등	- 주거지 진입 경사로 및 계단실에 벽면 매립형 하향 조명(2500K) 설치 - 단지 내 수목 조명 지양
사회 기반시설	천마TG	- CPTED 기반의 고연색성(Ra 85 이상) 안심 보안등 설치 - 가로등 높이를 3m 이하로 낮춘 로우 폴(Low-pole) 체계 도입

상업지역

건축물	윈덤그랜드부산 그랩디오션	- 해상케이블카의 동적 라인과 호흡할 수 있도록 유리 커튼월 내부 유출광(내침광) 유도 - 돌출 간판 지양 및 건축 구조물 틈새를 활용한 배면 간접 조명(Halo Light) 의무화
오픈 스페이스	송도오션파크	- 상권 전면 친수 광장 및 보행로 바닥에 송도 사계 모티프 고보 프로젝션 맵핑 연출 - 인터랙티브 스마트 쉼터 배치
사회 기반시설	혈청소매립지 방파제	- 5G, 환경 센서, 미디어 보드가 결합된 통합 스마트 폴(Smart Pole) 도입 권장 - 해상 진입 관문 및 교차로 시인성 강화

자연녹지, 해안지역

건축물	송도케이블카	- 인공 구조물을 숨기고 자연과의 동화를 유도하기 위해 암석 색상과 매칭되는 저조도 경관 적용 - 구조 매립형 간접 조명 방식 적용
오픈 스페이스	암남공원 서구희망의 빛거리 등	- 해안 산책로 및 친수 데크 바닥면 야간발광소재 활용(조도 3Lux 유지) - 수림대 상부에서 하부로 비추는 문라이팅(Moonlighting) 기법 적용
사회 기반시설	송도용궁 구름다리	- 해양 생태계 및 조류 보호 파장(Amber LED, 2000K 이하) 보안등 적용 - 수면 직접 투광을 전면 차단하는 풀컷오프 등기구 및 비대칭 렌즈 장착 의무화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3차원 입체 랜드마크 스카이넷 구축

해상케이블카 캐빈과 주탑, 구름산책로 조명을 하나 시나리오로 통합 제어, 공중과 수면이 실시간 교감

A. 송도해상케이블카 '글로우 키네틱 라인(Kinetic Line)'

- 해상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캐빈 하부와 주탑에 지능형 LED를 도입, 남항대교 및 주변 조명 신호와 연동하여 하늘에 빛의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동적 스카이라인을 연출

B. 송도용궁구름다리 '오션 크레스트(Ocean Crest) 라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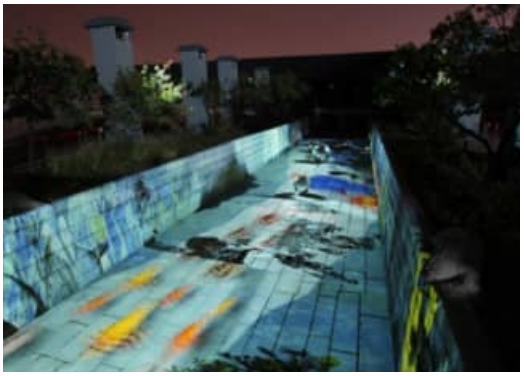
- 암남공원에서 동섬을 잇는 독특한 교량 구조물의 트러스에 3000K(골드 화이트) 투광 조명 적용하여, 야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황금빛 왕관의 실루엣을 시각화

C. 거북섬 테마 '디지털 족적 인터랙티브 고보'

- 거북섬 진입 구름산책로 교량 바닥 송도 전설(어부와 인룡)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고보 프로젝션 적용으로 보행 동선을 안내

D. 백사장 묘박지(錨泊地) 연계 '차경(借景) 리플렉션 뷰'

- 송도 앞바다에 정박한 선박들의 불빛(묘박지 불빛)을 시각적 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변 조망 거점의 조도를 정제하여 잔잔한 바다의 리플렉션 효과를 극대화





방향 2
경험

체험형 해안 야간보행축 조성

대한민국 최초 해수욕장 서사를 담은 미디어 아트를 백사장 옹벽과 친수 데크에 밀착 배치

A. 송도해변 배후 옹벽 '시네마틱 어반 캔버스'

- 해수욕장 배후의 주거지 경계 콘크리트 옹벽 전체에 고해상도 환경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한국 최초 해수욕장의 역사적 기록물과 미디어 아트를 파노라마 형태로 투사

B. 해안 산책로 '은하수 에코 로드'

- 송도해변에서 암남공원 치유의 숲으로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 데크 바닥에 주간 태양광을 흡수해 밤에 빛나는 야간발광소재(축광석)적용, 가로등 폴 없이 몽환적인 밤바다 산책로를 조성

C. 암남공원 진입부 '반딧불이 매직 포레스트'

- 암남공원 초입 수림대에 마이크로 레이저 도트 투사하여, 야간 도보객들에게 은하수 숲길 걷는 듯한 신비로운 야간 힐링 경험을 선사

D. 송도 감성 '선셋 웨이브 벤치(Sunset Wave Bench)'

- 일몰 조명이 내장된 감성 벤치와 CPTED 기반 안심 비상벨이 통합된 스마트 쉘터를 주요 백사장 뷰포인트에 배치하여 체류 시간을 연장





방향 3
조화

빛공해 저감 및 생태·주거환경 보호

고밀도 경사지 주거지 빛 공해 및 민원을 차단, 암남공원 원시림의 수목 생장 위한 철저한 배광 차단 가이드 정립

A. 경사지 배후 주거지 '창면 침입광 제로 가림막' 의무화

- 해변로 가로등 배면에 주거지 방향으로 빛이 유출되는 것을 100% 커팅하는 '비대칭 배광 후드' 장착 의무화하여 빛 공해 민원을 원천 차단

B. 해안 전면 상권 '내침광 밸런싱 가이드' 적용

- 송도 해변 상가 및 저층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LED 네온 간판을 규제하고, 매장 내부 조명(3000K Warm White)이 통유리를 통해 가로변으로 은은하게 배어 나오게 유도

4.3.19 다대포해안권역

대상 구역

-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지이자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안경관 자원
- 넓은 백사장, 얕은 수심, 낙동강 하구와 남해가 만나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노을·석양·생태·예술'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 보유

주요 거점

- 다대포해수욕장, 꿈의 낙조분수, 몰운대, 고우니생태길, 동측해수욕장








현황 및 문제점

- 다대포 권역은 우수한 생태·조경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이벤트 의존성'과 넓은 공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행자 스케일의 야간 콘텐츠'가 한계
- 분수쇼가 끝나는 밤 9시 이후에는 광장 일대의 빛이 급격히 소멸하며, 방문객들이 인근 상권이나 해변 공원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야간 경제의 단절' 현상이 발생
- 고우니 생태길과 해변공원 인근은 천연기념물과 철새의 서식 및 휴식이 이루어지는 생태환경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접한 상가나 도로,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산발적인 백색광(4000K 이상)과 상향광이 갯벌 쪽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음

권역 핵심 방향

Sustainable 지속가능한 빛	Identity 정체성의 빛	Experience 경험하는 빛

노을의 여운이 빛으로 이어지는 다대

방향 01	방향 02	방향 03
낙조 '꿈의 낙조분수' 고도화 및 노을 경관을 활용한 특화 야간경관 연출	고우니생태길~사구 백사장을 잇는 '힐링 야간 보행축' 구축	습지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빛의 절제



요소별 연출방안

주거지역

건축물	민간건축물	- 경사지 아파트 주동 상층부 탑라이트의 동적 연출 및 직접 투광 지양 - 옥탑부 로고 조명은 2700K 이하 모노톤으로 권장 및 22시 이후 소등 권장
오픈 스페이스	중현어린이공원	- 주거지 진입 경사로 및 계단실에 벽면 매립형 하향식 풋라이트(2500K) 설치 - 단지 내 과도한 조경 수목 투광 지양
사회 기반시설	아미산전망대 등	- CPTED 기반의 고연색성(Ra 85 이상) 안심 보안등 설치 - 가로등 높이를 3m 이하로 낮춘 로우 폴(Low-pole) 체계 도입

상업지역

건축물	다대씨파크	- 낮고 평탄한 가로 환경을 고려하여, 유리 창면 내부 조명을 3000K(웜화이트)로 통합 유도 - 돌출 네온 간판 지양 및 배면 간접 조명(Halo Light) 권장
오픈 스페이스	다대포생선회 먹거리타운	- 상권 전면 보행 가로 바닥에 다대포 사구 파동 모티프의 고보 프로젝션 맵핑 연출 - 인터랙티브 스마트 정보 쉘터 배치
사회 기반시설	부산시수협 다대위판장	- 5G, 환경 센서, 미디어 보드가 결합된 통합 스마트 폴(Smart Pole) 권장 - 다대포해수욕장역 출구 및 교차로 야간 시인성 강화

자연녹지, 해안지역

건축물	다대포 119수상구조대	- 인공 구조물을 숨기고 자연과의 조화 유도를 위해 암석·목재 색상과 매칭되는 저조도 경관 적용 - 구조 매립형 간접 조명 방식 적용
오픈 스페이스	다대포 해변공원	- 고우니생태길 데크 난간 하부 손잡이 레일 선형 다운라이트 노출지양 - 수림대 문라이팅(Moonlighting) 기법 적용
사회 기반시설	해양경찰 부산정비창	- 연안 습지 생태계 및 철새 보호 파장(Amber LED, 1800K~2000K 이하) 적용 - 습지 및 수면 직접 투광을 전면 차단하는 풀컷오프 등기구 및 차광판 장착 권장

명소화 방향

방향 1
정체성

낙조 분수 고도화 및 노을 경관을 활용한 특화 야간경관 연출

A.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복합 미디어 아키텍처

- 분수 쇼 구역 배면에 투명 미디어 글라스와 고해상도 환경 프로젝터를 결합하여, 분수 가동 외 시간에 다대포의 사계절 자연 서사를 담은 대형 미디어 아트를 상시 연출

B. 해변 해안선 '선셋 웨이브 빔(Sunset Wave Beam)'

- 일몰 직후의 여운을 연장하기 위해, 백사장 후면 산책로를 따라 2000K~2500K(노을색) 간접 라인 조명을 연속 매립하여 은은한 '빛의 해안선 경계'를 형성

C. 아미산 전망대 '낙조 조망 앵커 라이팅'

- 다대포 전체를 조망하는 아미산 전망대 외벽에 저저항 워싱 조명을 적용하여, 지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산 정상에 은은한 빛의 랜드마크가 떠 있는 듯한 야간 시인성을 확보

D. 다대포 관문 교차로 '빛의 노을 게이트'

- 도시철도 다대포해수욕장역 진입부 및 주요 가로변 가로등 폴에 다대포 서사를 담은 노을빛 컬러 코딩 라이팅을 적용하여 관문성을 극대화





방향 2
조화, 경험

광활한 평면적 지형을 활용, 보행자 발걸음에 맞춰 갈대숲과 모래사장이 반응하는 지능형 감성 조명 밀착 배치

A. 고우니생태길 '인터랙티브 리드 맵핑(Reed Mapping)'

- 갈대숲 보행 데크 바닥과 측면 옹벽에 보행자 걸음 속도에 맞춰 갈대잎이 흔들리거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는 센서형 맵핑 기술을 도입

B. 사구 백사장 '스마트 선셋 웨이브 벤치(Sunset Wave Bench)'

- 광활한 모래사장의 주요 조망 거점마다 일몰 모티프의 조명이 매립된 디자인 벤치와 CPTED 기반 안심 비상벨이 통합된 스마트 쉘터를 배치





방향 2
지속가능

낙동강 하구 및 갯벌 생태계 야간 수면권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상향광 제로 생태 맞춤형 파장 제어 정립

A. 낙동강 하구 생태 보호 '다크 코어(Dark Core)' 설정

- 고우니생태길 전면 갯벌 및 사구 보존 지역 전체를 '완전 무조명 구역'으로 지정하여 철새 및 염생식물 생태 리듬을 완벽히 보장

B. 생태계 보호 파장 '네추럴 앰버(Amber) LED' 도입

- 보행 안전을 위한 필수 보안등에는 곤충 유인율이 가장 낮고 야간 조류의 시각 자극을 최소화하는 1800K~2000K 이하의 호박색 단일 파장 LED 권장

C. 수면 유출광 100% 차단 풀컷오프(Full Cut-off) 등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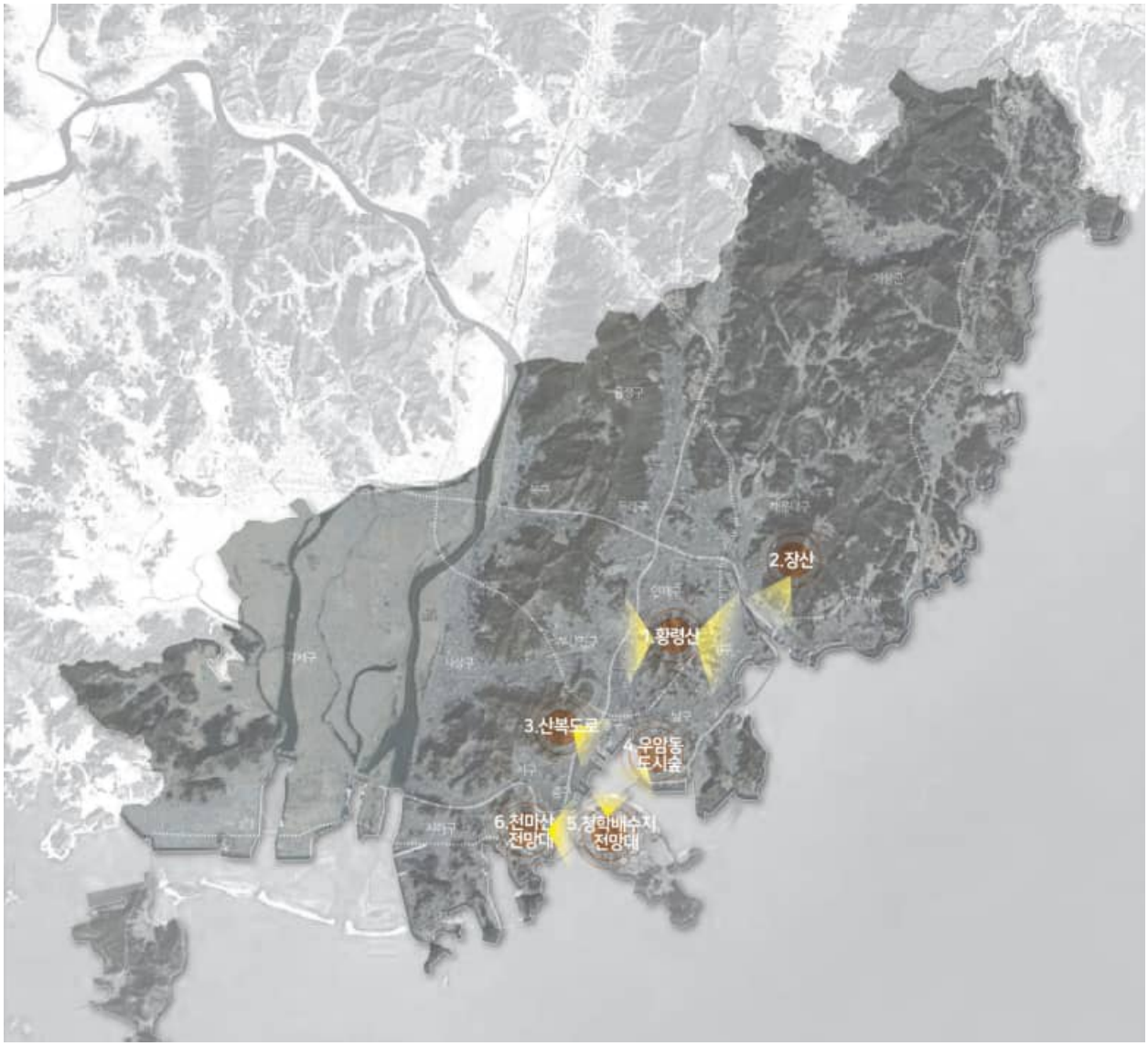
- 해변로와 생태길 배후의 모든 가로등에 바다 전면부 및 습지 방향으로 나가는 빛을 완벽히 차단하는 '비대칭 차광 후드(Shield)' 장착 권장

4.4 야간경관 조망 명소화

4.4.1 부산시 야간경관 조망을 위한 명소화

조망 명소 거점 필요성 및 문제점

- 부산은 산, 강, 바다, 항망, 도심등이 입체적으로 중첩된 특화된 입체 지형을 가지고 있음
- 고지대에서 바라보는 원경과 수변에서 바라보는 근경의 야간경관의 레이어가 다채로움
- 해운대, 광안리의 화려한 수변 야경뿐만이 아닌 도시 야경을 포괄하는 부산시만의 야간경관 정체성 정립을 위해 이를 한눈에 담아내는 조망 거점이 필수
- 교량, 건축물, 공원, 항만, 해안 등에 대한 조명이 통합적으로 관리 되지 않고 각 운영되어 하나의 도시경관으로 인식되지 않음
- 조망거점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에 대한 명소화 및 조명관리가 시행 될 경우 지속가능한 야간경관 관리 체계구축 및 사업 추진 용이



4.4.2 야간경관 조망 거점

조망 거점

- 조망공간(View Point)은 단순한 전망 시설보다 부산의 야간경관을 대표하는 브랜드 거점 육성 필요
- 산, 바다, 강, 항만, 도심이 공존하는 도시이므로 각 조망공간마다 경관 성격이 달라 차별화된 관리 계획 필요

조망공간		주요조망대상	전망대 특징	현황
①황령산전망대		광안대교, 해운대, 마린시티 , 부산도심 전체	부산도심 전체를 각 방향 별 조망이 가능하나 안내시설부족 및 빛공해 혼재	
②장산전망대		해운대, 동부산, 광안대교	광안대교 진입부부터 연결되는 거대한 야간 경관축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산의 대표 해안 조망 가능	
북항 권역	③ 동구 산복도로	북항, 부산역, 부산항대교, 영도, 남구 등	북항(해안)-도심(부산역일원)-산복도로가 하나의 장면으로 인지되는 파노라마 공간	
	④ 우암동 도시숲	북항, 부산항대교, 영도, 부산타워 등	노후지역에서 신규 개발이 진행되며 주거 중심지역으로 변화 부산항대교와 영도, 동항성당을 조망 할 수 있는 공간	
	⑤ 청학배수지 전망대	북항, 부산항대교, 중구원도심, 남구 등	부산항을 중심으로 북항과 부산역 일원 도심을 한눈에 즐길 수 있는 공간	
⑥천마산전망대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남항, 송도, 부산타워 등	신규 조성 전망대와 기존 전망대가 다수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뷰포인트를 즐길 수 있음	

4.4.3 황령산 야간경관 조망 거점

조망 구역 분류

- 광안리, 해운대, 센텀시티 등을 조망할 수 있는 구역과 부산의 주요 도심인 서면, 문형금융단지, 시민공원등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
- 특히 광안대교와 부산의 중심을 관통하는 중앙대로, 서측으로 뻗은 가야대로의 도로축과 교량축을 인지 할 수 있는 주요 조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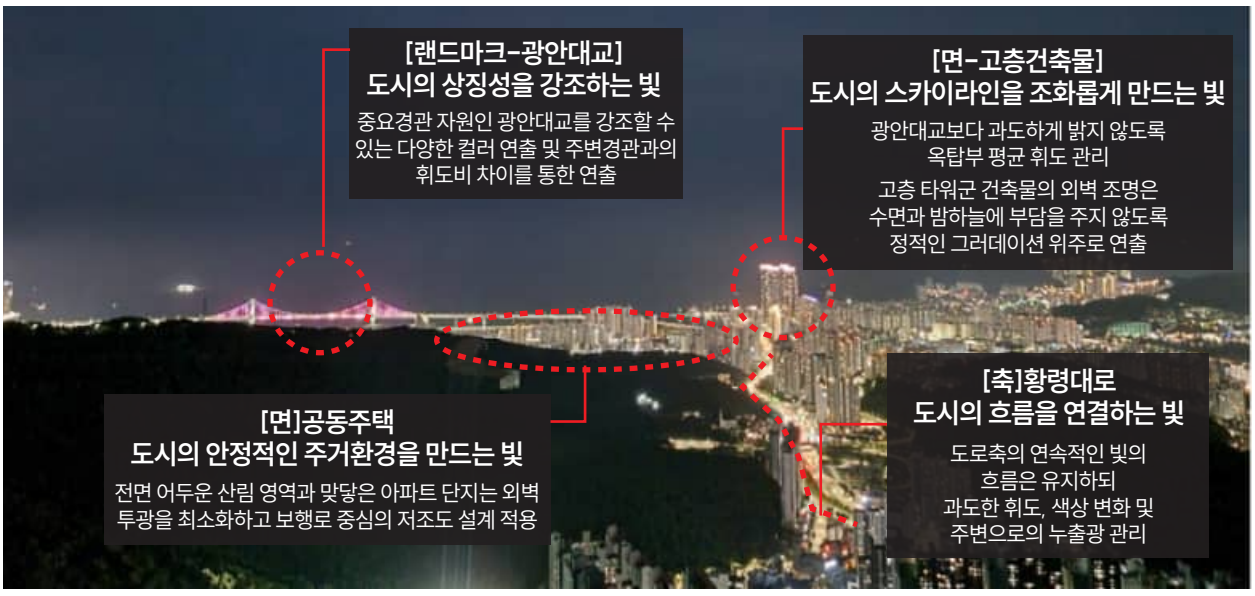


[황령산 주요 조망범위도]

VIEW 01



VIEW 02



4.4.4 장산 야간경관 조망 거점

조망 구역 분류

- 광안대교 중심으로 연결되는 도로축을 조망할 수 있으며 수영강, 광안대교, 광안리, 마린시티,센텀시티를 조망 할 수 있는 공간
-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길,동백섬 등 해운대 주요 관광지 조망
- 센텀시티의 주요 랜드마크 시설물과 수영강 광안대교로 이어지는 야경의 면과 축의 경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요 야간경관 조망 거점



[장산 주요 조망범위도]

VIEW 01



4.4.5 북항권역(산복도로) 야간경관 조망 거점

조망 구역 분류

- 동구 산복도로(망양로 축)에서 초량·원도심 주거지, 부산역 일원, 북항 재개발 1단계 수변구역, 보행데크(경관보도교), 그리고 원경의 부산항대교와 영도 봉래산을 내려다보는 대표적인 부감 뷰
- 계단식 중저층 건물군, 중경의 철도·역세권 인프라, 원경의 바다와 해상교량이 한눈에 겹치는 입체적인 경관 특성으로, 조망 가림 완화, 빛의 시각적 위계, 눈부심 제어가 관리 포인트



[북항권역(산복도로) 주요 조망범위도]

VIEW 01



4.4.6 북항권역(우암동 도시숲) 야간경관 조망 거점

조망 구역 분류

- 근경의 종교시설 조형물(예수동상), 중경의 우암부두 컨테이너 야드 및 동서고가·해안고가 축, 원경의 부산항대교와 영도 봉래산(산복도로 불빛)을 바라보는 조망 거점
- '근경 상징물 + 중경 항만 인프라 + 원경 해상교량 및 섬 지형'이 뚜렷한 3중 레이어를 형성하므로, 요소별 빛의 충돌을 방지하고 부산항대교 조형미, 영도의 따뜻한 배경광 관리



[북항권역(우암동 도시숲) 주요 조망범위도]

VIEW 01



4.4.7 북항권역(영도 청학배수지) 야간경관 조망 거점

조망 구역 분류

- 영도 전면부 주거지(근경), 부산항대교와 회전식 접속램프(중경), 북항 내항 수면, 배후의 동구·남구 도심 스카이라인 및 황령산 능선(원경)을 북쪽으로 정면 조망
- '부산항대교의 사장교 라인이 정면 시야를 압도하는 뷰'이므로, 교량 미디어 연출과 수면 반사미를 극대화하고 배후 도심 시각적 간섭을 관리



[북항권역(영도 청학배수지) 주요 조망범위도]

VIEW 01



4.4.8 천마산 전망대 야간경관 조망 거점

조망 구역 분류

- 근경의 계단식 산복도로 슬래브기와 주거지, 중경의 남포·광복동 원도심 상업지 및 자갈치·남항 수변, 원경의 부산타워, 부산항대교, 영도 봉래산 자락 주거 불빛을 동·북동쪽으로 내려다보는 대표적 입체 부감 뷰
- 원도심 고유의 서정적 야간 정체성 보존과 랜드마크 시각 위계 확립 핵심 관리 포인트



[천마산 전망대 주요 조망범위도]

VIEW 01



4.4.9 관리방안

관리방안

- 시와 각 구·군별 담당 부서가 상이함에 따라, 특정 부서가 아닌 '관련 부서'로 명칭하여 관리방안 제시

관련부서	내용
도로 관련부서	- 주요 간선도로와 생활도로의 가로등 및 도로조명을 관리하여 연속적인 야간경관 관리 - 도로축별 조명 밝기와 색온도를 조정하고 주변 주거지로의 불필요한 빛 확산 최소화 관리
건축·주택 관련 부서	- 공동주택 및 고층건축물의 옥탑·외벽 조명을 관리하여 과도한 경관조명 제한 - 주변 조망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밝기·색온도·점등시간 등 관리기준 적용
경관 관련 부서	- 주요 조망점과 도시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간의 시각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야간경관을 검토하여 조망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관리
공원·녹지 관련 부서	- 산지·녹지의 어두운 실루엣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주변 조명 관리 - 불필요한 경관조명을 제한하고 공원·녹지 내 조명시설의 밝기와 점등 시간 관리
항만 관련 부서	- 항만시설 및 작업공간의 기능과 안전에 필요한 조명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 작업조명의 외부 누출과 눈부심을 관리하여 주변 해안경관 미치는 영향 최소화
옥외광고물 관련 부서	- 상업지역의 옥외광고물 및 전광판 조명의 과도한 밝기·색채·점멸 관리 - 주요 조망점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눈부심과 빛공해를 고려하여 광고 조명 관리

야간경관 실행계획

명소화 사업계획 209
야간경관 관련조례 개정(안) 246

PART.5

5.1 명소화 사업계획

5.1.1 명소화사업 대상지 선정 개요

명소화 대상지 선정 프로세스

- 부산시 야간경관의 고도화를 위해 5년내 선도적으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의 대상지 10개소 선정
-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명소화사업 대상지 후보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

명소화 후보1	명소화 후보2	명소화 후보3
16개 구·군 각 구군별 홈페이지 명소, 관광지	**신규거점** 최근5년 내 신규로 조성된 건축물, 공간 등	**부산의 관문** 부산방문객을 위한 부산의 관문
부산시 16개 각 구군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와 관광지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간으로 2021년 이후 조성 되었거나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장소	부산을 방문하기 위해 이용하는 부산의 다양한 진입관문
구군 경계 중복요소 단일화	구군 경계 중복요소 단일화	부산역, 김해공항, 버스터미널, 구포역, 각 고속도로 입구, 낙동강변(서부산 진입 경관)

- 명소화 후보지 설정을 위한 3개의 유형을 종합하여 중복요소 등 정리
- 총 299개소 명소화 사업 대상지를 도출하고 부산시민과 관광객 의식조사 실시

시민, 관광객, 전문가 등 대상 선호도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통한 1순위~5순위 선정 1순위 5점 ~ 5순위 1점 배점 총점합산	총500점 기준
야간 체류 유도 가능성	주간 방문객의 야간 체류 연장 가능성 야간 특화 콘텐츠로서의 매력도 및 화제성	
조망 및 시각적 개방감	뷰포인트 확보 및 경관 감상의 용이성	
주변 인프라 연계성	대중교통 접근성 기존 관광거점과의 보행 동선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야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근 상권 파급 효과	

야간경관관련 사업 완료 사업시행 어려움 제외	최근 5년 내 야간경관개선사업 시행완료·예정 제외	실내공간 개념의 대상지 제외

명소화 사업 대상 최종 순위

- 명소화사업 대상지들의 사업 실행 시 야간체류 유도 가능성, 조망 및 시각적 개방감,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성, 사업완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각 항목별 100점으로 배점하여 점수 부여
- 설문조사를 포함한 총 5개 항목으로 총점500점기준으로 명소화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재배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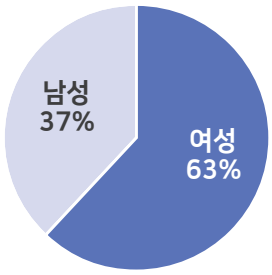
no	자치구군	대상지	설문	체류유도	조망(개방감)	인프라연계성	지역경제활성화	합계
1	중구,동구	북항재개발지역	37.01	100	100	100	100	437.01
2	중구,영도구	영도대교	33.45	100	100	100	100	433.45
3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27.75	100	100	100	100	427.75
4	동구	부산역	6.4	100	100	100	100	406.4
5	동래구,연제구	온천천	25.62	100	75	100	100	400.62
6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11.03	100	75	100	100	386.03
7	해운대구,수영구	수영강	13.87	100	75	100	75	363.87
8	중구	BIFF광장	100	50	0	100	100	350
9	부산진구	서면1번가	7.82	100	0	100	100	307.82
10	해운대구	달맞이길(문탠로드)	10.67	75	75	50	75	285.67

5.1.2 명소화 사업 대상지 선정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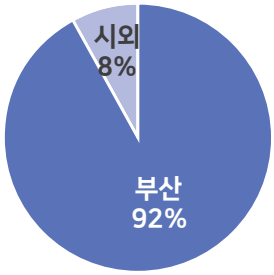
설문조사 개요

- 시민, 관광객, 전무가 총 765명을 대상으로 명소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제시된 총299개 명소화 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1순위~5순위까지 대상지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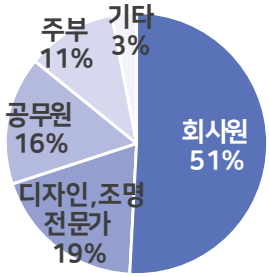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 성별



참여자 거주 지역



참여자 직업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고 전체 점수를 총합하여 우선순위 선정
- 다른 항목 점수와 합산을 위해 1순위 대상지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설정하여 점수 환산

no	자치구군	대상지	총합	환산
1	중구	BIFF광장	843	100
2	중구	국제시장	699	82.91
3	중구	자갈치시장	549	65.12
4	중구	부평깡통야시장	408	48.39
5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333	39.5
6	중구,동구	북항재개발지역	312	37.01
7	중구,영도구	영도대교	282	33.45
8	남구,진구,연제구	황령산전망대	243	28.82
9	중구	광복로문화, 패션거리	234	27.75
1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234	27.75
11	중구	용두산공원(부산타워)	231	27.4
12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222	26.33
13	중구,남구,영도구	부산항대교	216	25.62
14	동래구,연제구,금정구	온천천	216	25.62
15	수영구	광안대교	201	23.84
16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180	21.35
17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147	17.43
18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126	14.94
19	서구	송도해상케이블카	123	14.59
20	해운대구,수영구	수영강	117	13.87
21	영도구	절영해안산책로	114	13.52
22	해운대구	마린시티	114	13.52
23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93	11.03
24	해운대구	달맞이길(문탠로드)	90	10.67
25	사하구	을숙도 생태철새공원	87	10.32
26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	84	9.96
27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81	9.6
28	영도구	태종대	78	9.25
29	동래구	동래읍성지	78	9.25
30	사하구	부네치아 장림항	78	9.25

no	자치구군	대상지	총합	환산
31	남구	이기대	75	8.89
32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75	8.89
33	서구	송도해수욕장	72	8.54
34	강서구	30리 낙동강 제방둑길	72	8.54
35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72	8.54
36	남구	용호별빛공원	69	8.18
37	강서구	명지해안산책로	69	8.18
38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69	8.18
39	중구	부산대교	66	7.82
40	부산진구	서면1번가	66	7.82
41	북구	화명생태공원	66	7.82
42	북구	금빛노을브릿지	66	7.82
43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63	7.47
44	사하구	하구언(댐)	63	7.47
45	해운대구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60	7.11
46	동구	부산역	54	6.4
47	해운대구	청사포다릿돌전망대	54	6.4
48	금정구	금정산	54	6.4
49	동래구	복천동고분군	51	6.04
50	남구	소금공원(용호만매립부두)	51	6.04
51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51	6.04
52	해운대구	더베이101	51	6.04
53	사하구	고우니생태길	51	6.04
54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51	6.04
55	부산진구	송상현광장	48	5.69
56	해운대구	청사포	48	5.69
57	영도구	봉래산	45	5.33
58	남구	우암동 도시숲	45	5.33
59	북구	기찻길 숲속 산책길	45	5.33
60	기장군	임랑해수욕장	45	5.33

명소화 사업 대상지 여건

- 명소화사업 대상지들의 사업 실행 시 야간체류 유도 가능성, 조망 및 시각적 개방감,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성, 사업완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각 항목별 100점으로 배점하여 점수 부여
- 설문조사를 포함한 총 5개 항목으로 총점500점기준으로 명소화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재배열

no	대상지	설문	체류유도	조망(개방감)	인프라연계성	지역경제활성화	합계
1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39.5	100	100	100	100	439.5
2	중구,동구 북항재개발지역	37.01	100	100	100	100	437.01
3	중구,영도구 영도대교	33.45	100	100	100	100	433.45
4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27.75	100	100	100	100	427.75
5	중구 용두산공원(부산타워)	27.4	100	100	100	100	427.4
6	수영구 광안대교	23.84	100	100	100	100	423.84
7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21.35	100	100	100	100	421.35
8	해운대구 엑스더스카이 전망대	7.11	100	100	100	100	407.11
9	동구 부산역	6.4	100	100	100	100	406.4
10	동래구,연제구 온천천	25.62	100	75	100	100	400.62
11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11.03	100	75	100	100	386.03
12	중구 부산항대교	25.62	100	100	100	50	375.62
13	중구 자갈치시장	65.12	50	50	100	100	365.12
14	해운대구,수영구 수영강	13.87	100	75	100	75	363.87
15	해운대구 마린시티	13.52	100	75	75	100	363.52
16	중구 BIFF광장	100	50	0	100	100	350
17	서구 송도해수욕장	8.54	75	100	50	100	333.54
18	중구 국제시장	82.91	50	0	100	100	332.91
19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6.04	100	100	100	15	321.04
20	서구 송도해상케이블카	14.59	50	100	50	100	314.59
21	부산진구 서면1번가	7.82	100	0	100	100	307.82
22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26.33	50	100	50	75	301.33
23	중구 부평깡통야시장	48.39	50	0	100	100	298.39
24	해운대구 달맞이길(문탠로드)	10.67	75	75	50	75	285.67
25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8.54	75	100	50	50	283.54
26	중구 광복로문화, 패션거리	27.75	50	0	100	100	277.75
27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 거리	8.89	75	0	75	100	258.89
28	중구 부산대교	7.82	25	100	50	50	232.82
29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7.47	50	100	50	25	232.47
30	해운대구 더베이101	6.04	50	50	100	15	221.04

5.1.3 10대 명소화 사업 -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대상구역	no	적용계획	사업명	단기	중기	장기	비고
북항재개발 지역	1	정체성의 빛	' 빛의 해양수도' 빛의 축제	●			
	2	경험하는 빛	워터프론트 '시네마틱 오션' 미디어쇼		●		
	3	연결하는 빛	부산역~북항 연결 '빛의 실크로드'		●		
영도대교	4	정체성의 빛	'도개(Lift) 퍼포먼스' 특화 라이팅	●			
	5	경험하는 빛	'시간의 물결' 교각 하부 빛의 갤러리		●		
	6	연결하는 빛	자갈치-영도 '빛의 연계'			●	
	7	조화로운 빛	구조미를 살린 '고색 워싱'		●		
부산 시민공원	8	경험하는 빛	거울연못 '시네마틱 빛의 기둥'		●		
	9	경험하는 빛	'빛의 이야기' 미디어파사드		●		
	10	경험하는 빛	수공간을 활용한 '소원의 빛'	●			
	11	조화로운 빛	빈딧불이 감성 산책로 조성		●		
부산역	12	정체성의 빛	부산역 ' 디지털웰컴 파사드'			●	
	13	연결하는 빛	북항 연결 '빛의 보행로 브릿지'		●		
	14	경험하는 빛	역사광장 '디지털 카펫' 인터랙티브		●		
온천천	15	정체성의 빛	온천천 벚꽃길 '시즌 스토리 라이팅'	●			
	16	정체성의 빛	온천천 빛의 브릿지 조성		●		
	17	연결하는 빛	수영강~동래역 '빛의 워터웨이'		●		
	18	조화로운 빛	수변 생태 '정온한 감성 정원'		●		
민락 수변공원	19	정체성의 빛	광안대교 '리플렉션 호라이즌'		●		
	20	경험하는 빛	스탠드 시팅 '글로우 시네마틱'		●		
	21	연결하는 빛	민락-광안리 '빛의 오션 커넥터'		●		
	22	조화로운 빛	수변광장 '앰비언트 갤러리'	●			
수영강	23	정체성의 빛	수영강 '리플렉션 파노라마' 연출			●	
	24	경험하는 빛	나루공원 '미스틱 라이팅 포레스트'			●	
	25	연결하는 빛	센텀-망미 빛의 연결교			●	
BIFF광장	26	정체성의 빛	핸드프린팅 '스타라이트' 업그레이드	●			
	27	경험하는 빛	'레드카펫' 인터랙티브 로드		●		
	28	연결하는 빛	원도심 상권 '시네마틱 루프' 연결		●		
서면1번가	29	정체성의 빛	펄스 게이트 상징 연출		●		
	30	경험하는 빛	어반 캔버스 '미디어 스트리트' 고도화		●		
	31	연결하는 빛	전포~시민공원 '라이팅 컬처 벨트' 연결		●		
달맞이길 (문텐로드)	32	경험하는 빛	해마루 '라이팅 파노라마' 조망점 고도화	●			
	33	연결하는 빛	미포~청사포 '블루라인 로드'연결		●		

5.1.4 명소화 사업 - 1 : 북항 재개발 지역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부산의 근대화 상징이자 글로벌 워터프론트의 핵심 거점
- 과거 항만 기능으로 차단되었던 바다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주야간 모두를 즐길 수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공간
- 지속적인 개발사업 및 건축물 조성으로 부산의 해양, 업무, 관광 모두를 통합하는 중요한 거점
- 해양수도부산 구축하기 위한 중요 거점 공간으로 단순한 개발 아닌 주야간 머무를 수 있고 볼거리가 다양한 야간경관 명소화 필요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수변공원 및 교량에 다양한 경관조명이 설치 되어 있으나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체험적 컨텐츠가 부족하고 과도한 밝기 및 컬러 혼재로 혼란스러운 야간경관 연출
- 단순하면서 강렬한 원색 조명 사용으로 정온한 수변공간의 정체성 저해
- 일부 구간 바닥에 고보조명이 설치 되어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방문객 흥미 유발 부족
- 수변에 조성된 위치적 강점을 활용한 빛과 물의 조화 필요



Global Wave(빛의 항해): 세계를 향해 열린 미래적 야경

공간 방향	연계성
대규모 건축물,시설물과 수변을 잇는 입체적 미디어 캔버스 구축	부산역과 보행 데크를 통해 연결되는 '도심-해양' 통합 경관

명소화 사업 방향

정체성의 빛(Identity)

'빛의 해양수도' 빛의 축제 단기

과거 물류 항만의 상징이었던 장소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만 중심지로 재탄생하기 위한 부산만의 빛축제와 현재 조성된 야간 조명을 기반으로 하는 야간경관 컨텐츠 보강

- WDC선정에 따른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서 야간경관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몰입형 체험공간의 미디어컨텐츠 빛축제 구현
- 북항친수공원내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이저 시스템과 안개분사 시스템 등의 문라이트 포트 구축
- LUCI소속 디자이너, 라이팅 페스티벌 도시 조명 정책전문가와 함께하는 세계적 야간경관 브랜드 구축





경험하는 빛(Experience)

워터프론트 '시네마틱 오션' 미디어 쇼 중기

북항 친수공원 바닥을 캔버스로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몰입할 수 있는 체험형 야간 콘텐츠 제공

- 친수공원 바닥을 활용한 미디어쇼와 안개 분수를 설치하고, 레이저와 미디어 결합한 체험형 공간 조성
- 보행 데크를 따라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물결 모양의 빛이 퍼져 나가는 인터랙티브 라이팅 구간 조성





연결하는 빛(Network)

부산역~북항 연결 '빛의 실크로드' 중기

단절된 도심(부산역)과 해양(북항)을 심리적으로 연결하고, 보행자에게 연속적인 야간 경관 경험을 제공

- 부산역에서 북항친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중 보행교 내부에 디지털 아트터널을 조성하여 이동 중에도 볼거리가 있는 '전이 공간'을 구축
- 보행로 전체에 통일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스마트 웨이파인딩시스템을 도입하여 야간 보행 안전과 방향 인지성을 강화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디자인도시정책과, 해양수도정책과 부산동구청 문화관광과 부산항만공사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1. '빛의 해양수도' 빛의 축제(공공) – [1식] 3,000백만원 2. 시네마오션 미디어쇼 (공공) – [1식] 3,000백만원 3. 빛의 실크로드(공공) – [1식] 1,000백만원

5.1.5 명소화 사업 - 2 : 영도대교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국내 유일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도개교이자 피란수도 역사의 상징
- 남포동, 자갈치 시장과 영도를 잇는 관문으로서, 정적인 역사 시설에 '빛'이라는 동적인 요소를 더해 밤에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체험형 명소로 기능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영도대교는 현재 주변 특정 행사 기간 중 임시 도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야간 도개에 따른 야간컨텐츠 부족으로 관심도 저하
- 유라리광장, 영도대교 하부 공간 등은 단순한 RGB조명 연출로 야간 방문객의 흥미 저하









Time Layer(시간의 결): 역사와 낭만이 교차하는 역사의 빛

공간 방향	연계성
교량 하부 공간 재생과 구조물의 수직/수평미 강조	자갈치시장, 롯데백화점, 영도 커피거리와의 야간 동선 연결

명소화 사업 방향

정체성의 빛(Identity)

'도개(Lift) 퍼포먼스' 특화 라이팅 단기

영도대교만의 유니크한 움직임인 '도개'를 빛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역동적인 역사적 상징성을 연출

- 상판이 들어올려지는 각도에 따라 조명의 색상과 강도가 변하는 '싱크로 라이팅(Synchro-Light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개 행사 시 몰입감을 극대화
- 도개교 상판 하부에 미디어 도트(Media Dot)를 배치하여, 다리가 들렸을 때 부산의 시화(동백꽃)나 역사적 메시지가 나타나는 '히든 파사드'를 연출





경험하는 빛(Experience)

'시간의 물결' 교각 하부 갤러리 중기

어둡고 정적인 교량 하부 공간을 피란수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감성적인 야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 교각 하부 벽면과 바닥에 고해상도 프로젝션 맵핑을 통해 영도대교의 건립부터 피란 시절의 애환까지 담은 '빛의 기록물'을 상시 상영
- 교량 하부에 물결처럼 일렁이는 빛을 투사하여 수면에 반사된 듯한 효과를 연출하는 '물결 반사 조명(Reflection Projector)'을 설치하여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야간 분위기 조성





연결하는 빛(Network)

자갈치-영도 '빛의 연계(Connecting Flow)' 장기

단절된 육지와 섬의 시각적 연결을 강화하고, 주변 관광 거점(자갈치, 롯데백화점, 영도 커피거리)과의 야간 보행 네트워크를 형성

- 영도대교 진입로와 난간을 따라 연속적 라인 LED를 배치하여 '빛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고, 건너편 건축물 경관과 색온도를 통일하여 시각적 일체감을 부여
- 자갈치시장 수변 데크와 영도 해안 산책로에서 영도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라이팅 포토 존' 조성하고, 주요 지점에 스마트 웨이파인딩 조명을 설치




조화로운 빛(Harmony)

구조미를 살린 '고색(古色) 워싱 중기

영도대교의 철골 구조가 가진 선형미와 빈티지한 질감을 살려 원도심의 풍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 트러스 구조물에 눈부심 적은 협각 투광 조명을 적용하여 구조물 입체감을 강조하되, 주변 상업지의 화려한 조명과 충돌하지 않는 정온한 색온도(2700K~3000K) 유지
- 보행로 난간 하부에 보이지 않는 매립형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다리 본연의 형태만 은은하게 부각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중구청 / 부산영도구청 부산항만공사 / 부산시설관리공단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도개퍼포먼스 라이팅 (공공) - [1식] 2,000백만원 교각 하부 빛의 갤러리 (공공) - [1식] 800백만원 자갈치-영도'빛의 연계' (공공+민간) - [1식] 5,000백만원 구조미를 살린 '고색 워싱' (공공) - [1식] 500백만원

5.1.6 명소화 사업 - 3 : 부산시민공원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부산시민공원은 서면 명소화 권역의 '녹지 축(Green Thread)'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이자, 도심 속 거대한 라이팅 캔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 서면의 화려한 상업 경관과 대비되는 '치유와 몰입의 빛'을 컨셉으로, 선도적인 명소화 사업 계획 필요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시민공원 내부 조명 부족으로 인한 조도확보가 어렵고 야간 안전사고 발생우려 높음
- 식재와 방문객을 위한 공간 간의 야간경관 조명의 부조화 발생
- 주간의 휴식과 힐링을 대체할 수 있는 야간만의 특화 컨텐츠 부족



Mystic Forest & Urban Breath: 도심의 숨을 빛으로 깨우다

공간 방향	연계성
대규모 잔디광장(하야리아 잔디광장)과 울창한 숲,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단순 가로등 위주 조명에서 '체험형 미디어 아트 공원'으로 격상	서면의 역동적인 빛(Urban Pulse)이 시민공원으로 유입되며 부드러운 감성(Soft Glow)으로 전이되는 '빛의 완충지 및 심장' 역할

명소화 사업 방향

경험하는 빛(Experience)

거울연못 '시네마틱 빛의 기둥' 연출 중기

수변 공간의 반사 특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조성

- 연못에 안개 연출(Fog System)과 컬러 레이저를 결합하여 수면 위로 빛이 유영하는 듯한 연출을 시도하고, 음악과 연동된 '라이팅 분수 쇼'를 진행
- 연못 주변 데크에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물결 모양의 빛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라이팅을 설치하여 걷는 즐거움을 극대화




시민공원 건축물과 특정 자연물을 활용한 '빛의 이야기' 중기

시민공원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각 건축물과 자연물에 미디어파사드 연출로 역사적가치와 교육, 즐거움을 통합적 구축

- 시민공원 건축물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은 조명 연출
- 전체 구역별 거점 역할을 위한 자연물의 미디어 파사드 연출




수공간을 활용한 '소원의 빛' 단기

물 흐림이 없는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주간과 야간에 인지 가능한 소원의 빛 조형물 조성으로 시민의 소원을 담은 특화 공간 조성

- 소원을 담은 등불 형태로 디자인하고 시민과 방문객의 소원을 넣어 특정기간 전시
- 신청자의 특별한 이벤트 일에는 조명의 컬러를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즐거움 선사



명소화 사업 방향

조화로운 빛(Harmony)

전포천 '반딧불이 감성 산책로' 중기

인위적인 조명 대신 자연의 생명력을 빛으로 재해석하여 도심 속 생태 숲의 아늑함 표현

- 전포천을 따라 울창한 수목들에 생태 친화적인 미세 레이저(Firefly Light) 투사하여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듯한 숲속 풍경 연출
- 산책로 주변 벤치와 휴게 공간에 따뜻한 색온도(2700K)의 간접 조명을 적용하여 이용자들이 서로의 얼굴을 부드럽게 마주할 수 있는 정온한 조명 환경을 조성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진구청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시네마틱 빛의 기둥(공공) – [1식] 1,000백만원 빛의 이야기 미디어파사드 연출(공공) – [1식] 2,000백만원 소원의 빛 연출(공공) – [1식] 1,000백만원 반딧불이 감성 산책로 조성(공공) – [1식] 600백만원

5.1.7 명소화 사업 - 4 : 부산역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부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관문이자 유동인구의 심장부
- 원도심과 북항재개발 구역을 잇는 핵심 연견축
- 막대한 유동인구와 뛰어난 시각적 노출이 가능한 공간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역과 주변 건축물 특히 광장에 대한 랜드마크적 상징성 부재
- 각 공간별 조도가 불균형으로 방문객에게 혼잡한 야간인상 인식
- 시민과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야간 특화 컨텐츠 부족









Welcoming Light(환대의 빛) : 세계인을 반기는 따뜻한 품

공간 방향	연계성
역사 광장과 텍스처를 활용한 환영의 메시지 시각화	초량 차이나타운과 북항 재개발지를 연결하는 브릿지 기능

명소화 사업 방향

정체성의 빛(Identity)

유라시아 플랫폼 '디지털 웰컴 파사드' 장기

부산역 건축물의 전면부와 유라시아 플랫폼을 활용하여 부산의 역동성과 환대의 메시지를 시각화

- 플랫폼 전면 유리 외벽 일부 공간에 미디어파사드를 적용하여 부산의 시화, 시조 및 'Busan is Shines' 비전을 담은 아트워크를 상시 상영
- 역사 상단에 부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 포인트 라이팅을 배치하여 멀리서도 부산역의 위치와 상징성을 인지



연결하는 빛(Network)

북항 연결 '빛의 보행로(Sky-way) 브릿지' 중기

부산역에서 북항 재개발 구역으로 이어지는 보행교를 빛의 동선으로 연결하여 두 거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

- 보행교 난간과 바닥에 흐르는 듯한 무빙 라이팅(Moving Light)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자연스럽게 북항 친수공원 방면으로 유도
- 보행교 중간 지점에 북항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라이트 캔버스 조망대'를 조성하고, 스마트 웨이파인딩 조명을 통해 인근 명소 정보를 제공





경험하는 빛(Experience)

역사 광장 '디지털 카펫' 인터랙티브 중기

광장을 통과하는 보행자가 빛과 상호작용하며 부산에 도착했음을 실감할 수 있는 체험형 경관을 조성

- 부산역 광장 바닥면에 고해상도 프로젝션 맵핑을 투사하여, 보행자의 움직임에 따라 파도가 일렁이거나 꽃이 피어나는 '디지털 카펫' 연출을 실시
- 광장 주요 거점에 증강현실(AR) 포인트와 연동된 라이팅 조형물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랜드마크 포토존을 구축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동구청 / 부산시설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1. 디지털 웰컴 파사드 조성(공공) – [1식] 8,000백만원 2. 빛의 보행로 브릿지 연출(공공) – [1식] 1,000백만원 3.역사광장 '디지털 카펫' 인터랙티브 조성 (공공) – [1식] 1,000백만원

5.1.8 명소화 사업 - 5 : 온천천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부산 중심도로를 가로지르는 생태축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밀착형 휴식처이자 생태 하천
- 주야간 불문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자전거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공간
- 주변 상권과의 시너지 및 야간경제 활성화 가능 구역
- 계절적 경관의 야간특화 콘텐츠 확장성 높은 구역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온천천의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 조명이 일부 교량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현재 설치된 조명은 주변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않은 원색 컬러가 과도하게 적용
- 수변보행공간의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명이 설치 되지 않은 구역 존재



Water Melody (물의 멜로디) : 일상을 흐르는 감성적 선율

공간 방향	연계성
하천변 산책로와 교량 하부를 활용한 소규모 팝업 경관	동래역 상권과 수영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보행로 네트워크

명소화 사업 방향

정체성의 빛(Identity)

온천천 벚꽃길 '시즌 스토리 라이팅' 단기

전국적인 명소인 온천천 벚꽃길의 계절적 아름다움을 야간에도 극대화하여 동래의 역사성과 자연미를 강조

-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수목의 색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고연색성 핑크/화이트 LED 투광 조명을 설치하고, 낙화 시기에는 바닥에 꽃잎 모양 고보 조명을 연출
- 비시즌기에는 온천천의 유래인 '온천'을 상징하는 따뜻한 오렌지빛과 수변의 청량한 블루빛을 교차 연출하여 사계절 내내 정체성을 유지

중요 교량 '온천천 빛의 브릿지' 조성 중기

온천천의 다양한 교량에 대한 조명 연출 및 통합 컨트롤로 빛의 브릿지 조성

- 각 교량에 대한 단일 컬러의 빛 연출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특정 행사나 축제 기간에 각 교량의 컬러를 통합적으로 변경하고 연출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구축
- 하천변 계단형 수변쉼터에 소규모 공연을 위한 버스킹 전용 라이팅 존을 구축하여 야간 공연 문화의 장을 마련



연결하는 빛(Network)

수영강~동래역 '빛의 워터웨이' 중기

온천천 산책로 따라 인근 주요 거점(동래역 상권, 수영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보행 네트워크 강화

- 하천 진출입로(램프)에 인지성이 높은 안내 사인 조명을 설치하여 상업지역과 하천 공간 사이 심리적 장벽을 해소
- 하천제방 위 수목 조명 정비를 통해 수변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연출




조화로운 빛(Harmony)

수변 생태 '정온한 감성 정원' 중기

화려한 도심 조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주변주거지와 조화로운 저휘도조명 환경을 조성

- 산책로 주변 벤치와 포켓공원에 눈부심 방지(Anti-glare) 처리가 된 따뜻한 색온도(2700K) 조명을 배치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
- 산책로 옹벽 구간에 식물 실루엣을 활용한 실루엣 투광을 적용하여 조경과 조명이 하나 되는 경관 조성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동래구청 / 부산연제구청 / 부산금정구청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시즌 스토리 라이팅(공공) – [1식] 2,000백만원 온천천 빛의 브릿지 조성(공공) – [1식] 4,000백만원 빛의 워터웨이(공공) – [1식] 1,000백만원 정온한 감성 정원 조성(공공) – [1식] 600백만원

5.1.9 명소화 사업 - 6 : 민락수변공원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젊은 층의 야간 집객이 높은 부산의 대표적인 수변 여가 공간
-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점이자 시각적 거점
- 건전한 야간문화 창출의 대표적 장소
- 체류 시간 증대를 통한 주변 상권 활성화 가능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광안대교와의 시각적 부조화로 관람석으로만 전락한 공간
- 단순 기능 중심의 조명으로 인한 공간 정체성이 부족하고 과도한 조명 설치로 야간경관 저해
- 주변의 경관을 관람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야간컨텐츠 부재









Neon Wave(네온 웨이브) : 젊음과 감성이 춤추는 수변

공간 방향	연계성
광안대교 배경의 포토존 강화 및 보행 환경 고도화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강 사이의 보행 브릿지 역

명소화 사업 방향

정체성의 빛(Identity)

광안대교 '빛의 해안선(Reflection Horizon)' 중기

광안대교의 화려한 조명을 수변공원 내부로 끌어들여 바다와 공원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듯한 시각적 정체성 확립

- 수변 스탠드 주변 조명에 광안대교의 조명 쇼와 실시간으로 동기화 되는 AI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유명디자이너의 패턴을 상황에 맞게 연출

경험하는 빛(Experience)

스탠드 시팅 '몰입형 빛 연출(Glow Cinematic)' 중기

기존의 계단식 스탠드를 야간 경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 체험 공간으로 전환

- 계단 측면에 고보 프로젝션을 활용해 부산의 파도와 모래사장 테마의 영상을 투사하여, 시민들이 마치 파도 위에 앉아 있는 듯한 환경 조성



연결하는 빛(Network)

민락-광안리 '빛의 오션 커넥터' 중기

단절된 민락항, 민락수변공원, 광안리 해수욕장을 잇는 연속적 빛의 동선으로 수변 관광 네트워크 구축

- 인근 밀락더마켓 등 상업 거점과 연계된 '방향 안내(Smart Way Finding) 조명' 설치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유입되도록 동선 가이드





조화로운 빛(Harmony)

수변 광장 '앰비언트(Ambient) 갤러리' 단기

화려한 광안대교의 조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행자의 표정을 밝혀주는 부드러운 '배경 조명'을 통해 주변 상권과 조화

- 공원 내 화단과 벤치 하부에 전구색(3000K) 간접 조명을 매립하여 아늑한 거실과 같은 정온한 휴게 환경을 조성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수영구청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1. 리플렉션 호라이즌 공간 조성(공공) – [1식] 1,000백만원 2.글로우 시네마틱 조성 (공공) – [1식] 7,000백만원 3. 빛의 오션 커넥터 조성(공공) – [1식] 5,000백만원 4. 수변광장 앰비언트 갤러리(공공) – [1식] 500백만원

5.1.10 명소화 사업 - 7 : 수영강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센텀시티 현대적 건축물과 자연이 만나는 공간으로 주변 메가 랜드마크와 시너지 극대화 가능한 공간
- 해양과 내수면 수상레저 관광의 필수 동력 거점
- 도심 속 친환경 수변 생태관광의 거점이자 체류형 야간관광 확대를 위한 중요 하천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수영강을 중심으로 좌우 수변공간의 심각한 조도 불균형과 경관 단절 발생
- 수영강만의 고유한 야간 테마 부재
- 주요 교량 조명의 노후화 및 특화 부족
- 메가랜드마크와 수영강의 연계를 위한 야간컨텐츠 부족



Reflection City(리플렉션 시티) : 수면에 비친 도시의 화려함

공간 방향	연계성
초고층 빌딩 숲의 스카이라인을 수면에 투영하는 조명 연출	영화의전당, 나루공원, APEC 나루공원과 통합된 야간 관광 코스

명소화 사업 방향

정체성의 빛(Identity)

수영강 '리플렉션 파노라마' 연출 장기

센텀시티 수직적 건축미가 강물에 투영되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영강만의 장엄한 이미지 구축

- 수영강의 각 교량에 대한 테마형 조명을 설치
- 교량 측면 분수와 조명을 활용한 빛의 분수 연출
- 중요 거점인 영화의전당 '빅 루프' 색상 변화에 따라 강변 산책로의 보도등 컬러가 유기적으로 변하는 권역 통합 동기화 연출을 실시



경험하는 빛(Experience)

나루공원 '미스틱 라이팅 포레스트' 장기

APEC 나루공원의 숲을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형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 숲길 산책로를 따라 수목 사이에 홀로그램 프로젝션을 활용하여 부산의 숲에 사는 상상의 동물이나 요정을 시각화하는 체험 콘텐츠를 제공
- 산책로 일부 구간 보행자 발걸음에 맞춰 수풀 사이 빛이 순차적으로 켜지는 '빛의 그림자' 인터랙티브 연출을 도입





연결하는 빛(Network)

센텀-망미 '빛의 연결교(Connecting Bridge) 장기

수영강을 가로지르는 보행교(수영강 휴먼브릿지 등)를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빛의 매개체로 활용

- 보행교 난간과 구조물에 저해상도 LED 도트(Dot)를 매립하여 강물의 흐름을 형상화한 '빛의 물결' 영상을 송출하고 권역 간 보행 유입을 촉진
- 교량 진입부에 '방향 안내(Smart Way Finding) 사이니지' 를 결합하여 센텀시티와 F1963 등 인근 문화 거점으로의 야간 동선 네트워크를 완성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수영구청 /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리플렉션 파노라마(공공) - [1식] 2,000백만원 미스틱 라이팅 포레스트(공공) - [1식] 1,000백만원 빛의 연결교(공공) - [1식] 600백만원

5.1.11 명소화 사업 - 8 : BIFF광장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영화의 도시 부산의 상징적 거리이자 글로벌 관광 명소
- 원도심 관광 벨트의 연결고리이자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
- 세대와 국적 모두를 아우르는 야간 문화공간의 교차점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정체성 없는 무질서한 빛으로 광장만의 고유한 야간 분위기 조성 어려움
- 기존 설치된 상징시설물의 노후화 및 조명 연계성 부족으로 인지성이 저하되고 경관 저해요소 작용
- 동적인 요소가 부재하고 주변 명소와의 빛의 연계성 고려 부족









Cinematic Light: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리

공간 방향	연계성
화려한 상권 조명과 영화 테마의 예술적 조명을 융화	남포동, 자갈치, 국제시장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야간 투어 거점

명소화 사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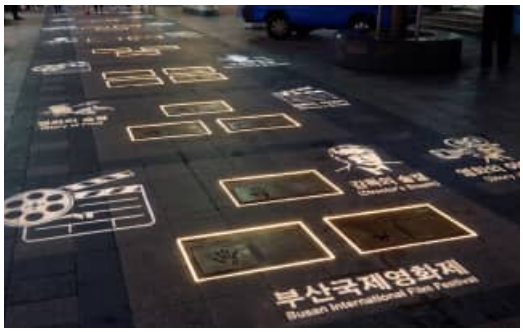
정체성의 빛(Identity)

핸드프린팅 '스타 라이트(Star-Light)' 업그레이드 단기

BIFF광장 본질인 세계 영화인의 핸드프린팅 동판을 야간에도 주인공으로 부각하여 장소 정체성 강화

- 핸드프린팅 동판 주변 초슬림 LED 포인트 조명을 매립하여 밤마다 별자리처럼 빛나는 '영화인의 길' 조성
- 특정 핸드프린팅 위에 서면 해당 감독이나 배우의 필모그래피가 바닥에 고보 조명으로 나타나는 스토리텔링 라이팅 도입





경험하는 빛(Experience)

'레드카펫' 인터랙티브 로드 중기

방문객이 마치 영화제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몰입형 야간 체험 환경을 구축

- 광장 진입로 바닥에 고해상도 프로젝션 맵핑 투사하여 보행자가 걷는 동선 따라 붉은 카펫이 펼쳐지는 '디지털 레드카펫'을 연출
- 광장 주요 포스트에 시민이 지나갈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효과를 주는 센서 기반의 플래시 라이팅 시스템을 설치



연결하는 빛(Network)

원도심 상권 '시네마틱 루프(Loop)' 연결 중기

BIFF광장을 중심으로 자갈치, 국제시장, 창선동 먹자골목으로 이어지는 단절된 야간 동선을 빛의 띠로 묶어 상권 활성화를 도모

- 인근 시장 입구와 골목 상단에 영화 필름 모티프의 스트링 라이트와 가로등을 연속 배치하여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광장 중앙에서 주변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영화 장르별 테마 컬러를 입힌 스마트 웨이파인딩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인지성을 강화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중구청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1. 핸드프린팅 스타라이트 업그레이드(공공) – [1식] 800백만원 2.레드카펫 인터랙티브 로드 조성 (공공) – [1식] 1,500백만원 3. 시네마틱 빛의 루프 연결(공공) – [1식] 2,000백만원

5.1.12 명소화 사업 - 9 : 서면1번가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부산 최대의 번화가이자 MZ세대의 중심 유동 구역으로 부산의 지리적·교통적 허브이자 최대 유동 인구 보유
- 야간경제 활성화의 최적지이자 청년문화와 상업의 역사적 상징성 높음

명소화 대상지 현황

- 무질서한 상업 조명으로 인한 광공해와 시각적 피로 높음
- 서면1번가만의 통합된 경관 정체성 부재
- 공공영역의 야간휴게 및 체험요소 부족
- 노후된 가로 시설물과 신흥 상권 대비 경쟁력 저하



Urban Pulse: 심장이 뛰는 빛의 도심

공간 방향	연계성
역동적인 컬러와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한 상권 활성화	전포카페거리, 시민공원 등 주변 거점을 잇는 보행 연결성 강화

명소화 사업 방향

정체성의 빛(Identity)

서면 '역동의 빛 관문(Pulse Gate)' 상징 연출 중기

권역의 진입부에 압도적인 시각적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서면1번가의 시작과 정체성을 강력하게 각인

- 서면1번가 주요 진입로에 서면의 역동적 맥박을 형상화한 디지털 미디어 아치를 설치하여 방문객을 맞이하는 관문 경관을 조성
- 아치 내부 면 실시간 유동 인구 데이터에 반응하여 빛의 패턴이 변하는 데이터 시각화 라이팅 적용하여 '살아있는 거리'의 이미지 전달

경험하는 빛(Experience)

어반 캔버스 '미디어 스트리트' 고도화 중기

거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보행자가 일상 속에서 첨단 미디어 아트를 체험하는 몰입 환경을 구축

- 거리 내 주요 건물 입면과 가로등 기둥을 연계하여 보행자 위치에 따라 영상이 따라오는 '인터랙티브 맵핑 로드'를 조성
- 특정 구역에 증강현실(AR) 포토스팟과 연동된 입체 고보 조명을 투사하여 MZ세대가 SNS에 공유하고 싶은 '디지털 팝업 존' 상시 운영



연결하는 빛(Network)

전포~시민공원 '빛의 문화축(Lighting Culture Belt)' 연결 중기

서면1번가 에너지를 인근 전포카페거리와 부산시민공원으로 확장하여 도심 전체를 하나의 야간 관광 동선으로 연결

- 전포카페거리로 이어지는 골목길 상부에 서면 특화 디자인의 스마트 스트링 라이트를 연속 배치하여 보행자가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
- 부산시민공원 방면 보행로에 '색상 유도(Color-coding) 가로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빛 색깔만으로 방향을 인지할 수 있는 '라이트 네비게이션' 체계를 구축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진구청 /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공공) - 역동의 빛 관문 조성(공공) [1식] 1,000백만원 미디어 스트리트 고도화(공공) - [1식] 1,000백만원 라이팅 컬처벨트 연결(공공) - [1식] 600백만원

5.1.13 명소화 사업 - 10 : 달맞이길(문텐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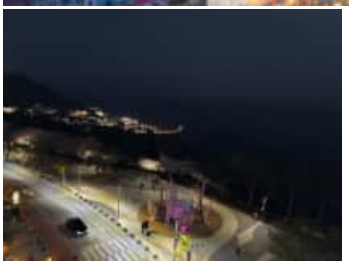
명소화 대상지 중요성

- 해운대 해변과 숲이 만나는 지점으로 부산 최고의 낭만 산책
- 해운대와 광안리를 조망할 수 있고 아름다운 달을 조망하는 주요 조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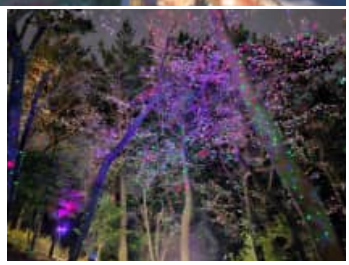
명소화 대상지 현황 및 문제점

- 정체성 없는 무질서한 빛으로 광장만의 고유한 야간 분위기 조성 어려움
- 기존 설치된 상징시설물의 노후화 및 조명 연계성 부족으로 인지성이 저하되고 경관 저해요소 작용
- 동적인 요소가 부재하고 주변 명소와의 빛의 연계성 고려 부족









Moonlight Waltz: 달빛 아래 나누는 대

공간 방향	연계성
자연의 어둠을 존중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저휘도 조명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미포, 청사포로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 연결

경험하는 빛(Experience)

해마루 '라이팅 파노라마' 조망점 고도화 단기

해운대 해수욕장과 광안대교를 한눈에 담는 조망 거점을 재정비하여, 부산의 야경을 감상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

- 해마루 정자와 주변 데크에 눈부심 차단(Anti-glare) 간접 조명을 설치하여 조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미를 은은하게 부각
- 조망 포인트에 디지털 야경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현재 보이는 랜드마크들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빛의 그래픽으로 제공



연결하는 빛(Network)

미포-청사포 '블루라인 로드' 연결 중기

해변열차(블루라인파크) 경로와 달맞이길 산책로 사이의 시각적·물리적 연계를 강화하여 입체적인 야간 관광 루트를 형성

- 달맞이길에서 미포와 청사포로 내려가는 주요 연결 경사로에 '달빛 유도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해안가 상권으로 유입되도록 동선을 가이드
- 미포 철길 구간과 달맞이 산책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두 권역의 디자인 톤이 섞인 게이트를 설치하여 권역 간 연속성을 부여



구분	내용
관련부서	부산시청 부산해운대구청
재원 및 개략사업비	국비 + 시비 1. 해마루 '라이팅 파노라마' 조망점 고도화(공공) – [1식] 300백만원 2. 블루라인 로드 조성 (공공+민간) – [1식] 1,000백만원

발행기관 부산광역시청

발행부서 부산광역시 디자인도시정책과

발 간 일 2026. 09.

연구참여

부산광역시

나 건	총괄디자이너
우신구	총괄건축가
문정주	미래디자인본부장
정은애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과 과장
장해진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과 도시경관팀장
류경화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과 주무관
지재훈	미래디자인본부 디자인도시정책과 주무관

유원디자인연구소

노지현	대 표
정상호	이 사
송지연	이 사
이원희	팀 장
이연수	과 장
나하나	과 장
정진선	과 장
이은미	주 임